

최종보고서

#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2008.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제 출 문

---

대한민국예술원 귀하

본 보고서를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 갑 영

---

#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연구진

### 연구책임자

허 은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공동연구자

오 세 곤 (순천향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연구원

장 진 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 해외 사례 조사

김 혜 영 (프랑스, 리옹 2대학 마스터프로 과정)

박 은 영 (독일, Handelshochschule Leipzig MBA과정)

윤 오 순 (일본, 도쿄 히토쓰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

### 연구보조원

채 인 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원 대 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 CONTENTS

<b>제1장 서론</b>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5
<b>제2장 대한민국예술원의 역사 및 현황</b>	7
제1절 예술원의 역사	9
1. 예술원의 설립	9
2. 대한민국예술원의 시대별 변천	10
제2절 예술원의 현황	18
1. 미션	18
2. 기능 및 역할	18
3. 기관의 성격	18
4. 연혁	19
5. 예술원 조직	20
<b>제3장 대한민국예술원 외부 환경 및 내부 여건 분석</b>	23
제1절 예술원 외부 환경 분석	25
1. 21세기 예술의 흐름 및 전망	25
2.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30
3. 정책 환경	43
제2절 예술원 내부 여건 분석	46
1. 예술원 미션	46
2. 예술원 회원제도	48
3. 예술원 사업	56

제4장 예술원에 대한 인식 조사	79
제1절 예술원 회원 인식 조사	81
1. 조사 개요	81
2. 조사 결과	82
제2절 예술인 및 예술행정 전문가 인식 조사	94
1. 조사 개요	94
2. 조사 결과	95
제5장 학술원 및 해외 예술원 사례	107
제1절 대한민국학술원	109
제2절 일본예술원	117
제3절 아카데미 보자르(Academie des Beaux-Arts)	127
제4절 미국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139
제5절 독일 예술원(Akademie der Künste, Berlin)	152
제6절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시사점	167
1. 설립목적 및 역할 변화	167
2. 회원제도	168
3. 주요 기능 및 사업	170
4. 시상제도	172
제6장 대한민국예술원의 중장기 목표와 발전 방향	175
제1절 중장기 계획의 전제	177
1. 원칙 및 고려사항	177
2. 예술원의 미션 재정립	178
제2절 중장기 계획의 기본 방향	184
1. 중장기 계획 목표	185
2. 중장기 목표에 따른 주요 과제	188



# CONTENTS

<b>제7장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b>	191
제1절 예술원 사업	193
1. 회원 업적정리 및 예술원 아카이브 구축	193
2. 대한민국예술원상 활성화 및 권위 제고	196
3. 회원 전승사업 활성화	199
4. 국제교류 활성화	202
제2절 회원제도	205
1. 회원 예우의 내실화	205
2.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회원제도 운영	209
제3절 운영 기반	219
1. 예술원 청사 공간의 확보	219
2. 예술원에 대한 대내외 홍보 강화	222
3. 예산의 확보	224
<b>참고문헌</b>	227
<b>부 록</b>	229

##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표 1> 예술원 개원 초기 회원제도	11
<표 2> 1954년 선출된 선거회원 명단	11
<표 3> 초대 추천회원 및 임명회원 명단	11
<표 4> 제2대 회원 중 선거회원 명단	12
<표 5> 제3대 회원 명단	13
<표 6> 제4대 회원명단	13
<표 7> 1981년 4월 신문화보호법 개정으로 바뀐 회원제도	14
<표 8> 1981년 4월 신문화보호법 개정으로 임명된 회원	14
<표 9> 1981년 8월 12일 공식으로 남아있던 정회원 20명의 신규명단	14
<표 10> 1988년 대한민국 예술원법 중 회원제도 관련 사항	15
<표 11>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현황	16
<표 12> 국내 예술환경 변화와 예술원의 활동	17
<표 13> 대한민국예술원 연혁	19
<표 14>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현황	21
<표 15> 사무국 직원 현황	22
<표 16> 예술계 대학/전문대학 학과 및 졸업생 현황	31
<표 17> 정부의 문화예술부문 예산	32
<표 18> 국고 및 공공기금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32
<표 19>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33
<표 20> 경매와 아트페어 매출현황(2005-2007년)	34
<표 21> 공연산업 규모(1997-2006년)	35
<표 22> 번역도서 비중 추이	38
<표 23> 번역출판 주요국가 통계	38
<표 24> 한국영화의 3대 국제영화제(칸, 베를린, 베니스) 수상 연혁	41
<표 25> 국제 콩쿠르 입상자 부문별 현황(2004-2005년)	42
<표 26> 국내무용단의 해외공연 현황(국가별 공연 건수)	43
<표 27> 국립문화예술기관 예산 현황	45
<표 28> 연도별 정원 및 현원의 변화	49
<표 29> 회원구분 및 임기 변천	54
<표 30> 예술원 사업예산 현황 (2008년도 세출예산 기준)	57
<표 31>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절차	60
<표 32>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 현황(1995~2007)	60



## CONTENTS

〈표 33〉 예술도서 발간 현황	67
〈표 34〉 최근 5년간 예술강연회 개최실적	70
〈표 35〉 우수예술인 발굴지원 내역	76
〈표 36〉 회원 만족도	83
〈표 37〉 예술원의 임무(mission)에 대한 인식	87
〈표 38〉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91
〈표 39〉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분과별)	91
〈표 40〉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재임기간별)	92
〈표 41〉 예술원 회원 구성체계 개선에 관한 인식	93
〈표 42〉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93
〈표 43〉 외부집단 심층인터뷰 대상자	94
〈표 44〉 일본예술원 연간 예산	118
〈표 45〉 프랑스 예술원 시상제도	135
〈표 46〉 미국아카데미 시상제도	146
〈표 47〉 독일아카데미의 연혁	153
〈표 48〉 독일 예술원의 연간예산	155
〈표 49〉 프로그램 운영 경비 내역	155
〈표 50〉 예술원 사무처 직원 구성	158
〈표 51〉 독일 예술원 부별 현원	160
〈표 52〉 독일 예술원의 시상제도	163
〈표 53〉 기관별 설립 목적 및 역할	167
〈표 54〉 기관별 회원의 구분	168
〈표 55〉 기관별 회원 예우의 방식	170
〈표 56〉 해외 유사기관 주요 기능 및 사업	170
〈표 57〉 예술원의 기존의 미션	179
〈표 58〉 해외 유사기관의 회원 기록사업 현황	194
〈표 59〉 해외 유사기관의 시상제도	197
〈표 60〉 해외 유사기관의 회원 전승사업 현황	200
〈표 61〉 해외 유사기관의 신규회원 선출 권한	211
〈표 62〉 연도별 회원 정원의 변화	211
〈표 63〉 유사기관의 외국인 회원 현황	217
〈표 64〉 해외 유사기관의 청사 현황 및 활용	220



# 대한민국예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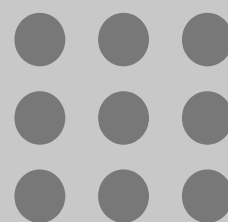
##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그림 1] 예술원의 설립과정	10
[그림 2] 예술원 기구표	20
[그림 3] 연간 예술행사 관람율 : 2003년, 2006년과 비교	30
[그림 4] 연도별 국제전시 개최 현황	39
[그림 5] 연도별 국제전시 참여 현황	40
[그림 6] 공연예술 분야 국제교류 현황	40
[그림 7] 연도별 국내 국악단체의 해외공연 횟수(2003-2006년)	42
[그림 8] 대한민국예술원의 법률적 위상	44
[그림 9]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원의 변화	48
[그림 10] 분과별 회원 수의 변화	49
[그림 11] 예술원 주요 사업	56
[그림 12] 예술원 주요사업의 사업비 현황	58
[그림 13] 예술원 회원의 예술원상 수상 현황	61
[그림 14] 1인당 예술창작활동 지원금	73
[그림 15] 회원 만족도(전체응답자)	83
[그림 16]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재임기간별 응답자)	84
[그림 17]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분과별 응답자)	84
[그림 18]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만족도(재임기간별 응답자)	85
[그림 19]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만족도(분과별 응답자)	86
[그림 20] 국가예술 발전에 대한 책임감(재임기간별 응답자)	86
[그림 21] 국가예술 발전에 대한 책임감(분과별 응답자)	87
[그림 22] 예술원의 임무(mission)에 관한 인식	88
[그림 23] 예술원의 미션에 관한 인식(재임기간별 응답자)	88
[그림 24] 예술원의 미션에 관한 인식(분과별 응답자)	89
[그림 25] 예술원의 기능 수행에 관한 인식	89
[그림 26]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90
[그림 27] 대한민국 학술원 조직도	110
[그림 28] 일본 예술원 조직도	118
[그림 29] 미술부문 분과별 회원 구성비	121
[그림 30] 문예부문 분과별 회원 구성비	121
[그림 31] 음악·연극·무용 부문 분과별 회원 구성비	121
[그림 32] 미국 예술원 분과별 일반회원 현황	143
[그림 33] 미국 예술원 분과별 외국회원 현황	143
[그림 34] 미국 예술원 명예회원 분야별 현황	144
[그림 35] 독일 예술원 사무처 직원 조직도	158
[그림 36] 중장기 목표의 기본방향	185
[그림 37]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도	190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가.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 대한민국예술원이 설립된 1954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및 문화예술 환경은 큰 변화를 겪어 왔음.
- 경제개발이 최우선의 과제이던 시기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대로 변화하였음.
-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공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및 블록버스터 전시회의 성황, 미술 품 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 등 국내 예술 시장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류 열풍 및 각종 해외 영화제의 수상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 사례가 생김.
- 반면 예술시장의 성장 및 대중적 성공 사례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계의 상업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기존 장르의 해체 및 장르 간 혼합,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예술장르의 탄생, 인터넷 등을 통한 예술 유통·향유 방식 등장 등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 중임.

#### 나. 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원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우리나라 예술 창작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예술원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예술인의 대표 기관임.
-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인들을 회원으로 선출하여 우대하고 이들의 식견을 활용하고자 하

는 취지로 설립되었음.

-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예술진흥이 적절한 방향을 찾아가는 데 원로 예술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임. 또한 이를 통해 예술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

## 2 연구목적

### 가. 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원의 역할 및 비전 정립

- 예술원은 기관의 법률적 위상 및 예술원 회원 개인의 명성은 최고 수준인데 반해 예술인 및 일반 대중 사이에서의 예술원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임.
-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서의 대한민국예술원의 역할에 대한 검토 및 방향 제시.
-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술인으로 구성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예술진흥 선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비전 모색.

### 나. 예술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예술원의 현황 및 성과 분석, 변화하는 환경에서 예술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
- 예술원의 새로운 역할 및 비전에 따른 목표를 도출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 제시.

### 다. 예술원의 위상 및 권위 제고

- 예술원의 새로운 역할 및 비전 정립,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예술원의 위상 및 권위 제고.
- 예술진흥 선도 및 자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인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제2절

###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예술원의 환경 및 여건 분석
- 예술원의 미션 재정립
- 예술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 도출

####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문헌 조사

- 예술원의 외부 환경 및 내부 여건 분석
- 예술원의 미션 재정립
- 예술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 도출

유사 기관 사례 조사

- 예술원의 미션 재정립 및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유사 기관 사례 연구 : 대한민국학술원 및 해외 유사기관(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 인식조사

조사 목적

- 예술원의 미션 재정립,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해 예술원 회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조사 내용

- 예술원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 대상

- 내부집단 : 예술원 회원(85명)
- 외부집단 : 예술인 및 예술전문가(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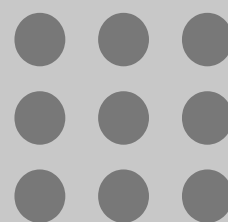
조사 방법

- 내부집단 : 설문조사(전수조사)
- 외부집단 : 심층 면접 조사

● 자문회의

- 예술원의 비전 및 미션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자문위원은 예술원 회원 중 각 분과별로 2인씩 선정

# 대한민국예술원의 역사 및 현황



제1절 예술원의 역사적 변천

제2절 예술원의 현황

# 제1절

## 예술원의 역사

### 1 예술원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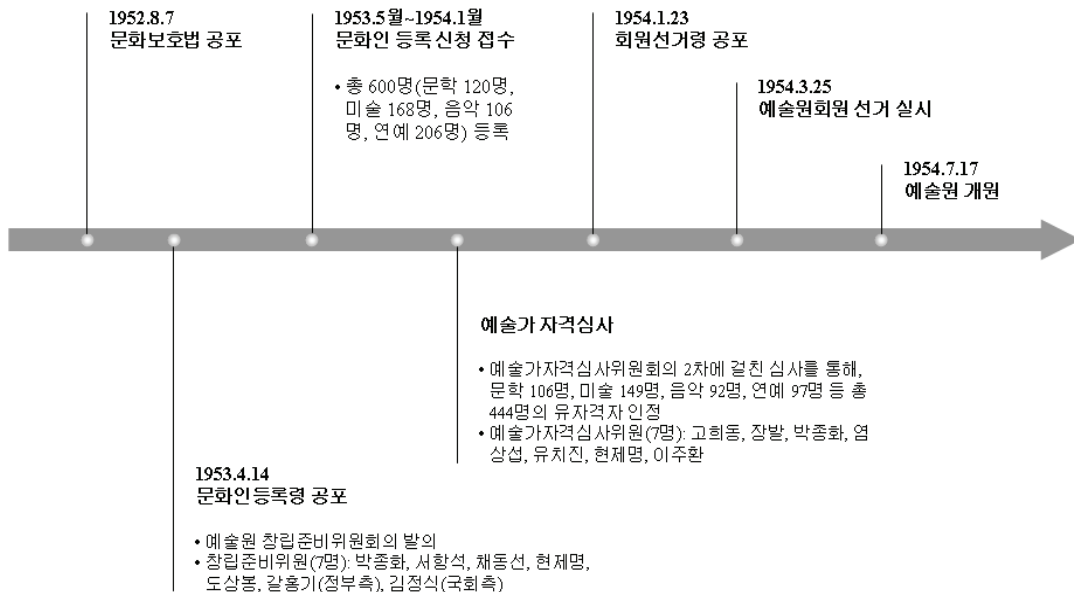
#### 가. 설립근거

- 예술원은 1952년 8월 7일에 공포·시행된 「문화보호법」에 근거하여 1954년 7월 17일에 설립되었음.
- 「문화보호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인의 지위 향상,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공포·시행된 법률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일정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
- 「문화보호법」의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학술원과 예술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원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예술작품의 제작과 연구 조성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1988년 12월 31일 「대한민국예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나. 설립과정

- 「문화보호법」의 공포 후, 문교부에서는 예술원 창립을 위해 박종화, 서항석, 채동선, 현제명, 도상봉, 갈홍기(정부측), 김정식(국회측) 7명을 창립준비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이들 창립준비위원회의 입안을 바탕으로 1953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773호로 ‘문화인등록령’이 공포되었음.
- 문화인등록령에 의한 문화인 등록 과정에서 학자, 예술가들의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결

과적으로 문학 120명, 미술 168명, 음악 106명, 연예 206명 등 총 600명이 등록신청을 함. 예술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학 106명, 미술 149명, 음악 92명, 연예 97명 등 총 444명이 문화인으로 인정되어 회원선거를 통해 1954년 7월 17일 예술원이 개원됨.



[그림 1] 예술원의 설립과정

## 2 대한민국예술원의 시대별 변천<sup>1)</sup>

### 가. 해방직후~1960년대

- 1952년 문교부가 박종화, 현제명, 서항석, 도상봉, 채동선, 갈홍기, 김정식 등 7명을 예술원 창설 준비위원으로 선정, 위촉한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음.
- 회원의 경우에는 세 종류로 구분하기로 했는데 우선 선거에 의하여 임기 3년의 회원을 당선시키고, 그 당선된 회원이 다시 임기 6년의 회원을 추천하여 그 선거회원과 추천회

1) 본 내용은 대한민국예술원(2004), 『예술원 50년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음



원으로 우선 구성하고 거기서 종신회원을 뽑아 대통령에 제청하여 임명하도록 하였음.

- 예술원 회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네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회원수를 40명 이내로 하였음.
- 문화보호법에 따라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예술 경력이 10년 이상의 자만이 가질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자격을 입증하고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표 1〉 예술원 개원 초기 회원제도

선거회원(일반회원)	추천회원	종신회원(임명회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3년의 회원	선거회원이 임기 6년의 회원을 추천	선거회원과 추천회원이 종신회원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 1954년 4월 6일 예술원은 회원선거령에 따라 25명의 선거회원을 선출하였음.

〈표 2〉 1954년 선출된 선거회원 명단

문학	박종화, 염상섭, 윤백남, 김동리, 조연현, 서정주, 유치환
미술	고희동, 이상범, 장발, 손재형, 김환기, 윤호중, 배렴
음악	현재명, 성경린, 김성태, 김동진, 박태준, 이주환
연예	유치진, 이해랑, 오영진, 안종화, 이규환

- 1954년 4월 24일 초대 추천회원 10명 및 임명회원 4명을 선출함.

〈표 3〉 초대 추천회원 및 임명회원 명단

구분	초대 추천회원	임명회원(종신회원)
문학	박종화, 조연현, 김동리	염상섭, 오상순(원외)
미술	이상범, 장발, 손재형	고희동
음악	김성태, 성경린	현재명
연예	유치진, 이규환	

- 1957년 4월 5일로 선거회원의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선거회원 25명을 뽑음.  
예술원 제2대 회원은 임명회원(4명), 추천회원(10명)을 합하여 모두 39명이었음.

〈표 4〉 제2대 회원 중 선거회원 명단

문학분과(7명)	서정주, 유치환, 황순원, 김말봉, 이현구, 곽종원, 모운숙
미술분과(7명)	노수현, 도상봉, 배려, 김환기, 배길기, 김인승, 윤효중
음악분과(6명)	임원식, 김원복, 이주환, 정훈모, 김영익, 이흥렬
연예분과(5명)	이해랑, 김동원, 변기종, 이광래, 서향석

- 학·예술원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뚜렷이 하기 위해 관리권자를 문교부장관으로 하고, 문화인등록제도를 폐지함.
- 학·예술원에 사무국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보호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1957년 정부에서 공식 공포가 됨.
- 예술원보 창간(1955.6.30), 제1회 예술원상 시상(1955.7.17) 등의 활동을 개시하면서 예술원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하였음
- 1957년에 1차 개정된 문화보호법은 학·예술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회에 받아들여져 1960년 2월 3일 법률 제546호로 제2차 개정된 문화보호법이 공포되었음.
  - 새로운 문화보호법에 따라 예술원은 기존의 선거회원제를 폐지하였음.
  - 정원 10명이 증가되어서 정원은 50명 이내가 되었고 추천회원 임기는 6년, 임명회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였음.
- 1960년 3월 25일 제3대 회원선출은 선거회원제의 폐지로 증원된 10명과 3년의 임기를 마친 제2대 선거회원 25명, 6년의 임기를 마친 초대 추천회원 10명의 공석을 두고 이루어짐.
  - 선거회원제 폐지로 증원된 10명은 각 분과별 합의로 1명을 공석으로 두고 모두 9명을 뽑기로 함에 따라 3대 회원 선출에서 44명을 선출함.
  - 임명회원 4명을 포함해 모두 48명에 이르게 됨.

〈표 5〉 제3대 회원 명단

구분	추천회원(44명)	임명회원(종신회원)(4명)
문학(15명)	박종화, 모윤숙, 김동리, 서정주, 유치환, 황순원, 김말봉, 이현구, 곽종원, 신석초, 박영준, 김광섭, 조연현	염상섭, 오상순(원외)
미술(13명)	장발, 이상범, 손재형, 노수현, 도상봉, 배렴, 김환기, 배길기, 김인승, 윤희중, 허백련, 이종우	고희동
음악(11명)	김성태, 성경린, 임원식, 김원복, 이주환, 정훈모, 김영의, 이흥렬, 김생려, 박태준	현재명
연예(9명)	유치진, 이규환, 이해랑, 김동원, 변기중, 이광래, 서항석, 오영진, 박진	

- 〈예술원보〉가 5.16 이후 1963년과 1964년 2년간 잠시 중단됨에 따라 원보를 대신하여 예술논문집이 발행됨. 1965년 예술원보는 속간하고, 예술논문집 역시 예술원보와 더불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년 1회 발행됨.
- 1966년 3월 15일 제4대 회원을 선출함.
  - 제3대 예술원 회원 중 임명회원(종신회원)을 제외한 추천회원의 임기가 1966년 4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현 회원 42명과 정원까지의 부족수인 8명의 추천을 확정함.

〈표 6〉 제4대 회원명단

구분	현임회원(42명)	신임회원(8명)
문학(16명)	박종화, 모윤숙, 김동리, 서정주, 유치환, 황순원, 이현구, 곽종원, 신석초, 박영준, 김광섭, 조연현	이은상, 박화성, 백철, 박목월
미술(14명)	장발, 이상범, 손재형, 노수현, 도상봉, 배렴, 김환기, 배길기, 김인승, 윤희중, 허백련, 이종우	이병규, 김은호
음악(11명)	김성태, 성경린, 임원식, 김원복, 이주환, 정훈모, 김영의, 이흥렬, 김생려, 박태준	김세형
연예(9명)	유치진, 이규환, 이해랑, 김동원, 변기중, 이광래, 서항석, 박진	김정환

나. 1970년대~1980년대

- 1970년대의 예술원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안정화하는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세미나의 본격적 실시, 국제예술심포지엄 개최 시작, 예술원미술전 실시 등을 들 수 있음.
- 학·예술원의 성격을 바꾸고 개편하는 신문화보호법 개정안은 학·예술원의 강한 저항에

- 도 불구하고 1981년 4월 13일에 전면 공포·시행되었고 1988년에 폐지되었음.
- 신문화보호법은 예술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회원의 구분을 원로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세분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준회원은 한번도 임명되지 않았음.

〈표 7〉 1981년 4월 신문화보호법 개정으로 바뀐 회원제도

구분	원로회원	정회원	준회원
회원정수	15인 이내	50인 이내	150인 이내
임무	명예직, 예술원총회 또는 정회원의 자문 역할	총회, 부회 및 분과회의 구성원으로 각종 회의에 참여, 활동	전공별 분과회에만 참여, 활동
선출	예술의 향상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중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문교부장관이 추대	예술원 총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예술원 총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
자격		70세 이하의 예술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0년 이상예술경력을 가진 자거나 기타 예술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임기	종신	4년	4년
개정 이전 회원	71세 이상의 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추대	70세 이하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임명	

〈표 8〉 1981년 4월 신문화보호법 개정으로 임명된 회원

원로회원(18명)	문학	박화성, 김팔봉, 이은상, 이현구, 최정희, 백철, 모운숙	7명
	미술	이순석, 오지호, 박영선, 손재형	4명
	음악	김세형, 이해구, 김영의, 김원복	4명
	연예	서항석, 이규환, 김천홍	3명
정회원(27명)	문학	윤석중, 김동리, 서정주, 황순원, 곽종원, 임옥인, 조연현, 구상	8명
	미술	박득순, 장우성, 김종영, 김경승, 유영국, 이유태, 배길기, 유경채, 천경자	9명
	음악	이상춘, 김성태, 성경린, 김생려, 임원식	5명
	연예	김소동, 이원경, 이진순, 이해랑, 김동원	5명

〈표 9〉 1981년 8월 12일 공석으로 남아있던 정회원 20명의 신규명단

정회원(20명)	문학	손소희, 이범선, 김춘수, 김윤성, 박연희, 정한모, 조병화	7
	미술	김원, 김기창, 이종무, 이준, 김충현	5
	음악	김동진, 박민중, 장사훈, 김자경, 김기수	5
	연예	김백봉, 차범석, 유현목	3

※ 정회원 정원은 50명이지만 4월과 8월에 선정된 정회원은 총 47명으로 정원에서 3명이 미달됨

- 이 시기의 예술원 활동은 종전과 다름없이 지속되어 예술원보, 예술논문집은 계속 발간되었음. 또한 한국예술의 전반에 걸친 연구논문 및 논저들의 자료를 정리하는 ‘예술총람’의 발간을 기획하고 1983년에 전3권을 발간함. 특히 1984년에는 한국예술사총서 4권을 완간하였으며, 1985년에는 한국예술사전 전 4권(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을 발간함.
- 1982년부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10여 회의 예술강연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음.
- 1988년 12월 대한민국 예술원법이 공포됨.
  - 학술원과 예술원이 통합 규정되어 있던 문화보호법을 폐지하고, 예술원법과 학술원법으로 각각 분리 제정함
  - 또한 원로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회원’으로 단일화하고, 회원의 정원을 종전의 정회원 50명에서 75명으로 확대, 종래의 원로회원은 정원 외로 함.

〈표 10〉 1988년 대한민국 예술원법 중 회원제도 관련 사항

구분	회원
회원정수	75명
조직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 활동
선출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회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함
자격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예술경력을 가진 자거나 기타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
임기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마. 1990년대 이후~현재

- 이미 안정기에 들어선 예술원은 1국 2과의 예술원사무국을 신설하고, 순수예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기존의 사업(대한민국예술원상, 회원세미나, 국제예술심포지엄, 예술강연회 등)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오늘의 한국예술을 바르게 살피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한국예술총집 발간사업은 1986년 미술편 I 을 발간하였고, 이후 매년 연차적으로 1권씩 발간하고 있음.

● 1996년 12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으로 회원 정원이 75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남.

〈표 11〉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현황

(2008년 10월 현재)

분 과		정원(명)	현원(명)	회원 성명
문 학		28	21	박연희 김윤성 김성한 전숙희 홍윤숙 김남조 이호철 김종길 문덕수 이어령 유종호 성찬경 김윤식 최일남 박완서 신경림 황동규 김우창 박희진 이근배 김원일
미 술		25	23	천경자 이 준 박노수 권옥연 백문기 문학진 전뢰진 권순형 오승우 이광노 윤영자 권영우 손동진 이신자 민경갑 최종태 조수호 이수덕 윤명로 이종상 유희영 서세옥 박광진
음 악		22	18	김성태 이해구 김동진 황병덕 정회갑 김순열 안형일 황병기 이인영 황영금 이경숙 이재숙 한명희 서계숙 박노경 나인용 권오성 나덕성
연극 · 영화 · 무용	연 극	25	10	이원경 장민호 김정옥 강성희 박현숙 임영웅 이병복 백성희 박조열 박정자
	영 화		7	유현목 김수용 신봉승 김지현 김기덕 임권택 황정순
	무 용		5	김백봉 김문숙 조흥동 송수남 최청자
합계		100	84	

● 대한민국예술원의 설립이후 예술계의 상황 및 예술원의 활동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2〉 국내 예술환경 변화와 예술원의 활동

구분	시대적 상황	예술계 상황	예술원 활동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방과 좌우익의 대립</li><li>- 6.25 전쟁과 미군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좌우익의 정치적 활동</li><li>- 장르별로 여러 단체의 결성 및 해체, 단일화노력</li><li>- 전쟁으로 인한 예술계 인사들의 월북 및 납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술원 개원(1954.7.17)</li><li>- 예술원보 창간</li><li>- 제1회 예술원상 시상</li></ul>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19 혁명</li><li>- 경제 성장 위주의 산업화 정책</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주체 등장</li><li>- 4.19로 인해 확산된 자유와 민주주의, 성찰의 정신의 영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보호법의 개정</li><li>- 정원증가 및 신규회원 선출(10명)</li><li>- 한국예술총람 발행</li><li>- 〈예술논문집〉 발행</li></ul>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신정권</li><li>- 급속한 경제성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민족문학, 분단문학 등 풍성한 문학적 결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원세미나의 본격 실시</li><li>- 국제예술심포지엄 시작</li><li>- 예술원미술전 실시</li></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신체제의 종식과 제5공화국 출범</li><li>- 新문화보호법</li><li>-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기간의 계엄으로 인한 일시적 위축현상 및 복고의 바람</li><li>- 마당극의 붐과 시극(詩劇)운동, 북한 대중예술의 서울 공연</li><li>- 공연법 개정</li><li>- 민족미술의 확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술총람〉 발간</li><li>- 〈한국예술사전〉 발간</li><li>- 예술강연회 시작</li></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동구권의 몰락</li><li>- 세계화이념의 확산</li><li>- 신자유주의 등장 및 다원화 시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예술계 거목들의 타계 및 세대교체</li><li>-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압박</li><li>- 외환 위기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침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순수예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유지 및 수행</li><li>- 한국예술총집 발간</li></ul>

## 제2절

### 예술원의 현황

#### 1 미션

- 대한민국예술원의 미션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가짐.

#### 2 기능 및 역할

- 예술원은 국내외 예술인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예술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
  -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3 기관의 성격

- 예술원은 회원을 우대하고 회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임.
-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진흥에 관한 자문 또는 건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



- 회원은 회원 총회에서 선임하며(임기 4년), 회원자격은 예술의 창작·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한민국 원로예술인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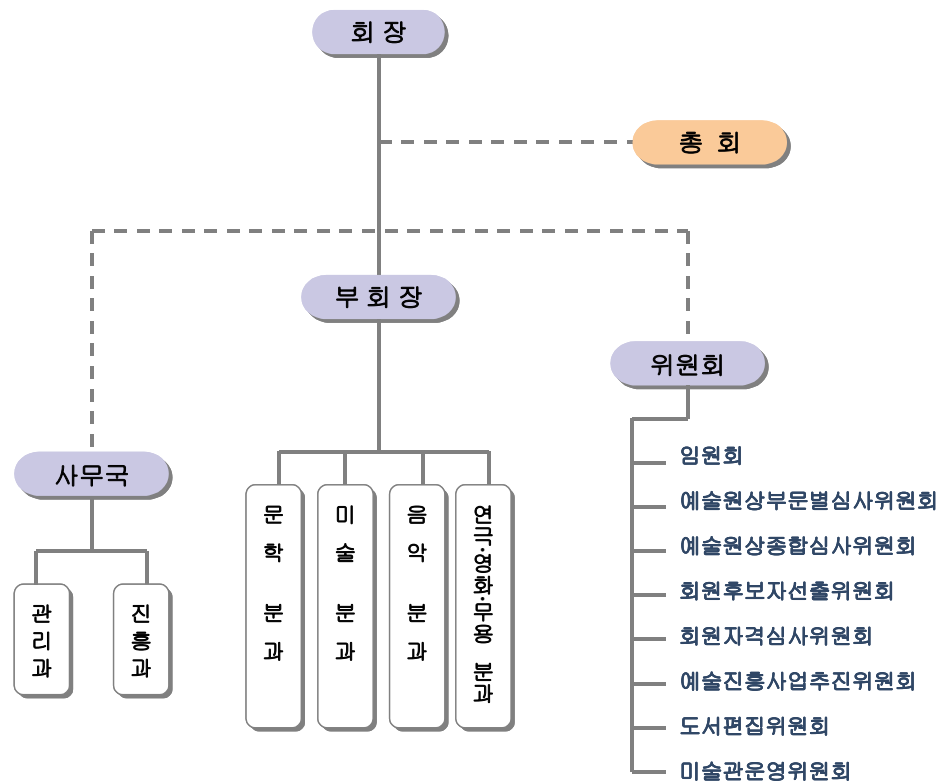
4 연혁

〈표 13〉 대한민국예술원 연혁

구 분		내 용
1950년대	1952.08.07	문화보호법 공포(법률 제 248호)
	1954.01.24	학·예술원회원선거령 공포(대통령령 제 864호)
	1954.07.17	예술원 개원(회원정원 : 25명)
	1955.04.09	예술원상시상규정 제정(예술원규정 제 1호)
	1957.03.02	예술원일반회원선거규정 제정(예술원규정 제 3호)
	1959.09.23	예술원사무국 직제 공포(대통령령 제 1514호)
1960년대	1960.01.04	예술원사무국 개청(서울 종로구 삼청동)
	1966.04.20	제 3대 회원 추천(50명)
1980년대	1981.04.13	문화보호법 개정(회원정원 65명) － 원로·정·준회원 구분, 정년 70세로 규정
	1985.08.12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 통합(대통령령 제 11738호)
	1987.10.17	학·예술원 회관 신축 개관(서초구 반포동 산94)
	1988.12.3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법률 제 4046호/회원정원 75명)
	1989.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 4183호) － 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
1990년대	1990.01.03	예술원사무국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12897호) － 예술원사무국 신설(1국 2과)
	1996.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 5209호/정원 100명)
	1996.12.31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지급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 15223호)
2000년대	2001.07.07	대한민국학술원및 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개정령 (대통령령 제 17293호)
	2005.03.2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법률7414호)

## 5 예술원 조직

### 가. 조직구조



[그림 2] 예술원 기구표

- 예술원 조직은 크게 회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 회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의 네 개 분과로 구분되며, 『예술원회원선출규정』에 의해 선출됨.
- 위원회에는 임원회, 예술원상 부문별 심사위원회, 예술원상 종합심사위원회, 회원후보자 선출위원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예술진흥사업 추진위원회, 도서편집위원회, 미술관운영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별 회원으로 구성됨.

## 나. 회원

### 1) 회원의 구분

- 예술원의 회원은 전문 분야별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의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과별 정원은 회원선출규정에 근거하여 문학 28명, 미술 25명, 음악 22명, 연극·영화·무용 25명임.
- 예술원 회원은 4년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수당 또는 연금을 받게 됨.

### 2) 회원 선정 기준

- 예술원 회원은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됨.
- 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함.

### 3) 회원 현황

〈표 14〉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현황

(2008년 10월 현재)

분 과		정원(명)	현원(명)	회원 성명						
문 학		28	21	박연희 이호철 김윤식 박희진	김윤성 김종길 최일남 이근배	김성한 문덕수 박완서 김원일	전숙희 이어령 신경림	홍윤숙 유종호 황동규	김남조 성찬경 김우창	
미 술		25	23	천경자 전뢰진 손동진 윤명로	이 준 권순형 이신자 이종상	박노수 오승우 민경갑 유희영	권옥연 이광노 최종태 서세옥	백문기 윤영자 조수호 박광진	문학진 권영우 이수덕	
음 악		22	18(2)	김성태 안형일 한명희	이혜구 황병기 서계숙	김동진 이인영 박노경	황병덕 황영금 나인용	정회갑 이경숙 권오성	김순열 이재숙 나덕성	
연극 · 영화 · 무용	연 극	25	10(1)	이원경 이병복	장민호 백성희	김정옥 박조열	강성희 박정자	박현숙	임영웅	
	영 화		7	유현목 황정순	김수용	신봉승	김지현	김기덕	임권택	
	무 용		5	김백봉	김문숙	조흥동	송수남	최청자		
합계		100	84(3)							

※ 현원 중 ( )는 정원 외의 종신회원임

다. 사무국

1) 사무국의 구성

- 예술원 사무국은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기관임.
- 사무국의 직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과장은 서기관 중에서 임명됨.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술원사무국직제규정」 및 「예술원사무국직제시행규칙」에 따름.

2) 정원 및 현원 : 2과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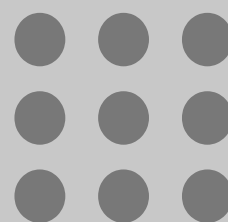
〈표 15〉 사무국 직원 현황

구 분	2·3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합계
정 원	1	2	2	4	5	14
현 원	1	2	2	3	5	13

3) 사무국 업무분장

부서	담당업무
관리과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진흥과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예술원 외부 환경 및 내부 여건 분석



제1절 21세기 예술의 흐름 및 전망

제2절 예술원 외부환경 분석

제3절 예술원 내부여건 분석

## 제1절

### 예술원 외부 환경 분석

#### 1 21세기 예술의 흐름 및 전망

##### 가. 예술 변천의 가속화

###### 1) 짧아지는 변화 주기

- 예술은 변증법적으로 변화함. 즉 과거로 회귀하는 듯해도 실제 과거와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님. 그러나 정반합의 이 관계는 현대로 올수록 진동의 주기가 가속적으로 짧아짐.
- 물론 서양식 분류를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예술이 이성적이었다면 중세 예술은 다분히 감성적이고 그 부정형의 폐단이 과해지자 이내 르네상스를 거쳐 엄격한 규칙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가 나타남.
- 신고전주의의 이성주의는 이내 계몽의 시대로 이어지고 결국 19세기 초 그 규칙의 과도한 엄격성에 반발하는 낭만주의가 태동함.

###### 2) 가속에 따른 혼재

- 낭만주의까지 변화의 주기는 최소 수 세기에 이름. 그러나 이후 낭만주의에 반발한 사실주의가 나타나는 데는 불과 50여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며 사실주의와 그 극한인 자연주의가 상징주의의 도전을 받는 것도 불과 3-40년 후인 19세기 말임.
- 이어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등이 나타나고 큐비즘이나 부조리, 극사실주의 등이 등장하여 거의 동시다발적 혼재 상태를 이루게 되니, 21세기에는 이 진동의 가속화와 그로 인한 혼재 상태가 더욱 거세질 것임.

## 나. 예술 변천의 요인

### 1) 과학 기술의 발달

- 모든 과학에는 예술적 측면이 있고 모든 예술에는 과학적 측면이 있음. 그래서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라는 말도 있음.
- 과학 기술의 발달은 예술 변천의 주요 요인임. 실제로 기술과 예술은 유럽어의 ‘art’가 그렇듯이 하나의 범주로 볼 수도 있음.
- 과학 기술의 발달은 우선 예술 매체 자체를 변화시킴. 즉 과거 피라미드를 능가하여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규모의 거대 예술도 가능해지고 나노기술 등에서 보듯 초소형 미세예술도 가능해질 것임.
- 또한 역시 과학 기술이라 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과거 불가능했던 교류를 가능케 하여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글로벌 예술 환경을 가능케 함.
-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20세기 후반 확산되기 시작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초래될 것이니 이는 예술의 표현 및 전달과 관련하여 전혀 다른 여건을 조성할 것이 확실함.

### 2) 생각의 변화

- 세상이 변하면 예술도 변하는 것은 당연함.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 즉 인간들의 보편적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
- 생각의 변화는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쌓인 사회적 변화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세계 대전과 같은 엄청난 전쟁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 큰 사건에 의해 급격히 형성되기도 함.
- 그러나 앞서 살핀 과학 기술의 발달도 생각 변화의 중요한 이유가 됨. 예를 들어 우주 개발로 인한 인간들의 우주관 변화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가 그에 해당됨.

## 다. 21세기 예술의 흐름

### 1) 20세기의 연장

- 21세기는 20세기 예술 변천의 양상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바, 20세기 예술 변천의 특징적 면모에는 앞서 거론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① 내용과 형식의 일치 : 내용뿐 아니라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함. 예를 들어 부조리극은 세상의 원초적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 내용은 물론 형식 자체도 부조리하게 구성함.
- ② 개념 형성의 상대성 : 예술 작품이 절대적이지 않고 어떤 사물을 어떻게 존재시키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형성됨. 예를 들어 마르셀 뒤샹은 남성용 변기를 미술관에 옮겨놓고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 예술 개념에 대한 일대 혁명을 일으켰음.
- ③ 장르 경계의 붕괴 : 원래 예술이 하나였기에 장르 사이의 경계는 언제든 붕괴될 수 있으나 20세기 그 변화는 상당히 충격적임. 예를 들어 광주 비엔날레만 봐도 분명 미술 축제이건만 청각적 요소 즉 음악의 활용이 두드러짐. 또 미술의 범주에서 행하는 해프닝 등에는 공연적 요소가 필수적임.
- ④ 매체의 확대 :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예술 매체가 등장함. 예를 들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철저히 20세기 과학 기술 발달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 ⑤ 산업화 : 우선 예술 자체의 산업화가 활발해져 예술품 시장이 형성되었고, 예술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문화 산업의 개념이 형성됨.

### 2) 극과 극의 만남

- 예술과 인간의 삶은 원래 하나로 예술은 삶의 원동력이고 생존을 위한 교육의 수단이었음. 그러나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분리되기 시작하였는데, 20세기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한 일상과 예술의 분리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으니, 예술이 생계 걱정이 없는 이들의 사치품 정도로 인식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 극단적 분리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인간들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얻게 된 속도, 즉 ‘빠름’이 결코 ‘느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과학과 산업의 발달이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가 결코 ‘정신적 여유’를 능가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 이제 흔히들 ‘삶의 질’과 ‘진정한 행복’을



말하게 되었음.

- 21세기는 이렇듯 극과 극의 만남이 두드러질 것인데, 예를 들어 초고속 인터넷의 빠름을 통해 지극히 수공업적인 느린 예술을 체험할 것이며, 예술의 전문화가 심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상의 삶 속에 존재하는 예술이 실현될 것이고, 현재 일기 시작한 문화예술교육의 물결에서 예측하듯 예술이 인간 교육의 중심 수단으로서의 본연의 위치를 되찾게 될 것임.

### 3) 통합과 분화

- “문화, 언어 등에는 차이만 있을 뿐 우열은 없다”는 말은 이미 20세기 깨달음이지만, 21세기에는 이것이 더욱 분명히 모든 곳에서 실체를 드러낼 것임.
- 즉 글로벌화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거대한 통합의 기운과 함께 아주 작은 단위의 문화와 예술마저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환경이 될 것인데,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제3세계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제4세계, 제5세계, 또 그 이후 숫자가 결합된 표현이 필요한 세계가 될 것임.
- 과거 교류가 활발하지 못 할 때는 섞여도 어떻게 섞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젠 그 혼합의 양태나 과정 또한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 받을 것과 버릴 것의 구분이 가능해짐으로써 다른 것을 받아 변화하는 것도 용이하지만 자기 것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나 능력 또한 강화됨.
- 국가나 민족, 지역 차원에서뿐 아니라 장르 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통섭이라는 단어의 유행이 알려주듯, 장르 간 결합이나 경계 해체도 활발해지겠지만, 그런 가운데 기존 장르의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기도 할 것임. 즉 화학에서 원자와 분자를 생각할 때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도 원자는 그대로인 것처럼 전통의 장르들이 일종의 기초를 이루는 원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임.

## 라. 21세기 예술의 전망

### 1) 예술의 역할 증대

- 21세기는 예술 내지 예술인이 인간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확실함.

- 우선 물질적 차원에서 보자면, 과거 물리적 힘과 경제적 힘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21세기는 바야흐로 문화적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니, 20세기 시작된 문화산업의 흐름이 더욱 거세져 예술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임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며, 예술 자체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예술산업 또한 더욱 활발해져 예술 시장이 크게 열릴 것이 확실함.
- 그리고 정신적 차원에서 보자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로 예술이 이른바 ‘생활 속의 예술’ 내지 ‘공공예술’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며, 또한 20세기 전문가의 시대를 끝내고 21세기 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맞는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의 수단으로 예술의 중심적 위치 또한 확립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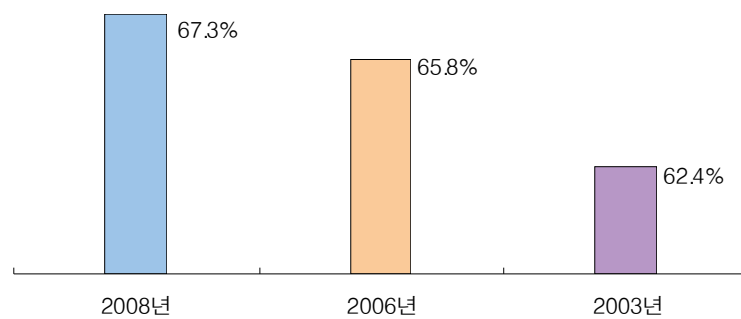
## 2) 예술의 영역 확대

- 21세기 예술은 20세기보다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 확실함.
- 우선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매체가 확대될 것인데 특히 컴퓨터, IT 등과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양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이른바 블랙박스(Black Box)와 화이트큐브(White Cube)라는 전통적 공간을 넘어 표현의 장 또한 더욱 넓어질 텐데 특히 20세기 후반 형성되기 시작한 디지털 환경은 소그룹 내지 개인의 장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임.
- 그렇게 표현의 장이 개별화하면서 예술의 양식도 다양해질 텐데 제각각 개성이 강한 나름의 표현 방식이 개발될 수도 있음.
- 더불어 예술의 개념도 확대될 것인데, 앞서 20세기에 나타난 상대적 개념이 확대될 것은 물론이고, 일상과 예술이 결합하면서 양쪽을 넘나드는 형태의 예술도 대거 등장할 것임.
- 예술이 필요로 하는 감각 또한 확대될 것인데 시각과 청각을 넘어 촉각과 미각 후각 등도 사용하게 될 것임.

## 2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 가. 문화 향수의 증가

- 예술원이 설립된 195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과 함께 경제 재건을 최우선의 목표로 성장해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로 변화하였음.
- ‘삶의 질’이란 단순히 외형적인 생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심리상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문화적 측면에서는 예술과 교육의 발전, 문화향수권의 확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 향유의 수준이 ‘삶의 질’ 고양의 가장 중요한 변수<sup>2)</sup>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증대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08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예술행사를 관람한 비율은 67.3%로, 2003년(62.4%)과 2006년(65.8%)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응답자의 74.5%가 앞으로 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sup>3)</sup>



[그림 3]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 : 2003년, 2006년과 비교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 p.167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 p.26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의 창작인구도 증가하고 있음.
  -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학과 및 전공자 수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예술계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자수는 연간 4만7천명에서 4만8천명 선으로, 5년에 약 25만 명의 전공자가 배출된다고 할 수 있음.

〈표 16〉 예술계 대학/전문대학 학과 및 졸업생 현황

구분	학과 수(개)				졸업생 수(명)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예체능교육	53	50	49	45	1585	1672	1529	1679
디자인	896	972	1050	999	24,573	24,767	24,856	22,659
공예	57	71	71	74	1,516	1,179	1,172	1,521
사진,만화	112	123	127	119	2,290	2,577	2,542	2,375
영상 예술	126	153	168	192	2,534	2,473	3,189	3,273
무용	58	63	70	58	1,338	1,287	1,200	1,218
미술, 조형	190	202	205	195	4,475	4,312	4,253	4,299
연극, 영화	83	102	98	110	1,367	1,590	1,555	1,653
음악(국악포함)	291	316	314	324	8,508	8,490	8,449	8,488
계	1,866	2,052	2,152	2,116	48,186	48,347	48,745	47,165

※ 자료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4~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8, p55에서 재인용)

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증가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또한 증가하였음.
- 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규모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공공지원과 사적지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최근 정부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과 기업의 예술지원 규모의 추이를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1)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

-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지원은 크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관련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방법과 국고 및 공공기금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정부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
  - 2000년대 이후 정부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을 보면 2004년 8,671억원, 2005년 9,697억원, 2006년 10,5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정부의 문화예술부문 예산과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7〉 정부의 문화예술부문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점유율(A/B)	0.632	0.658	0.687
문화예술부문예산(A)	8,671	9,697	10,552
정부예산(B)	1,372,700	1,474,281	1,537,026

※ 예산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7 문화정책백서』, p.51

- 국고 및 공공기금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 문화예술에 대한 국고 및 공공기금을 합산한 공공자금 지원 규모는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1,960억원 규모였으며, 2005년에는 14% 감소한 1,680억원임.

〈표 18〉 국고 및 공공기금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무용	5,543	6,452	9,037	8,054
음악	7,577	7,773	13,494	10,376
연극	3,895	4,369	9,269	4,954
전통예술	51,172	59,698	57,707	55,954
대중예술	545	697	940	1,169
예술교육	2,439	3,808	16,992	22,403
기타	59,177	73,058	88,954	65,291
계	130,348	155,855	196,393	168,242
증감률		19.57	26.01	-14.33

※ 자료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공연예술 전문 투자조합 설립방안 연구』, p.14

2) 문화예술에 대한 사적 지원

- 문화예술에 대한 사적 지원은 민간재단이나 기업의 지원, 후원회의 지원, 개인의 유산 증여 등 네 범주로 이루어지나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중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음
  - 2006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및 회원사 등 6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1999년 1,361억원, 2004년 1,710억원, 2005년 1,801억원, 2006년 1,84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19〉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구분	1999년	2004	2005년	2006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억원)	1,361	1,710	1,801	1,840

다. 예술 시장의 확대

1) 국내 예술시장 규모의 확대

- 일반적으로 시장이란 재화·용역이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 또는 메커니즘을 의미함. 따라서 예술시장이라고 했을 때, 예술은 하나의 재화나 용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이렇게 예술이 재화나 용역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님. 특히 예술원 설립 당시에는 예술이란 단지 부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
- 그러나 경제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일반 대중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여기에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이 가세하면서 대중의 예술에 대한 접근과 소비가 더욱 용이해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예술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블록버

스터 전시회의 성황 및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 공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등 국내 예술시장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2)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규모 확대

- 미술시장은 시장의 영역이지만 정부가 여러 제도를 통해 미술시장에 관여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임대하는 미술은행제도,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3,025평)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등이 있음. 정부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표 20〉 경매와 아트페어 매출현황(2005-2007년)

(※ 2007년은 11월까지 집계,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경매	서울옥션	63	220	828
	K옥션	50	192	529
	D옥션			182
	옥션A			7
	옥션M			40.8
	동예현고			6
아트페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45	110	175
	화랑미술제	5.8	13.8	28.6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3.1	6.6	9
	아트서울전과 한국구상대제전	3.7	3.8	5
	국제 판화사진미술제(SIPA)	7.5	9	30
합계		178	555	1840.4

※ 자료출처 : 〈서울경제신문〉, “올 미술시장 규모 4,000억원 훌쩍”, 2007년 11월 18일자

-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술시장의 호황은 작품거래의 활성화를 의미함<sup>4)</sup>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매와 아트페어의 매출규모를 통해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부분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아트페어는 다수의 화랑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술작품들을 전시하고 거래하는 미술시장을 말하는데, 최근 들어 경매와 아트페어 분야는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4) 문화체육관광부, 『2007 문화정책백서』, p.300

보이고 있음.

- 〈서울경제신문〉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미술시장의 규모가 약 4,000억원을 넘어섰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경매와 아트페어 부문에서의 매출이었음.

3) 공연시장 규모의 확대

- 공연시장의 경우는 주로 대형 뮤지컬, 오케스트라 공연이 등의 효과로 매년 공연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체수를 비롯한 공연예술기반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21〉 공연산업 규모(1997-2006년)

구분	매출액 (백만원)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영업비용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1997	190,790	984	5,514	162,153	56,478
1998	275,206	1,044	6,143	250,760	105,113
1999	320,927	1,168	7,387	310,703	93,897
2000	368,579	1,100	7,553	344,604	120,628
2002	349,467	1,306	8,985	353,909	118,596
2003	550,089	1,408	10,752	513,767	188,555
2004	587,914	1,411	11,800	591,122	247,838
2006	811,019	1,732	13,603	786,552	299,397

※ 자료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시도/산업별 총괄』, 2007

라. 예술의 상업화

1) 예술의 상업화 경향

- 이제까지 예술은 상업적 성공이 불가능한 비영리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예술시장 규모의 성장 및 대중적인 성공은 예술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서 다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특히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한 공연예술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연예술계에서 영리 영역의 자금조달 방식인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기 때문<sup>5)</sup>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공연예술 전문 투자조합 설립 방안 연구』, p.8



-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장 등의 세계사적 변화와 함께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이에 따라 예술의 본래적 가치보다 사회적 기능이나 경제적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예술을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압박이 증대되었음.
- 이러한 경향은 ‘예술산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새예술정책>은 예술산업을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내고 있음.<sup>6)</sup>

## 2)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

- 예술시장 규모의 성장 및 대중적 성공 사례 등은 문화예술 부문의 저변이 확대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는 예술의 자생력 증가 및 예술 발전의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러한 문화예술계의 상업화 경향에 대해 예술의 본래적 가치 상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예술의 본질과 순수예술의 전통을 보호·발전시킬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마. 예술의 다변화

- 20세기를 지배하던 서구의 모더니즘이 쇠퇴하고 난 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예술은 기존의 가치와 방식에 있어서의 해체와 통합을 통해 변화하고 있음. 20세기 후반 이후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이러한 장르 간 경계의 해체, 미적 가치 규범의 변화,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개념의 해체는 국내외 예술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음.
- 디지털기술을 예술창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디지털로 표현하는 순수창작미술인 ‘디지털파인아트(digital fine arts)’, 디지털 사운드를 이용한 ‘사운드 아트’, 사이버 공간

6) 문화관광부(2004), 『새예술정책』, p.515

(cyber space) 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을 일컫는 ‘넷 아트’ 등 새로운 형태의 예술도 점차 하나의 독립된 예술장르로 인정받고 있음.

- 특히 미술에 있어서는 서구 모더니즘 사조의 퇴조와 함께 다양한 소수문화로서의 대안적 미술 양식이 등장하였으며,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식의 미술이 주류 미술로 편입되면서 미술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예술장르간 뒤섞여진 크로스 오버, 퓨전 형식에 이어 기존의 장르개념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다원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였음.
  - 현대무용, 연극,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현대예술 전 장르간의 상호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예술은 아직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장르는 아니지만,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다원예술 소위원회를 하나의 독립된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최근에는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널리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예술의 다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 예술계에서도 이미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술원의 장르분과에도 이러한 예술계의 경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예술계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함.

## 바. 예술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 확대

### 1) 예술에 있어서의 국가적 경계 해체

- 최근의 예술계는 각지의 다양한 예술적 디אל로그(Dialog)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음.
- 특히 미디어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이 더 이상 예술창작이나 향유에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예술의 창작에 있어서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예술가의 국적이나 활동무대는 중요치 않게 됨.
-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예술을 유통하고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문화예술의 창작 뿐만 아니라 유통, 향유 전반에 걸친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2) 각 예술 분야별 국제화 및 교류 현황

-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으로 인해 예술의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세계화의 흐름과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예술에 있어서의 국제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임.

① 문학

- 외국 도서 번역 출판 비중
  - 국내에서 발행하는 도서 중 번역도서의 비중은 다음 표와 같음.<sup>7)</sup>

〈표 22〉 번역도서 비중 추이

분야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발행종수	34,279	36,186	35,371	35,394	43,598	45,521	41,094
번역서	9680	10,444	10,294	10,088	8938	10,482	12,322
구성비	28.2	28.9	29.1	28.5	20.5	23.0	30.0

- 국내 작품의 해외 진출 현황
  - 해외 작품의 국내 진출 규모에 비해 국내작품의 해외진출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으나, 정부의 번역지원사업 등의 결과로, 국내 작품의 주요 언어권 번역 출판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임.

〈표 23〉 번역출판 주요국가 통계

구분	일본어	영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체코어	스페인어
종	386	630	360	236	231	147	61	107
편	4,475	15,185	1,046	2,222	2,208	1,897	635	2,117

※ 자료출처 : 한국문학번역원(2006),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 -일본 문학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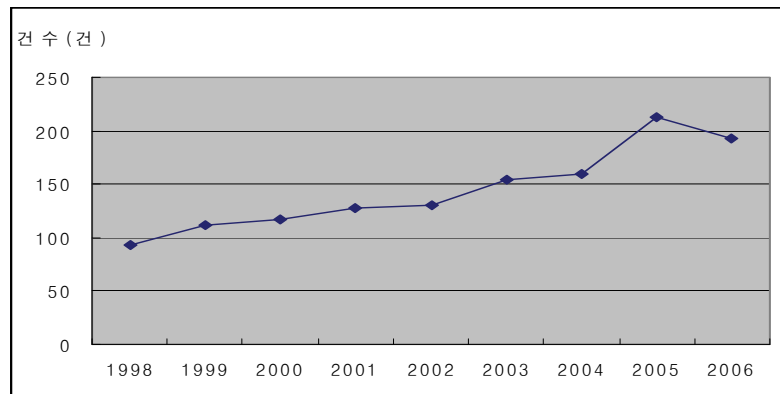
※ 2006년 9월까지 26개 언어권 2,323종

② 미술

- 미술 분야의 경우 백남준, 이우환, 서도호, 이불, 김수자 등 국내 뿐 아니라 해외무대에서 활동하며 세계무대에서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사례가 많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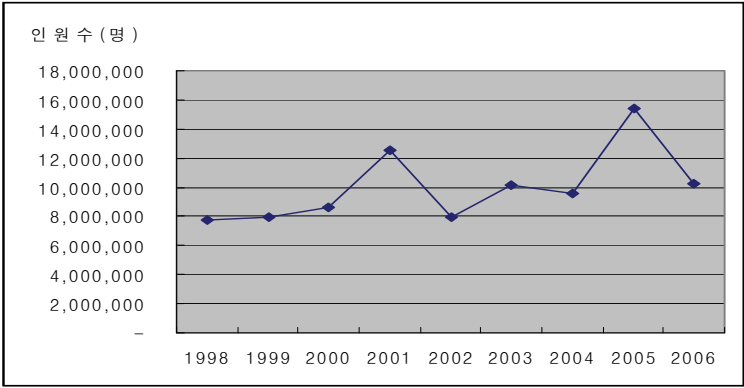
7) 대한출판문화협회, 〈최근 10년간 분야별 번역출판종수 추이(신간, 1998~2007)〉, 2008

- 최근에는 이우환, 김종학, 이대원, 김동유, 홍경택, 이환권 등 국내 작가의 작품이 홍콩 크리스티 등 해외 옥션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음.
  - 이는 대중문화에서의 한류바람 못지않게 우리 작가들의 경쟁력 있는 작품들이 아시아 및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주로 젊은 작가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내 원로작가의 경우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원로작가의 작품에 대한 해외 소개 및 홍보가 미흡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원로작가의 작품 및 작품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줌.
- 또한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등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하거나, 국내 작가가 각종 국제 비엔날레 및 아트페어, 미술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미술 분야의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음.
- 1995년에는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개관되었으며, 같은 해 설치미술가 전수천이 《방황하는 혹성들 속의 토우 - 그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작품으로 특별상을 수상한 이후, 3회 연속 한국작가가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작가가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 연도별 국제전시 개최 및 참여 현황<sup>8)</sup>



[그림 4] 연도별 국제전시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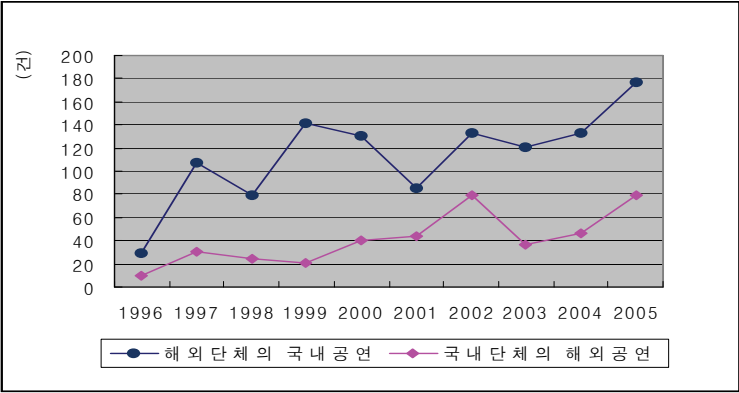
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예술통계』, p.307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5] 연도별 국제전시 참여 현황

③ 연극

- 연극분야는 상보다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호주의 아델레이드 페스티벌 등 비경쟁 부문의 축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경우가 일반적임.
  - 1999년 년버벌 퍼포먼스인 ‘난타’가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얻은 성과를 계기로 세계적인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 또한 최근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밤의 꿈’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6년 영국 런던의 바비칸 센터의 공식 초청을 받는 등 국내 연극의 해외진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한편 1991년 ‘연극의 해’를 기점으로 해외극단의 국내공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sup>9)</sup>



[그림 6] 공연예술 분야 국제교류 현황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문예연감』

④ 영화

- 최근 접근성이 높아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영화의 경우,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 감독 및 배우의 교류를 통한 합작영화의 제작 등을 통한 국제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 영화제 출품 및 수상
  - 한국 영화 역사상 국제영화제 최초 출품작은 1956년 이병일의 <시집가는 날>로, 제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으며, 1961년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특별한공상을 수상하여, 우리나라의 영화의 국제영화제 최초 수상작이 된 바 있음.
  - 한국영화의 3대 국제영화제(칸, 베를린, 베니스) 수상 연혁

〈표 24〉 한국영화의 3대 국제영화제(칸, 베를린, 베니스) 수상 연혁

연도	영화제	수상작	수상부문
1987	베니스 영화제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	여우주연상(강수연)
1994	베니스 영화제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	알프레드 바우어상
2002	칸 영화제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	감독상
2002	베니스 영화제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감독상
2004	베를린 영화제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	감독상
2004	칸 영화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심사위원대상

- 최근에는 국내 배우의 헐리우드 진출, 국가간 합작영화의 제작 등을 통한 영화부문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⑤ 음악

- 음악의 경우 조기유학이나 국제적인 콩쿠르에서의 입상 등을 통한 국제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음.
- 특히 1960년대의 한국 음악계는 서양음악의 급속한 확장과 구미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교향악단이 설립되고 해외교류가 활발해졌으며, 피아노 분야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해외 음악학교로의 유학 붐이 일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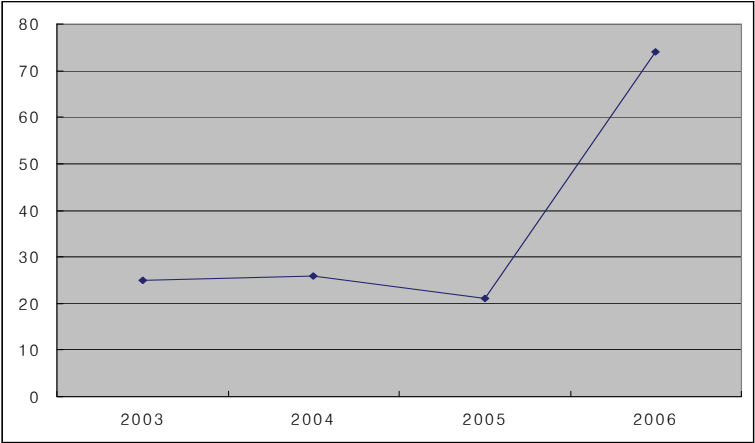
- 음악 부문에서는 국제적인 콩쿠르에 입상하여 세계적인 예술가로 발돋움한 예가 많이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 출신 음악가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사례는 2004년에 총 37회, 2005년에는 총 70회에 달함.

〈표 25〉 국제 콩쿠르 입상자 부문별 현황(2004-2005년)

구분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오르간	플루트	첼로	타악	실내악	작곡	오보에	지휘	계
2004	13	12	8	1	2	1							37
2005	10	33	13		2	1	1	1	2	5	1	1	70

※ 자료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문예연감』·『2005 문예연감』에서 재구성

- 음악의 경우 국내단체의 해외공연이 2006년에 74건으로 2005년보다 53건이나 증가했고, 특히 국악과 양악의 크로스오버 공연 등을 통한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sup>10)</sup>
  - 국내단체의 해외공연은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은 공연이거나 국공립단체의 공연 외에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비공식 해외공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국제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7] 연도별 국내 국악단체의 해외공연 횟수(2003-2006년)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7), 『2007 문예연감』

⑥ 무용

- 무용의 경우 국제행사를 통한 내한공연 및 해외 방문공연 등의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국제현대무용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세계무용축제> 등의 국제행사로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26〉 국내무용단인 해인공연 현황(국가별 공연 건수)

구분	동남 아시아	미국· 남미	러시아· 중동	일본	캐나다	유럽	중국	호주	아프 리카	계
2004년	13	13	3	10	2	11	8	2	—	62
2005년	10	25	3	25	1	18	8	—	1	91

※ 자료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문예연감』

- 또한 국제적인 콩쿨에 입상하여 세계적인 예술가로 발돋움한 예가 많은데, 특히 1980년 대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스위스 로잔 국제발레 콩쿨에서 동양인 최초로 1위 입상을 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을 예로 들 수 있음.
- 또한 최근에는 배우윤, 김지영, 박용걸, 김세연 등 많은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들이 세계무대에 진출해 한국발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사례를 빈번히 볼 수 있음.

3 정책 환경

가. 대한민국예술원의 법률적 위상

- 문화부문 관련 법령은 크게 <민족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법제>와 <문화산업 및 문화미디어 관련 법제>의 두 가지로 구분<sup>11)</sup>될 수 있음.
-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화부문 법제 체계에서 <민족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법제> 중 <민족문화,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시설에 관한 법률> 중 하나에 해당됨.
  - 대한민국예술원의 법률적 위상을 문화부문 법령의 체계 안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1) 문화관광부, 『2007문화정책백서』의 분류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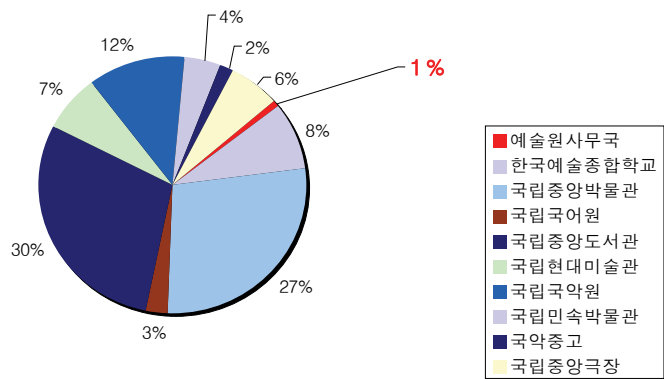


[그림 8] 대한민국예술원의 법률적 위상

## 나. 대한민국예술원의 정책적 위상

-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해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부기구는 아니며, 회원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님.
- 예술원 사무국은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10개 국립문화예술기관 중 하나임.
- 국립문화예술기관별 예산 규모(2007년)
  - 예술원 사무국의 예산은 전체 국립문화예술기관에 지원되는 3,844억원 중 1%에 해당

하는 27억원임.



〈표 27〉 국립문화예술기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	증감
예술원사무국	24	27	3
한국예술종합학교	657	323	△334
국립중앙박물관	1,057	1,044	△13
국립국어원	109	114	5
국립중앙도서관	784	1,130	346
국립현대미술관	270	275	5
국립국악원	339	461	122
국립민속박물관	162	171	9
국악중고	59	61	2
국립중앙극장	216	238	22
합계	3,677	3,844	167

## 제2절

### 예술원 내부 여건 분석

#### 1) 예술원 미션

##### 1) 예술원의 미션은 법령상의 설립목적 및 설립선언문으로부터 정의할 수 있음

- 예술원은 1952년 8월 7일에 공포·시행된 『문화보호법』에 근거하여 1954년 7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1988년 12월 31일 『대한민국예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가짐.

##### 2) 문화보호법

- 1954년 예술원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문화보호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인의 지위 향상,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공포·시행된 법률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일정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
- 「문화보호법」의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학술원과 예술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원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예술작품의 제작과 연구 조성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법 제16조에서 ‘예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하여 예술원을 설치한다’고 예술원의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음.

### 3) 대한민국예술원법

- 현재 예술원의 설립근거법인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르면, 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이를 위해 예술원은 ①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②예술창작활동의 지원, ③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④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⑤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4) 설립선언문상의 미션

- 1954년 7월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예술원회원들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예술원의 지향점을 제시하였음.
- 예술원은 선언문을 통하여 예술원의 임무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우호·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 또한 예술원의 기본노선이 ‘민족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 세계예술의 정수를 흡수하여 민족예술의 정통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모든 예술가들과 협력·공조할 것’을 공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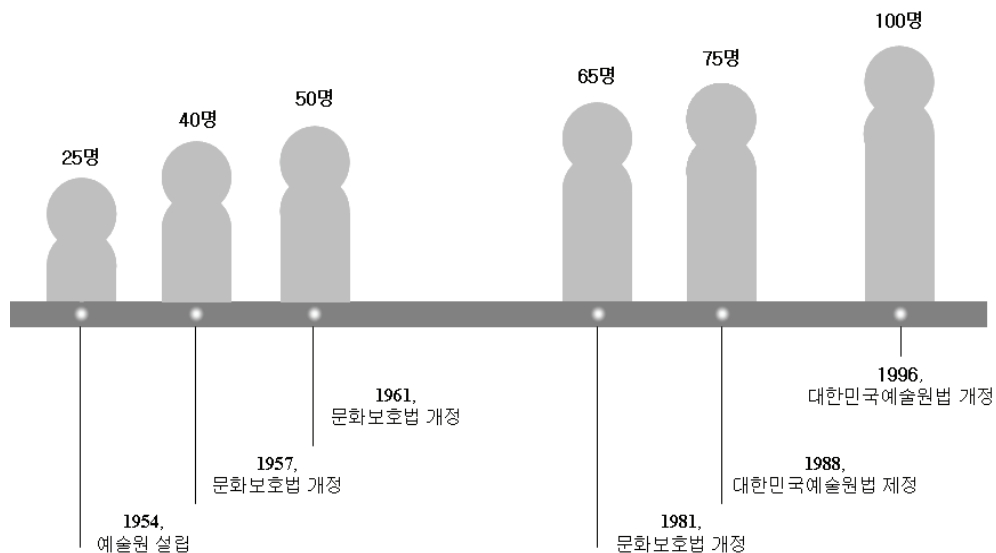
#### 〈선언문 전문〉

-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공포된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발족됨을 선언합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창설되는 예술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우호·발전시킬 의무와 법률에 의해서 명시된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이라는 명예를 부여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의무와 명예를 깊이 자각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는 바입니다.
- 우리는 우리의 고전적인 민족예술의 전통을 정확히 계승하고 현대 세계예술의 정수를 정당히 흡수하여 우리의 민족예술의 정통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노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예술의 자율성이 엄격히 보장되고 예술가의 국가적인 처우가 한층 더 개선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이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 우리는 위대한 국가의 초석은 위대한 예술의 창조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이 예술로 인해서 제거되고 우리 민족의 행복이 예술로 인해서 조성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예술을 통하여 영혼과 이념과 영광을 창조하는 위대한 과업에 국내외의 모든 예술가들과 협력·공조할 것을 이에 공약·선언하는 바입니다.

## 2 예술원 회원제도

### 가. 정원 및 현원

#### 1)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원 및 현원 변화



[그림 9]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원의 변화

- 예술원 회원의 정원은 예술원 설립 당시 25명이었으나, 법률 제·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 현재 문학분과 28명, 미술분과 25명, 음악분과 22명, 연극·영화·무용분과 25명으로 총 100명임.
- 이 중에서 연극·영화·무용 분과의 경우, 회원정원이 각 부문별로 11명, 7명, 7명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예술원회원선출규정」 개정(2007.12.17)을 통해 정원을 25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예술원회원의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1980년대 이후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한 정원 증원<sup>12)</sup>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수는 크게 늘지 않아 지속적으로 20여 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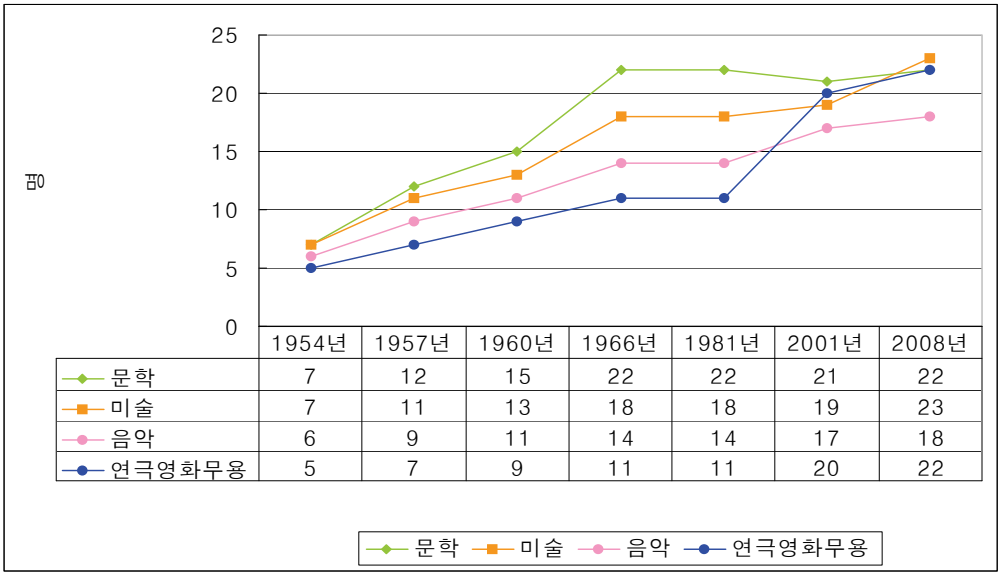
12) 1988년 개정 : 정원 65명→75명, 1996년 개정 : 정원 75명→100명

〈표 28〉 연도별 정원 및 현원의 변화

구분	정원	현원	분과별 현원(명)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1954	25	25	7	7	6	5
1957	40	39	12	11	9	7
1960	50	48	15	13	11	9
1966	50	50	22	18	14	11
1981	65	65	22	18	14	11
1988	75	48	18	10	12	8
1996	100	70	22	20	16	12
2001	100	77	21	19	17	20
2002	100	74	21	19	13	21
2003	100	75	18	21	15	21
2004	100	78	18	23	16	21
2005	100	76	17	21	16	22
2006	100	79	19	21	17	22
2007	100	78	20	21	16	21
2008.9	100	85	22	23	18	22

2) 분과별 회원 수의 변화

● 분과별 회원 수는 정원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



[그림 10] 분과별 회원 수의 변화

나. 회원의 구성

1)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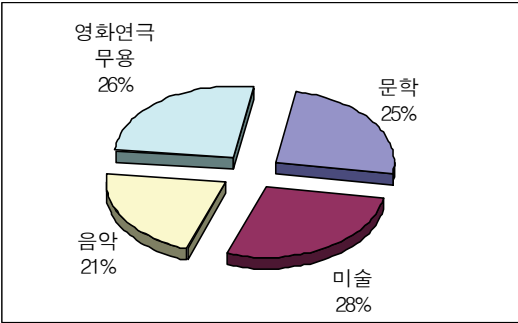
연령 \ 분과	60~69	70~79	80~89	90이상	계	평균연령
문 학	2	11	7	1	21	77.6
미 술	1	10	12	—	23	79.5
음 악	4	7	4	3	18	79.1
연극·영화·무용	3	8	10	1	22	77.5
계	10	36	33	5	84	78.4

2) 성 별

구 분	계	남		여	
			(%)		(%)
계	84	61	(72.6%)	23	(27.4%)
문 학	21	17	(80.9%)	4	(19.1%)
미 술	23	19	(82.6%)	4	(17.4%)
음 악	18	13	(72.2%)	5	(27.8%)
연극·영화·무용	22	12	(54.5%)	10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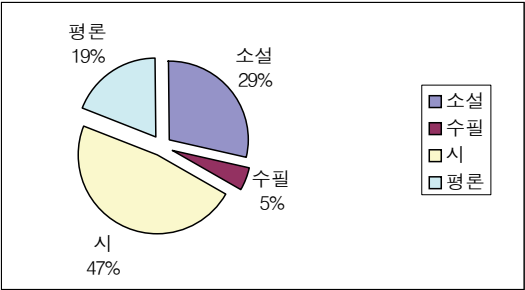
3) 전공별

- 예술원 회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정원 100명으로 구성되며, 전공분야별로 각 한 개의 분과에 소속되어 있음.
- 2008년 10월 현재 분과별 현원은 문학 21명(25%), 미술 23명(28%), 음악 18명(21%), 연극·영화·무용 22명(26%)으로 총 84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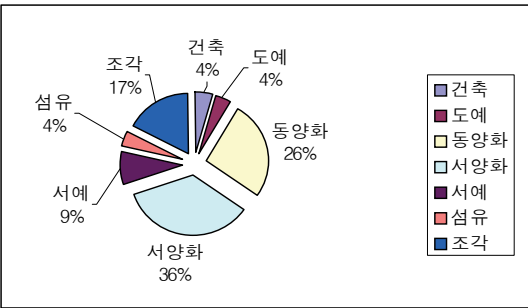
① 문학 분과 : 21명

- 문학분과는 총 21명이며, 전공별로는 시 부문이 10명(45%)으로 가장 많고, 소설이 6명(32%), 평론이 4명(18%), 수필이 1명(5%)임.



② 미술 분과 : 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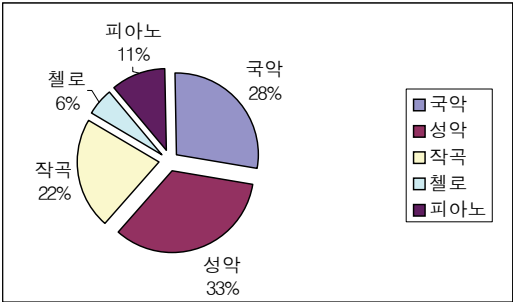
- 미술분과는 총 23명이며, 서양화 8명(36%), 동양화 6명(28%), 조각 4명(17%), 서예 2명(9%), 건축 1명(4%), 도예 1명(4%), 섬유 1명(4%)로 구성됨.
- 1994년에 건축부문의 회원(이광노 건축가)이 처음 선출되었으나, 사진 및 비디오아트 등의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회원이 선출된 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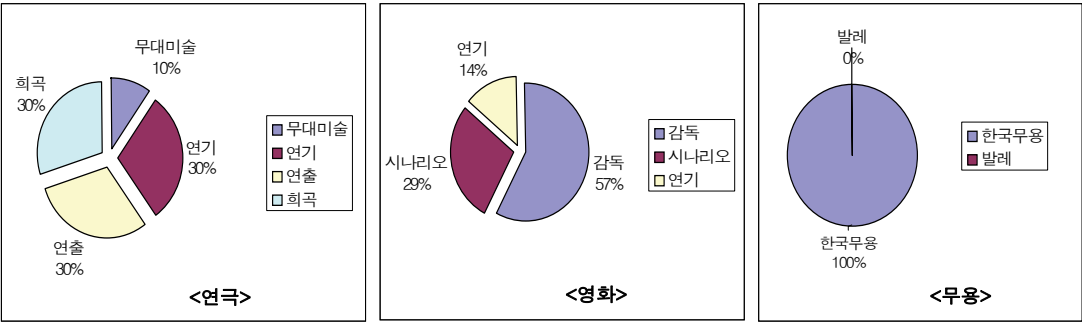
③ 음악 분과 : 18명

- 음악분과는 18명 중에 성악이 6명(33%), 국악 5명(28%), 작곡 4명(22%), 피아노 2명(11%), 첼로 1명(6%)임





④ 연극·영화·무용 분과 : 22명



● 연극 부문의 경우, 현 회원 10명 중 연출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연기와 연극, 희곡 전공이 각각 2명, 무대미술 전공이 1명임.

구분	연출	희곡	연기	무대미술	합계
작고회원	3	5	2	1	11
현 회원	3	3	3	1	10
합계	6	8	5	2	21

● 영화 부문은 총 7명 중, 감독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시나리오와 연기 전공이 각각 2명과 1명임. 회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2006년에 처음으로 영화배우 출신의 회원 선출.

구분	감독	시나리오	연기	합계
작고회원	5	3	—	8
현 회원	4	2	1	7
합계	9	5	1	15

● 무용의 경우, 2002년에 발레 전공인 임성남 회원이 작고하여 현재는 5명이 모두 한국무용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음.

## 다. 회원의 임기

### 1) 회원의 임기

- 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의 재신임을 통해 연임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원 개원 이래 법률 변천과정 속에서 기존회원이 종신회원으로 전환되거나, 연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종신제처럼 운영되고 있음.
  - 예술원 개원 이래 회원의 평균 재임기간은 15.8년임.
    - 작고회원의 평균 재임기간 : 17.3년
    - 현회원의 평균 재임기간 : 13.4년
- 회원의 연임 : 임기만료 회원의 경우, 해당 분과위원장의 일괄추천과 총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 연임됨.

### 2) 회원의 구분 및 임기 변천

- 현재의 회원 구분 및 임기는 1988년 개정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단일회원제, 임기 4년).
- 그러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해 추대된 기존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종신으로 하였음.
  - 2008년 현재 이 부칙에 따른 정원 외의 회원은 3명임(이해구, 김성태, 이원경).
  - 관련 조항(대한민국예술원법 부칙 <제4046호, 1988.12.31>)
 

“(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 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표 29〉 회원구분 및 임기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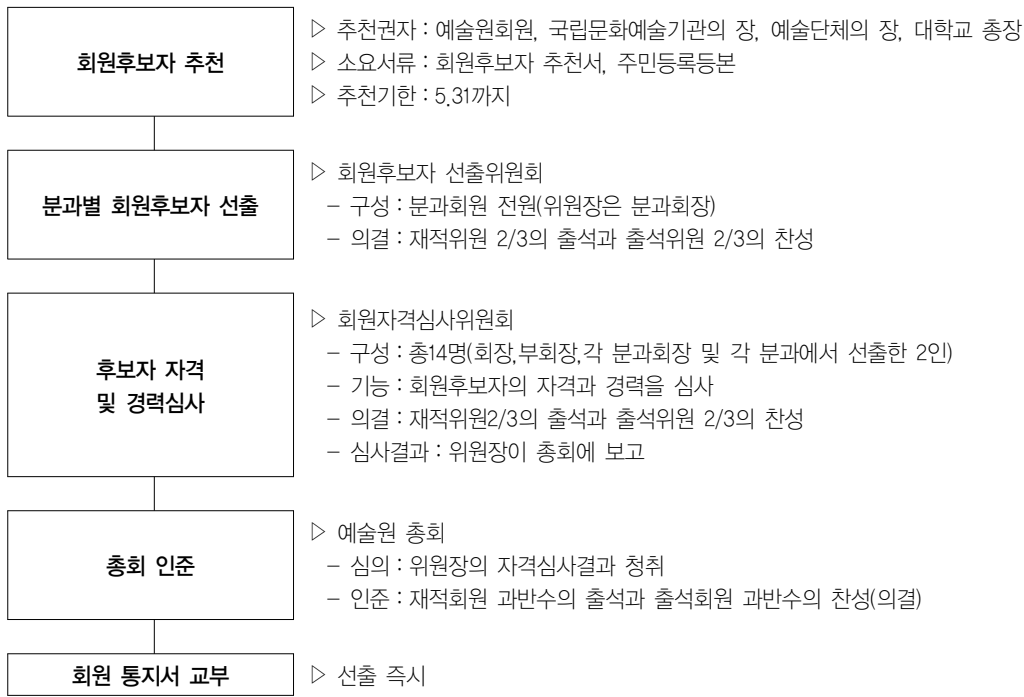
법률 근거	회원구분	임기	임명방법	정원	비고
문화보호법 제정 1952.8.7 (법률 제248호)	선거회원	3년	등록예술인 선거	25명	
	추천회원	6년	총회 추천	10명	
	임명회원	종신	원제청→대통령 임명	5명	
문화보호법 개정 1960.2.4 (법률 제546호)	추천회원	6년	위와 같음	50명	선거회원 폐지
	임명회원	종신	위와 같음		
문화보호법 개정 1981.4.13 (법률 제345호)	원로회원	종신	대통령 승인을 얻어 장관이 추대	15명	71세 이상
	정 회 원	4년	총회추천 → 장관제청 → 대통령 임명	50명	정년 : 70세
	준 회 원	4년	총회추천→회장임명	150명	50세 이하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1988.12.31 (법률 제4045호)	회 원	종신	기존의 원로회원(정원외)	(12명)	정년제 폐지 회원 단일화
		4년 (연임가능)	총회인준	75명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1996.12.30 (법률 제5209호)	회 원	4년 (연임가능)	위와 같음	100명	

- 선거회원/추천회원/임명회원
  - 선거회원 : 예술인에 의해 선출된 자
  - 추천회원 : 예술원의 회원에 의하여 추천된 자
  - 임명회원 : 예술원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
- 원로회원/정회원/준회원
  - 원로회원 : 명예직. 예술원총회 또는 정회원의 자문에 응함
  - 정회원 : 총회, 부회, 분과회의 구성원으로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활동
  - 준회원 : 전공별 분과회에만 참여(※실제로는 한번도 운영되지 않고 폐지됨)

라. 회원 선출 제도

- 근거
  -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 예술원회원선출규정(예술원규정 제71호)

● 회원 선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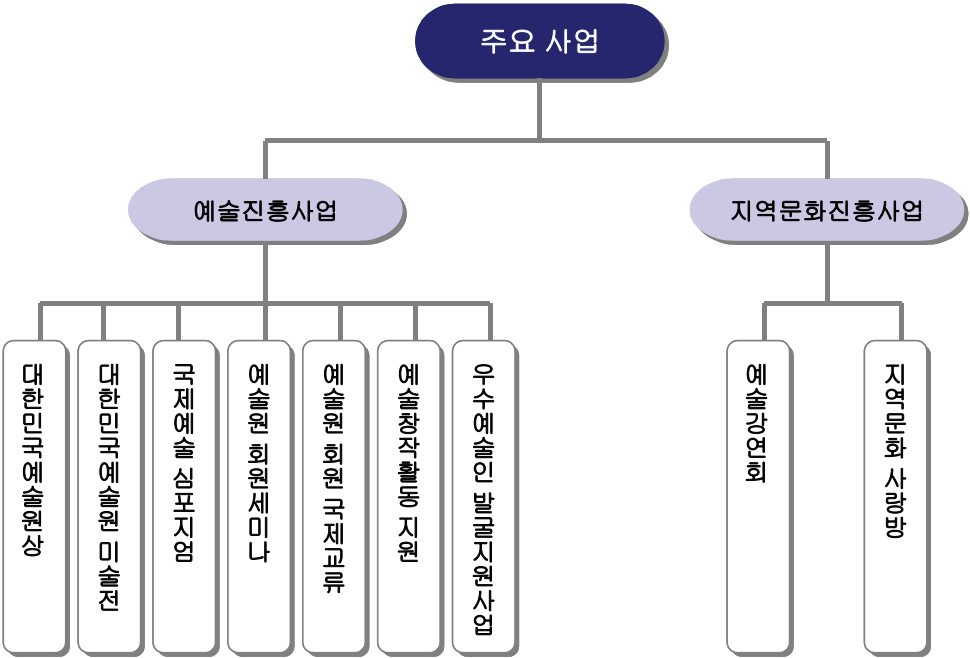
● 선출제도 변천과정

- 문화보호법이 제정된 1952년에는 선거(3년), 회원추천(6년), 예술원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종신)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
- 1960년 선거방식을 폐지하고 회원추천과 임명 방식의 두 가지를 혼합하여 운영.
- 1981년 회원추천 방식으로 운영하되, 회원은 원로회원(71세 이상 : 종신), 정회원(70세 이하 : 4년), 준회원(50세 이하 : 4년) 으로 구분하였음.
- ※ 1988년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시까지, ‘준회원’제는 운영되지 않음.
- 1988년 대한민국예술원법이 제정되면서 회원선출은 그대로 회원추천방식으로 운영 하되, 실질적으로 한번도 운영되지 않았던 ‘준회원’은 폐지하고, 원로회원은 정원에 서 제외하도록 함.

### 3 예술원 사업

#### 가. 주요사업

- 예술원의 사업은 크게 예술진흥사업과 지역문화진흥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매년 예술총집 등의 발간물을 발행하고 있음.



[그림 11] 예술원 주요 사업

- 2008년도 사업 목표
  - 국가 대표예술가 예우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원의 새로운 정책비전 제시
  - 회원의 예술 활동지원을 통한 예술창작기반 지속 확충
  - 회원과의 만남 등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확대
  - 예술인의 예술세계의 후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회원자료 관리

나. 사업예산

-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기구로서, 예술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정부예산에 계상·집행됨.
- 예술원의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데, 연도별 예산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870,471	2,053,733	2,163,612	2,461,107	2,354,494	2,378,403	2,654,044	2,804,706
인건비 및 기본경비	559,117	647,434	652,622	700,030	711,844	740,800	787,039	790,992
사업비	1,311,354	1,406,299	1,510,990	1,761,177	1,642,650	1,637,603	1,867,005	2,013,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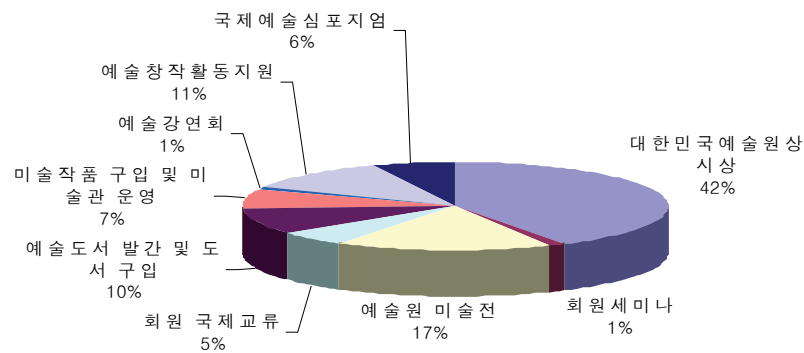
- 이 중에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예술원의 2008년도 사업예산은 전체 예술원 예산(28억 5백만원) 중 20억 1천 4백만원임.
  - 사업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회원 정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14억 7천 6백만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73.29%에 해당함.
  - 회원수당 및 기타 수시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 예술원 주요사업(아래 표의 음영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억 4천 8백만원임.

〈표 30〉 예술원 사업예산 현황 (2008년도 세출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회원 정액수당 지급	1,476 (73.29%)
각종 회의수당 등	63 (3.13%)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7.19,77%)
회원세미나	5 (0.25%)
회원선출	16 (0.79%)
예술원 미술전	57 (2.83%)
회원 국제교류	18 (0.89%)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1.69%)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1.24%)
예술강연회	3 (0.15%)
예술창작활동지원	40 (1.9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1.09%)
기타 사업(홈페이지 보수 등)	111 (5.51%)
합 계	2,014 (100%)

● 회원수당 등을 제외한 예술원의 주요사업별 예산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12] 예술원 주요사업의 사업비 현황

● [참고] 2008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안 (B)	증 감 (B-A)	%
내 외 폐	총 계	2,654	2,805	151	5.7
	1. 인건비	655	661	6	0.9
	2. 기본경비	132	130	△2	△1.5
	3. 주요사업(예술원 운영)	1,867	2,014	147	7.9
	○회원 정액수당 지급	1,440	1,476	36	2.5
	○각종 회의수당 등	40	63	23	57.5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33	144	11	8.3
	○회원세미나	4	5	1	25.0
	○회원선출	9	16	7	77.8
	○예술원 미술전	65	57	△8	△12.3
	○회원 국제교류	18	18	-	-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57	34	△23	△40.4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1	25	4	19.0
	○예술강연회	8	3	△5	△62.5
	○예술창작활동지원	20	40	20	100.0
	○국제예술심포지엄	22	22	-	-
	○홈페이지 방화벽 교체	30	-	△30	순감
	○홈페이지 개선	-	12	12	순증
	○정책자문회의 개최	-	29	29	순증
	○예술원미술관 운영활성화	-	20	20	순증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발전전략 연구	-	50	50	순증

다. 주요사업 운영 현황

□ 대한민국예술원상

1) 사업비 현황(2008년 세출예산 기준)

-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사업비는 총 3억 4천 8백만원의 사업비 중 1억 4천 4백만원을 차지하며 비율로는 약 41%임.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 41.38%)
회원세미나	5 ( 1.44%)
예술원 미술전	57 ( 16.38%)
회원 국제교류	18 ( 5.17%)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 9.77%)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 7.18%)
예술강연회	3 ( 0.86%)
예술창작활동지원	40 ( 11.4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 6.32%)
합 계	348 ( 100%)

2)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사업목적
  - 예술에 관한 우수한 연구, 작품제작 또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시상하여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관련규정
  -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규정』
- 시상 절차
  - 매년 2~3월에 시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3~4월에는 회원, 예술단체장, 예술 관련 학계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음.
  - 매년 5~6월 예술원상 부문별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추천된 후보자를 정하고, 7월초에 예술원상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기총회가 열림.



〈표 31〉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절차

단위업무	처 리 과 정	비고
1. 시상요강 수립 (매년 2~3월)	○ 시상부문 및 인원, 수상자격요건, 시상내용, 추천자격, 심사위원 구성 추진일정 등 수립	
2. 후보자 추천 (매년 3월~4월)	○ 일간지 공고 ○ 추천요청 공문발송 - 전화원 - 예술관련학과 개설대학교(155) - 예술원회장이 지정하는 예술단체장(21)	
3. 심사위원회 개최 (매년 5~6월)	○ 예술원상 부문별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수(각부문별로 15인 이내) - 회원이 후보자인 부문은 외부심사위원 포함 - 재적 2/3 출석과 출석 2/3찬성으로 의결 - 4차까지 표결가능(득표자 없을 경우)	규정 제7조
	○ 예술원상 종합심사위원회 개최(14명) - 예술원회원으로 구성(임원, 각분과 2명) - 재적 2/3 출석과 출석 2/3찬성으로 의결 - 4차까지 표결가능(득표자 없을 경우)	규정 제11조
4. 총회의결 (매년 7월초)	○ 정기총회(예술원상 수상자 결정)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5. 예술원상 시상식 (매년 9월 5일)	○ 예술원상 시상 - 상장, 휘장, 상금 3천만원	규정 제12조

● 수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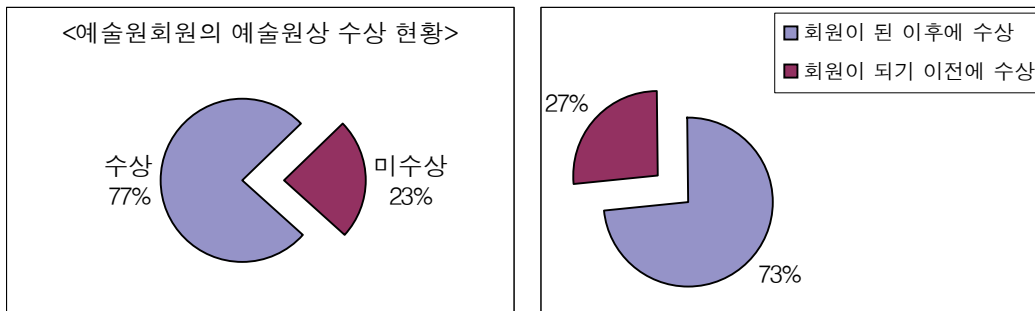
- 제1회(1955년)부터 제52회(2007년)까지 총 181명이 수상하였으며, 분야별수상자는 문학 50명, 미술 50명, 음악 41명, 연극·영화·무용 40명임.
- 예술원회원의 예술원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규정」의 개정(2007.12.17) 이전인 2007년까지의 수상자 구성을 보면, 전체 181명의 수상자 중에서 예술원 회원이 131명으로 72.4%를 차지함.

〈표 32〉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 현황(1995~2007)

구분	회 원	비회원	계	비 고
문 학	42	8(4)	50	
미 술	41	9(4)	50	
음 악	20	21(10)	41	
연극·영화·무용	28	12(5)	40	
계	131	50(23)	181	회원비율 : 72.4%

※ ( )는 수상 이후 회원이 된 인원수

- 예술원 회원의 예술원상 수상 현황을 보면, 전체 회원의 77%가 예술원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중에서 73%는 회원이 된 이후에 수상하였음.



[그림 13] 예술원 회원의 예술원상 수상 현황

● 예술원상 시상규정의 개정

- 예술원회원은 예술원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규정 개정(『대한민국 예술원상시상규정』(2007.12.17 개정))

### 3) 평가

- 대한민국예술원상은 사업비 면에서 볼 때, 예술원 주요사업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임.
- 또한 최근에는 예술원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권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술원 회원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규정」을 개정(2007.12.17)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예술원상을 보다 널리 홍보함으로써 일반인 및 현장예술인의 경쟁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원상의 인지도 및 권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예술원회원 세미나

#### 1) 사업비 현황(2008년 세출예산 기준)

- 회원 세미나 사업비는 총 3억 4천 8백만원의 사업비 중 약 1%인 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 41.38%)
회원세미나	5 ( 1.44%)
예술원 미술전	57 ( 16.38%)
회원 국제교류	18 ( 5.17%)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 9.77%)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 7.18%)
예술강연회	3 ( 0.86%)
예술창작활동지원	40 ( 11.4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 6.32%)
합 계	348 ( 100%)

2)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사업목적

- 국내 문화예술계의 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우리 문화예술계의 현안 해결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1968년부터 매년 개최

● 사업내용

- 사업주기 및 개최시기 : 매년 1회 개최(5월)
- 발표주제 및 인원 : 분과별 현안 및 주요정책, 2명
- 최근 10년간 회원세미나 개최현황

개최년월일	연 사		주 제
	분과	성명	
1997. 5.22	문학 영화	김종길 김수용	- 멋이란 무엇인가 - 한·일 합작영화 연구
1998. 5.22	문학 연극	김춘수 이원경	- 한국 현대시의 전개양상 - 한국과 일본의 한문권 언어 및 텔레비전 방송 화술의 문제점들
1999. 5.21	음악	이성천	- 경모궁 제례악의 형성
2000. 5.17	문학	이호철	- 한살림 통일론
2001. 4.26	영화	신봉승	- 사극영화의 고증을 위한 단서고
2002. 5.17	문학 영화	유종호 김수용	- 시인 백석의 해방 후 문학 도정 - 서울에 온 일본영화
2003. 5.23	미술 영화	이신자 신봉승	- Tapestry의 형성과 오늘의 현황 - 윤고산 그리고 선비들의 이야기

개최년월일	연 사		주 제
	분과	성명	
2004. 5.21 ~ 5.22	문학 음악	김윤식 이인영	- 청량산인의 민족문학론에 대하여 - 한·일 관계사에서 비추어 본 봉선화와 한국가곡
2005.05.13	미술 연극	민경갑 차범석	- 한국화의 현대성과 위기 - 내 문학의 뿌리는 고향에 대한 기억들이다.
2006.05.25	문학 미술	유종호 이재숙	- 무라카미(村上) 현상에 대하여 - 가야금 음악의 변천과 앞으로의 과제
2007.05.10	미술 영화	최종태 신봉승	- 조형예술에 있어서의 그 의미의 문제점에 관하여

3) 평가

- 각기 다른 분과 회원들간의 세미나를 통해 장르간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이나 문화예술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원회원 세미나를 통해 한국문화예술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미나 결과에 대한 발표와 활용이 요구됨.

□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1) 사업비 현황(2008년 세출예산 기준)

- 예술원 미술전 사업비는 총 3억 4천 8백만원의 사업비 중 5천 7백만원을 차지하며, 비율로는 약 16%임.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 41.38%)
회원세미나	5 ( 1.44%)
예술원 미술전	57 ( 16.38%)
회원 국제교류	18 ( 5.17%)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 9.77%)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 7.18%)
예술강연회	3 ( 0.86%)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예술창작활동지원	40 ( 11.4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 6.32%)
합 계	348 ( 100%)

2)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예술원 미술전은 우리 현대 미술계의 1세대이며, 한국 현대미술의 정통성을 이어온 국내 원로작가들인 회원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시회임.
- 예술원 회원들의 최근작을 전시하여 한국미술의 현주소와 발전사를 연구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197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예술원 미술관에서 개최됨.
- 1991년부터 매년 10월~11월 중에 각 시·도 순회전을 개최하여 지방 관람객들의 관람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기획전도 개최하고 있음.

3) 평가

-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은 사업비 규모로도 예술원 사업 중 비교적 비중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임.
- 또한 일반인 및 현장예술인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원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등의 활용 여건은 미흡한 편임. 일례로 현재는 전시기획부터 도록작업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해당 회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등 제반 여건의 개선이 요구됨.

□ 예술원회원 국제교류

1) 사업비 현황(2008년 세출예산 기준)

- 회원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비는 총 3억 4천 8백만원의 사업비 중 약 5%인 1천 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 41.38%)
회원세미나	5 ( 1.44%)
예술원 미술전	57 ( 16.38%)
회원 국제교류	18 ( 5.17%)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 9.77%)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 7.18%)
예술강연회	3 ( 0.86%)
예술창작활동지원	40 ( 11.4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 6.32%)
합 계	348 ( 100%)

2)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국제예술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을 통하여 국제예술계의 동향파악과 한국예술의 소개 등,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코자 매년 추진되고 있음.
- 매년 2명 내외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체류기간은 1인당 2주 이내임.

3) 평가

- 국제교류 사업이 사업 목표에 적합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류결과 보고서가 필수적이거나 예술원 회원의 성격을 감안하여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교류 결과보고서를 접수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예술원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해외 예술원과의 정기적인 교류,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특히 관련 전문인력이 교류 프로그램 참여회원들을 도와 실질적인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음.

□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1) 사업비 현황(2008년 세출예산 기준)

-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비는 총 3억 4천 8백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약 10%인 3천 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 41.38%)
회원세미나	5 ( 1.44%)
예술원 미술전	57 ( 16.38%)
회원 국제교류	18 ( 5.17%)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 9.77%)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 7.18%)
예술강연회	3 ( 0.86%)
예술창작활동지원	40 ( 11.4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 6.32%)
합 계	(100%)

2)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예술원 개원(1954년) 이래 발간되고 있는 예술전반에 걸친 연구논문, 예술발전사, 공로 예술인의 업적 등 관련자료를 집대성하여 보존·보급.
- 주요 발간물
  - 예술논문집 : 예술원회원과 문화예술계 학자들의 최신 연구논문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분야별로 수록한 논문집으로, 1962년 제1집 발간 이래 매년 발간되어 현재까지 총 43집이 발간되었음.
  - 예술원보 : 회원의 작품과 창작활동 및 연간 주요사업 실적을 수록하고 있으며, 1955년 제1호가 발간된 이래 2007년 현재까지 매년 발간되고 있음(총 48호 발간).
  - 한국예술총집 : 부문별 예술발전사 및 원로 예술인의 업적, 대표작품에 대한 연구논문을 수록한 예술총서로서, 1986년부터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1개 부분씩 시리즈로 발간.

〈표 33〉 예술도서 발간 현황

도 서 명	발간 년도	권 수	내 용	비고
한국예술지	1966~ 1992	1~27	매년도 예술활동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예술 분야별로 자료를 정리 한 연구지	
예술논문집	1962~ 2007	1~46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최신 연구논문집으로 매년 발간, 원내외 저명 예술가가 집필	년간
예술원보	1955~ 2007	1~51	예술원 회원의 글, 활동 등 동정과 연도별 주요사업 수록	년간
예술개관(영문판)	1970~ 1974	I~V	전통예술문화의 해외소개를 위해 예술분야별로 대표적인 예술가가 집필·영역	
한국예술사 총서	1984~ 1985	I~IV	문학, 미술, 음악 및 연극,영화,무용분야 예술사를 집대성하여 정리	
한국예술사전	1985	I~IV	한국예술 관련 인명, 작품, 용어 등 전반에 걸쳐 총망라하여 해설, 문학, 미술, 음악 및 연극,영화,무용분야로 구분	
한국예술총집	1986~ 2007		근·현대 한국미술의 대표작가 55인의 작품을 수록한 도록	년간
예술원 40년사	1994		예술원 40년의 개관, 예술원이 걸어온 길, 예술원의 주요사업 정책 건의 등을 수록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The Republic of Korea	1996		예술원의 기능, 설치목적, 연혁 예술원회원 등 예술원 소개책자(영 문판)	
예술원 50년사	2004	I, II	예술원과 예술원 회원의 50년사를 기록 정리	

3) 평가

- 현재 예술원에서는 매년 예술논문집과 예술원보 등의 예술도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발간  
부수 및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규모가 매우 작은 실정임.
- 또한 발간도서의 배부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실제 예술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예술원의 주요 발간물의 집필자 등 참여자를 확대하고, 배부처 확대 등을 통해 문화  
예술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



□ 예술원 소장작품 수집 및 관리

1) 사업비 현황(2008년 세출예산 기준)

- 예술원 소장작품 수집 및 관리비는 총 3억 4천 8백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약 7%인 2천 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 41.38%)
회원세미나	5 ( 1.44%)
예술원 미술전	57 ( 16.38%)
회원 국제교류	18 ( 5.17%)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 9.77%)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 7.18%)
예술강연회	3 ( 0.86%)
예술창작활동지원	40 ( 11.4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 6.32%)
합 계	348 ( 100%)

2)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예술원회원(미술분과)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회원들의 미술작품을 보존하여 미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회원들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받고 있음.
- 작품의 수집
  - 기증 : 관례적으로 회원선출시와 예술원상 수상시 1점씩 작품을 기증받고 있음.
  - 구입 : 매년 1점씩 회원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가격은 2007년까지는 1천만원, 2008년부터 2천만원으로 인상하였음.
  - 연도별 작품 수집 현황 : 총 89점(구입작품 57점, 기증작품 32점)

구분	계	74	75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89	5	1	9	9	8	10	4	8	3	7	2	3	1	3	3	4	1	3	4	1
구입	57	5	1	7	7	7	7	4	4	3	3	1	1	1	1	1	1	1	1	1	-
기증	32	-	-	2	2	1	3	-	4	-	4	1	2	-	2	2	3	-	2	3	1

● 예술원 소장작품 현황

– 총 89점(회원 작품 86점, 비회원 작품 3점)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	건축
23	35	13	9	6	3

※ 비회원 작품 3점 : 안규동(서예), 김흥수(서양화), 윤중식(서양화)

● 소장작품의 활용 현황

- 예술원 작고회원 미술전, 소장작품 상설전 및 기획전, 지방순회전 등 실시
- 매년 2~3점 정도의 작품을 대여하고 있음.
  - \* 2007년 대여 : 총 3점(이준 회원 작품 2점 / 손동진 회원 작품 1점)

● 수장고

- 수장고는 예술원 미술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평 정도임.
- 현재 수납공간 부족으로 작품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3) 평가

- 소장작품 수집 및 관리 사업을 통해 예술원 미술전이나 지방순회전, 작품대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소장품 수집의 범위가 미술분과 회원의 작품 및 미술작품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타분과 회원의 작품 및 유고회원의 소장품 등 그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풍부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회원의 작품 : 미술작품 외에도 회원의 자필 원고, 자필악보, 공연 의상, 악기 등
  - 기타 회원관련 자료 : 회원에 관한 각종 기록물 및 기사 등
  - 유고회원 소장품 등
- 작품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보관되고 전시될 수 있도록 개선된 수장고와 전시실이 필요하며, 수집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활용이 요구됨.

□ 예술강연회

1) 사업비 현황(2008년 세출예산 기준)

- 예술강연회 사업비는 총 3억 4천 8백만원의 사업비 중 사업 분류상 가장 적은 3백만원이며 비율은 약 1%임.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 41.38%)
회원세미나	5 ( 1.44%)
예술원 미술전	57 ( 16.38%)
회원 국제교류	18 ( 5.17%)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 9.77%)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 7.18%)
예술강연회	3 ( 0.86%)
예술창작활동지원	40 ( 11.4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 6.32%)
합 계	348 ( 100%)

2)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예술원 회원들의 강연을 통해 지역주민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매년 개최.
- 매년 3~11월 중에 지역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
-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총 146회의 예술강연회를 개최하였음.

〈표 34〉 최근 5년간 예술강연회 개최실적

개최년월일	연 사		주 제	장 소
	분과	성명		
2004. 8.20	영화	임권택	한국 영화가 나아갈 길	장성문화원
2004. 10.1	연극	차범석	한국 연극사 다시 써야 한다	강릉문화원
2004.10.9	문학	이호철	오늘의 남북 관계와 문화	새마을문고 파주시지부
2004.10.14	문학	이호철	오늘의 남북 관계와 문화	마산문화원

개최년월일	연 사		주 제	장 소
	분과	성명		
2005. 9.30	문학	김남조	문학의 소명	제주문화원
2005.10.6	연극	차범석	문화는 꽃이 아니라 뿌리다	서산문화원
2005.10.14	문학	신경림	시를 읽는 재미	양주문화예술회관
2005.10.28	문학	김윤식	시와 소설의 거리재기	마산문화원
2006. 4.29	문학	이청준	나의 소설의 길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
2006. 6. 8	문학	김남조	위안과 치유의 문학	구례 농협지부
2006. 6.30	음악	황병기	한국음악의 멋	천안문화원
2006. 7. 1	문학	신경림	문학의 소설	거창문화원
2006.10.12	문학	이어령	김소월의 시 읽기	영동난계국악당
2006.10.18	영화	신봉승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마산올림픽 기념생활관
2007. 4.20	영화	신봉승	청년 세종의 리더십	영동 난계국악당
2007. 7.24	영화	임권택	나의 영화이야기	군포문화원
2007. 8.18	문학	김윤식	김유정의 「두꺼비」에 대하여	국립춘천박물관
2007. 9. 8	음악	황병기	한국음악의 멋	국립공주박물관
2007. 9.29	미술	오승우	바로크 미술의 거장들	울진문화원
2007.10.20	영화	김수용	영화의 예술성과 상업성	국립경주박물관
2007.10.24	영화	신봉승	역사를 아우라서 미래를 밝힌다	대천문화원
2007.10.31	문학	이어령	문화와 디지로그 전략	수성문화원
2008. 3.28	영화	신봉승	청년 세종의 리더십	동대문문화원
2008. 4.18	영화	김수용	영화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예총익산지부
2008. 5.21	문학	이어령	디지로그 문화	대천문화원
2008. 6. 5	문학	신경림	문학의 의의	강원도 예총

3) 평가

- 예술 강연회 사업은 가장 적은 예산 비중에 비해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집중의 문화적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 일반인 및 지역예술인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지식과 경험의 전승을 통한 예술원의 사회공헌 사업으로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소외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주관처 수요조사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술창작활동 지원

1) 사업비 현황(2008년 세출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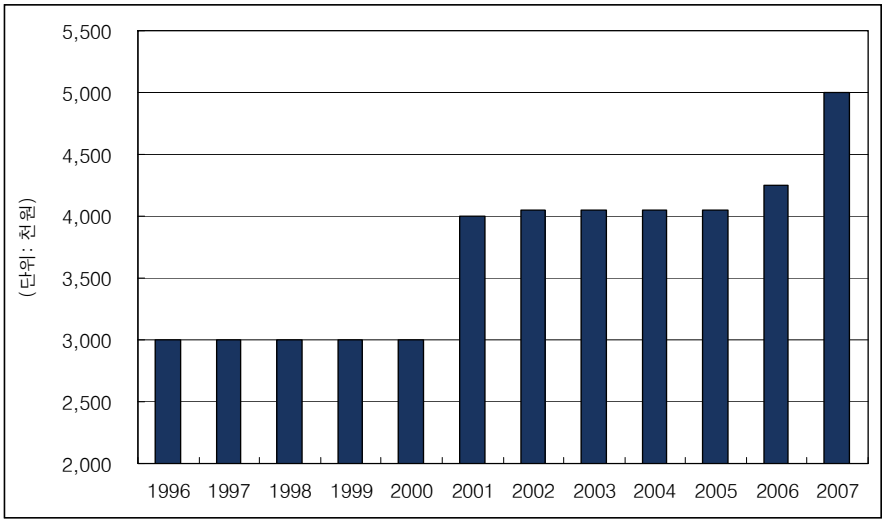
- 예술창작 활동지원 사업비는 총 3억 4천 8백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4천만원을 차지하며 비율은 약 11%임.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 41.38%)
회원세미나	5 ( 1.44%)
예술원 미술전	57 ( 16.38%)
회원 국제교류	18 ( 5.17%)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 9.77%)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 7.18%)
예술강연회	3 ( 0.86%)
예술창작활동지원	40 ( 11.4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 6.32%)
합 계	348 ( 100%)

2)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
- 원로예술인들의 선도적 창작활동을 통한 관련분야 연구를 촉진하고 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분과별로 2명의 회원을 선정하여 각 5백만원씩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내용 : 문예창작, 연구발표, 전시 및 공연 등 회원의 예술창작활동.
  - 지원절차 : 예술원은 지원자로부터 창작활동계획서를 접수받고,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해 지원금 일부분을 교부함. 이후 지원대상자는 창작활동 시기 중에 중간보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창작지원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는 결과보고서 접수와 정산의 과정을 거쳐 나머지 지원금을 교부받음.
  - 1인당 창작 지원금 : 1인당 창작활동지원금은 2000년까지 300만원, 2006년에는 430만원이었으며, 2007년에 인상되어 현재는 500만원임.



[그림 14] 1인당 예술창작활동 지원금

3) 평가

● 지원 대상

- 예술원법 12조에 따르면,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하여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예술계 원로인 회원들의 연구논문 발표, 공연 및 전시, 작품제작 등 예술창작활동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 즉 예술창작활동 지원의 대상을 예술원회원으로 한정하여 예술원회원 예우의 성격으로만 운영하고 있음.
- 법의 취지에 맞는 창작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원 금액 및 절차

- 1년에 각 분과별 2인을 선택하여 예술원이 정한 금액(1인당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고려했을 때 지원금액의 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
- 더구나 지원대상자 선정부터 지원금 교부, 창작활동 수행과정에서의 중간보고, 완료 후의 정산 등 관련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창작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창작활동 지원금의 액수 및 배분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의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제예술 심포지엄

1) 사업비 현황(2008년 세출예산 기준)

● 국제예술 심포지엄 사업비는 총 3억 4천 8백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약 6%인 2천 2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주요 사업	사업비 (비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44 ( 41.38%)
회원세미나	5 ( 1.44%)
예술원 미술전	57 ( 16.38%)
회원 국제교류	18 ( 5.17%)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34 ( 9.77%)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25 ( 7.18%)
예술강연회	3 ( 0.86%)
예술창작활동지원	40 ( 11.49%)
국제예술심포지엄	22 ( 6.32%)
합 계	(100%)

2)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국내외 저명 예술가들의 주제발표 및 질의토론을 통해 국제 예술계의 신경향과 사조를 이해하기 위해 1972년부터 매년 10월중에 개최됨.
- 발표 및 토론자는 국제예술계의 저명 예술가 2명 내외와 예술원 회원, 대학교수, 국내 저명예술인으로 구성됨.
- 1972년부터 2007년까지 총 36회의 국제예술심포지엄 개최.
  - 최근 10년간 개최실적

기 간	주 제	참가국
1998.10.16	- 인도음악의 라가와 딸라의 역사 및 미학 - 동양/서양 : 세기의 만남	인도, 프랑스
1999.10.14	- 해방공간의 4가지 자기모순성 유형에 대한 논의 - 김소운 『유색운』의 의미 -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한국, 일본

기 간	주 제	참가국
2000.6.8	- 20세기 중국회화의 중서관계 - 아시아 미술의 근대	중국, 일본
2001.10.17	- 명치이후 서구음악 수용의 역사의 개요와 몇 가지 문제점의 한국·일본 - 21세기 한국음악교육의 비전	중국, 일본
2002.10.15	- 일본 뮤지컬의 현황 - 한국 뮤지컬의 위상 변화	한국, 일본
2003.10.15	- 국제화시대의 한국문학강의와 읽기 : 미국에서의 한국문학읽기와 염상섭의 『효풍』 - 알베르 까뮈 : 반항과 테러에 대한 성찰	
2004. 10.12~15	- 오늘 문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잔혹한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문학 - 미국 미술의 쇠퇴 - “동양”기념과 서체미술 - 한국과 중국간 음악 교류의 흥미로운 이야기 - 현대 국악의 방향 - 연극의 국제교류 - 시대별로 분류한 신무용의 발달 과정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일본
2005.10.12	-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며 다가선 한 세기를 생각하다 - 까를로 스카르파 : 이상적 박물관 기술	한국, 이탈리아
2006.10.18	- 유럽 관객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장르의 동양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는가? - 전통음악을 현대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독일, 한국
2007.10.17	- 반공영화를 넘어 분단영화의 재구획화를 위하여 - 프랑스 내 한국영화 인식에 대한 분석과 역사	프랑스, 한국

3) 평가

- 세계와 우리나라의 예술이 만나는 접점으로 국제예술심포지엄이 진행되어 왔으며 공시적이면서 통시적인 주제들을 다뤘음.
- 예술관련 종사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일반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의 고민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 국제교류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해외 예술원 관계자의 초청과 방문, 해외 예술가들과의 교류 등).



□ 우수예술인 발굴지원사업

1)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 신진예술인 및 기성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과 2006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음.
- 우수예술인 발굴지원 내역

〈표 35〉 우수예술인 발굴지원 내역

연 도	분 문	지원대상자	사 업 내 용
2005년	문학	이윤학	시집·산문집·장편어른동화(2권)·장편동화 출간
	미술	한진만	「화·도·도」 한진만 작품전
		김종구	그라인딩 프로젝트
	음악	이정희	바리톤 이정희 독창회
		박흥우	슈베르트연가곡 「겨울나그네」 연주회
		김현심	소프라노 김현심 영미가곡 동창회
	연극·영화·무용	김석만	버드 프로젝트
		남정호	무용 「빨래」 (루마니아 시비우국제페스티벌 참가작)
2006	문학	장석주	창작집 「장소의 탄생」
		유혜숙	총렬관련 문학담론의 시나리오 「아름다운 사람살이」
	미술	김선두	김선두 개인전
		김춘수	김춘수 작품전
	음악	이에림	피아노 독주회
		김정림	해금창작곡 CD 「전통의 새로움」
	연극·영화·무용	김숙자	공연 「린반데룽2 - 불멸의 처」
		오태영	희곡집 「수레바퀴」

2) 평가

- 우수예술인 발굴지원사업의 경우, 신진예술인에 대한 예술창작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로 2005년과 2006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지역문화사랑방

1)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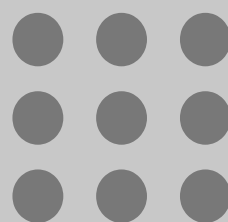
● 메시지 전달 위주의 예술강연회와 달리, 예술원회원과 지역예술인, 예술전공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1982년부터 개최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예술강연회와 통합하여 실시.

● 지역문화사랑방 개최현황 (1992~1999)

회수	개최년월일	연 사		주 제	장 소
		분 과	성 명		
1	1992. 3. 9	음 악 음 악	洪元基 鄭回甲	- 시조시와 가곡과의 관계 · - 한국에서의 양악작곡 기법의 변천연구	광주광역시 (금호문화 회관)
2	1992. 6.19	문 학	具 常	- 문학적 인생론	경남 밀양시 (밀양문화원)
3	1992.10.31	미 술 미 술	柳景採 田雷鎭	- 현대 미술에 관하여	전남 목포시 (시민회관)
4	1993. 3.27	영 화 연 극	柳賢穆 崔金童	- 한국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시 (문화예술회관)
5	1993. 7. 1	문 학	金潤成 李浩哲	- 나의 시 세계 - 문민시대와 향토 문학	속초시 (문화사랑방)
6	1994. 5.27	미 술	權純亨 吳承雨	- 현대 도예의 과거와 현재 - 바로크 미술과 루벤스	김포시(문화원)
7	1995. 3.27	문 학	趙炳華	- 시와 사랑방	안성여고
8	1995. 4.28	음 악 무 용	鄭回甲 林聖男	- 한국에서의 양악작곡법의 변천연구 - 우리나라 발레발전을 위한 과제	부산시민회관 부산여자대
9	1995. 5.10	미 술 미 술	田雷鎭 吳承雨	- 현대미술에 관하여 - 바로크미술관과 루벤스	전북부안
10	1995. 6.10	문 학	趙炳華	- 꿈을 가지고 살자	안성여중
11	1996.10	문 학 영 화	洪性裕 辛奉承	- 작가와 나의 주변이야기 : 문학과 국민정서	김해시청 강당
12	1997. 5.16	음 악	林元植	- 음악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삼척예총지부
13	1997. 6. 7	연 극	車凡錫	- 위기 의식과 문학인	진도향토문화 예술회관
14	1997. 6. 8	문 학	趙炳華	- 인생과 예술	진도향토문화 예술회관
15	1997.11.15	영 화	辛奉承	- 21세기의 문화환경	제주 학생회관
16	1998. 6.18	문 학	李浩哲	- 독서와 문학	울릉 군민회관
17	1998. 9. 8	문 학	趙炳華	- 나의 예술과 인생	군포 시민회관
18	1998.10.17	문 학 연 극 영 화	郭鍾元 車凡錫 俞賢穆	- 1960년 한국문단 - 리얼리즘 연극의 제고 ·영화의 미래	제주 파라다이스 회관
19	1999. 5.15	문 학	趙炳華	- 나의 예술 나의 인생	서귀포 여성회관
20	1999.10.21	영 화	金洙容	- 스크린의 자유 : 한국영화는 발전하고 있는가	부산외국어대학 강당

# 4

## 예술원에 대한 인식 조사



제1절 예술원 회원(내부집단) 인식 조사

제2절 예술인 및 예술행정 전문가 인식 조사

# 제1절

## 예술원 회원 인식 조사

### 1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예술원에 대한 예술원 회원의 인식과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원의 미션 및 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 ☐ 조사 대상 및 표본 : 예술원 회원 전수 조사(총 85명)
-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 조사 기간
- 1차(예술원 회원총회) : 2008. 7. 4

- 2차(예술원 분과회의) : 2008. 7. 21 ~ 24
- ☐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조사 항목
회원 만족도	자부심과 긍지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만족도
	회원으로서의 책임감
미션 및 기능에 관한 인식	미션에 대한 인식
	기능 수행에 대한 만족도(평가)
발전방향에 관한 인식	장기발전을 위한 과제
	회원구성(장르/회원체계/국적) 개선
	의견 및 제언

## 2 조사 결과

### □ 응답자 특성

- 총 85명의 회원 중 환우 중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설문에 응하지 못한 48명을 제외한 37(43.5%)명의 회원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 응답률 : 문학(38.1%), 미술(26.1%), 음악(61.1%), 연극·영화·무용(36.4%)

### ● 분과별 응답자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문학	8	21.6	21.6	21.6
미술	6	16.2	16.2	37.8
음악	11	29.7	29.7	67.6
연극	2	5.4	5.4	73.0
영화	3	8.1	8.1	81.1
무용	3	8.1	8.1	89.2
무응답	4	10.8	10.8	100.0
합계	37	10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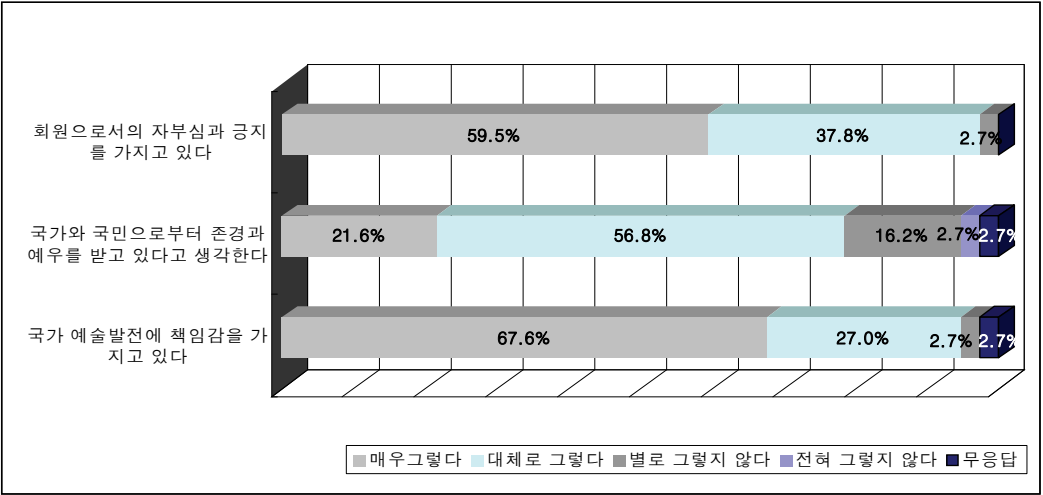
### ● 회원 재임기간별 응답자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5년 미만	17	45.9	45.9	45.9
5년 이상~10년 미만	10	27.0	27.0	73.0
10년 이상~15년 미만	4	10.8	10.8	83.8
15년 이상~20년 미만	5	13.5	13.5	97.3
무응답	1	2.7	2.7	100.0

## 가. 예술원 회원 만족도

-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세 가지로 구성됨

- ①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
  - ②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③ 국가 예술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림 15] 회원 만족도(전체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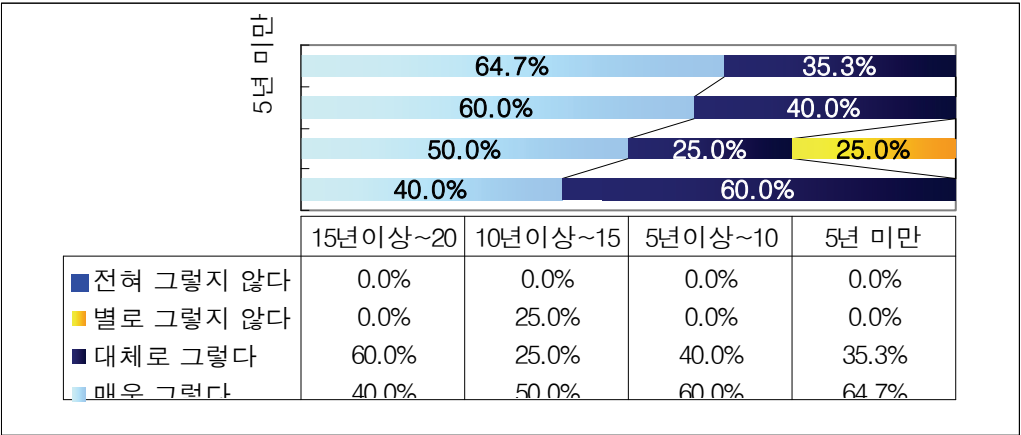
〈표 36〉 회원 만족도

질문	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자부심과 긍지	매우 그렇다	22	59.5	59.5	59.5
	대체로 그렇다	14	37.8	37.8	97.3
	별로 그렇지 않다	1	2.7	2.7	100.0
	합계	37	100.0	100.0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만족도	매우 그렇다	8	21.6	21.6	21.6
	대체로 그렇다	21	56.8	56.8	78.4
	별로 그렇지 않다	6	16.2	16.2	94.6
	전혀 그렇지 않다	1	2.7	2.7	97.3
	무응답	1	2.7	2.7	100.0
	합계	37	100.0	100.0	
국가 예술발전에의 책임감	매우 그렇다	25	67.6	67.6	67.6
	대체로 그렇다	10	27.0	27.0	94.6
	별로 그렇지 않다	1	2.7	2.7	97.3
	무응답	1	2.7	2.7	100.0
	합계	37	100.0	100.0	

● 질문문항별 회원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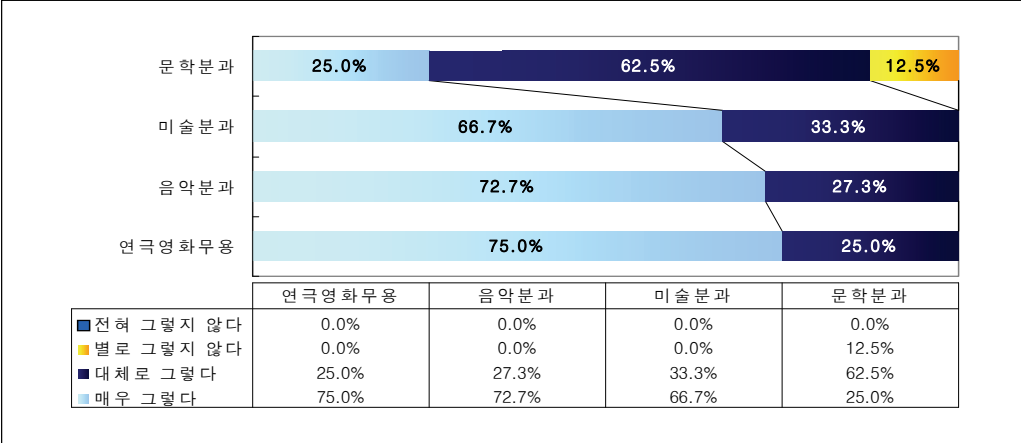
① “예술원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 전체 응답자 37명 중 “매우 그렇다”가 22명(59.5%), “대체로 그렇다”가 14명(37.8%), “별로 그렇지 않다”가 1명(2.7%)으로, 회원들은 대체로 예술원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회원 재임기간별로는 재임기간이 길지 않은 회원일수록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16]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재임기간별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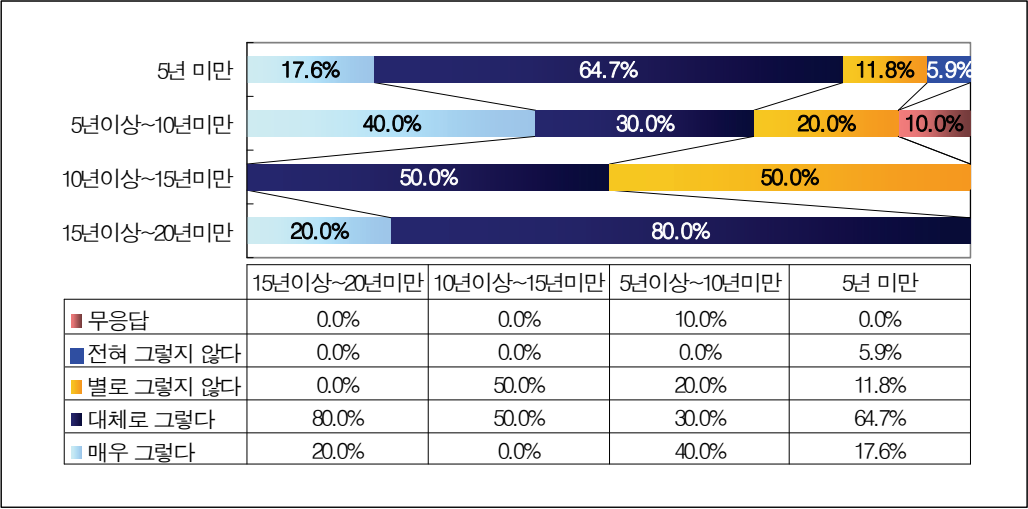
- 분과별로는 연극영화무용분과 응답자의 75.0%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해,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7]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분과별 응답자)

②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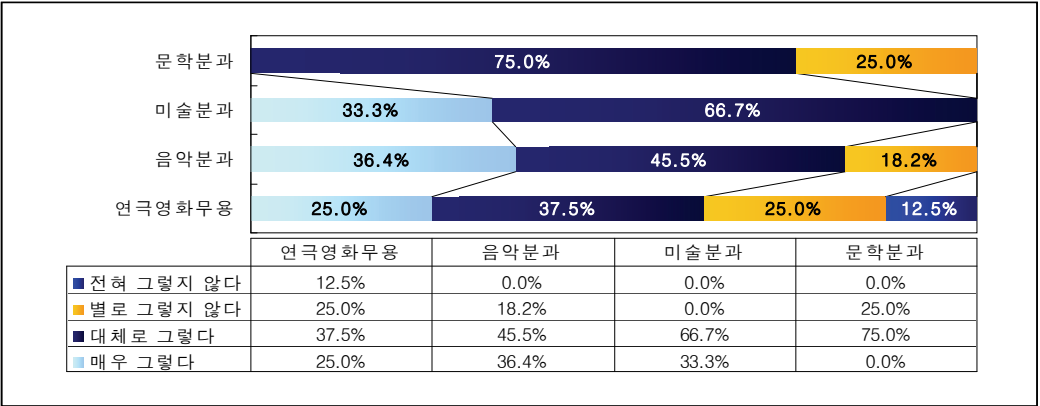
- 전체응답자 중 21.6%가 “매우 그렇다”, 56.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16.2%인 6명은 “별로 그렇지 않다”, 2.7%인 1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음. 즉, 회원들은 대체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18.9%인 7명은 별로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회원 만족도 중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만족도는 재임기간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신규회원일수록 존경과 예우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18]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만족도(재임기간별 응답자)

- 분과별로는 미술분과 회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연극영화무용 분과 회원들의 만족도가 다른 분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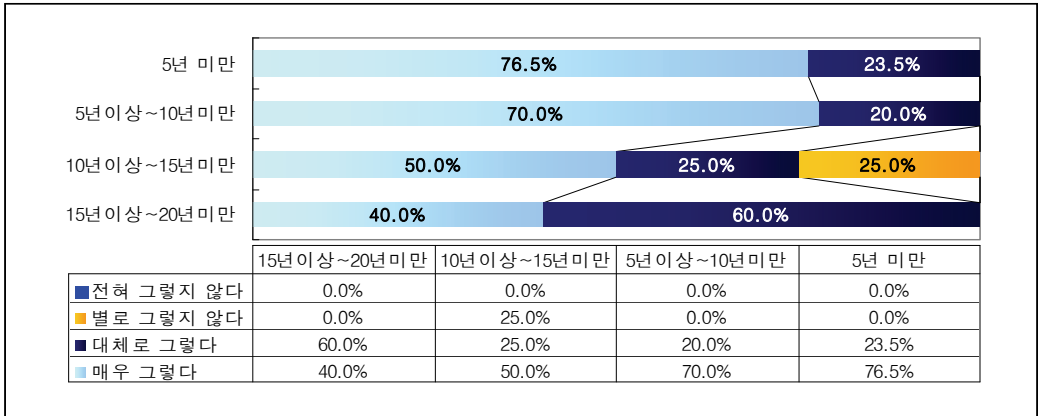




[그림 19]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만족도(분과별 응답자)

③ “국가 예술 진흥 및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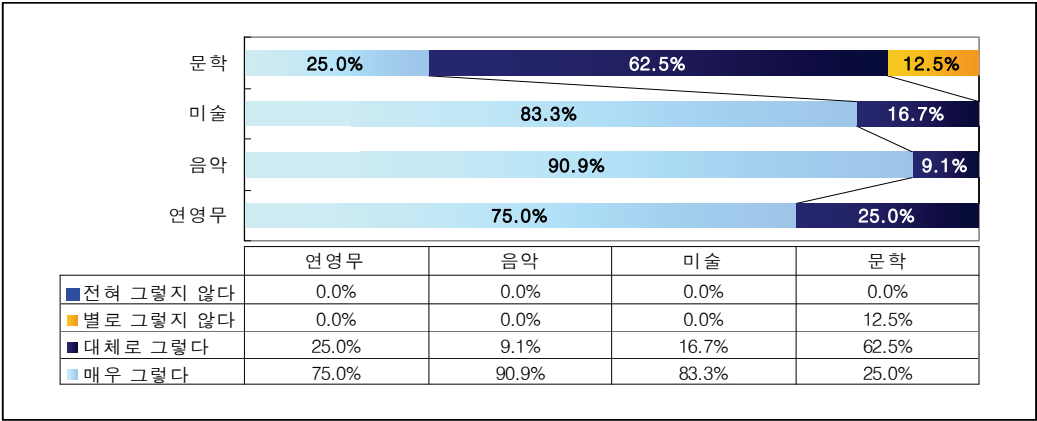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37명 중 “매우 그렇다”가 25명(67.6%), “대체로 그렇다”가 10명(27.0%), “별로 그렇지 않다”가 1명(2.7%), “전혀 그렇지 않다”가 0명(0%)으로,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국가 예술진흥 및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가지고 있음
- 회원 재임기간별로는 재임기간이 길지 않은 회원일수록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20] 국가예술 발전에 대한 책임감(재임기간별 응답자)

- 분과별로는 음악분과 회원들의 90.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른 분과 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 예술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국가예술 발전에 대한 책임감(분과별 응답자)

나. 예술원의 미션에 대한 인식(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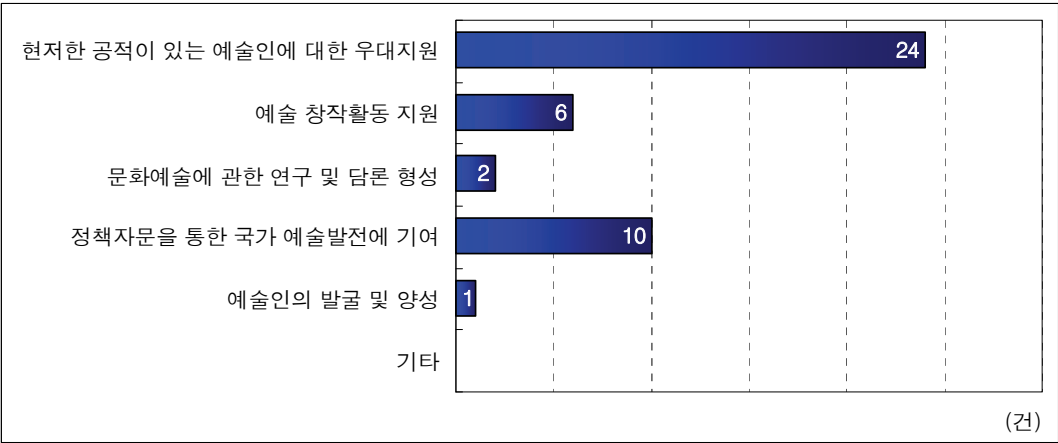
〈표 37〉 예술원의 임무(mission)에 대한 인식

구분		케이스					
		유효		결측		전체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분과	예술 창작활동 지원	37	100.0%	0	0.0%	37	100.0%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 및 담론 형성	37	100.0%	0	0.0%	37	100.0%
	정책자문을 통한 국가 예술 발전에 기여	37	100.0%	0	0.0%	37	100.0%
	예술인의 발굴 및 양성	37	100.0%	0	0.0%	37	100.0%
	기타	37	100.0%	0	0.0%	37	100.0%
재임기간	예술 창작활동 지원	37	100.0%	0	0.0%	37	100.0%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 및 담론 형성	37	100.0%	0	0.0%	37	100.0%
	정책자문을 통한 국가 예술 발전에 기여	37	100.0%	0	0.0%	37	100.0%
	예술인의 발굴 및 양성	37	100.0%	0	0.0%	37	100.0%
	기타	37	100.0%	0	0.0%	37	100.0%

● 예술원의 가장 큰 임무(mission)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우대·지원”이라는 응답이 24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책자문을 통한 국가 예술발전에 기여”가 10회, “예술 창작활동 지원”이 6회,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 및 담론 형성”이 2회, “예술인의 발굴 및 양성”이 1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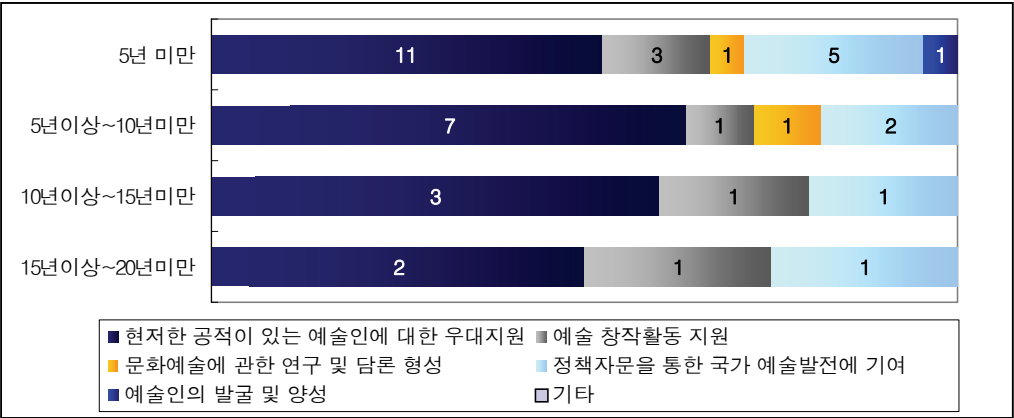
나타남

-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의 법령상 미션은 ①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우대·지원 ②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예술진흥에 기여인데 비해, 회원들은 예술원의 가장 큰 미션을 “예술인에 대한 우대·지원”과 “정책자문을 통한 국가예술발전에 기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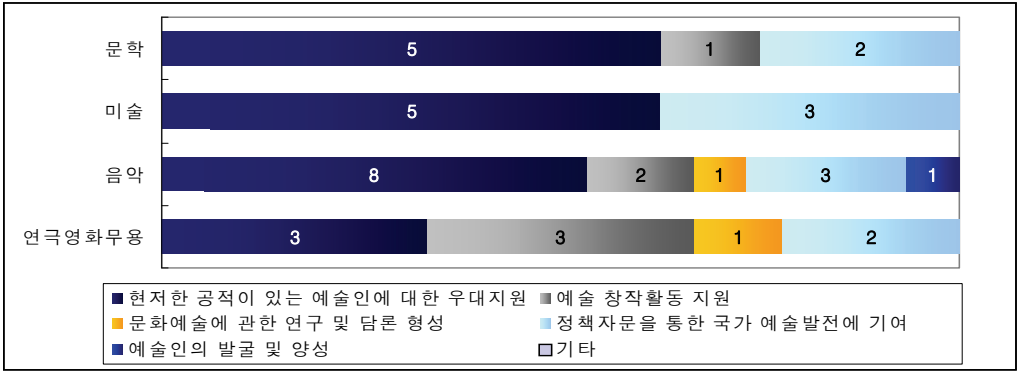
[그림 22] 예술원의 임무(mission)에 관한 인식

- 회원 재임기간별 미션에 대한 인식을 보면,
  - 재임기간별로 특징적인 차이는 없으나, 비교적 재임기간이 짧은 회원일수록 예술원의 미션에 대한 인식이 예술인에 대한 우대·지원 뿐 아니라, 창작활동 지원, 정책자문,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 및 담론 형성, 예술인의 발굴 및 양성 등으로 다양함



[그림 23] 예술원의 미션에 관한 인식(재임기간별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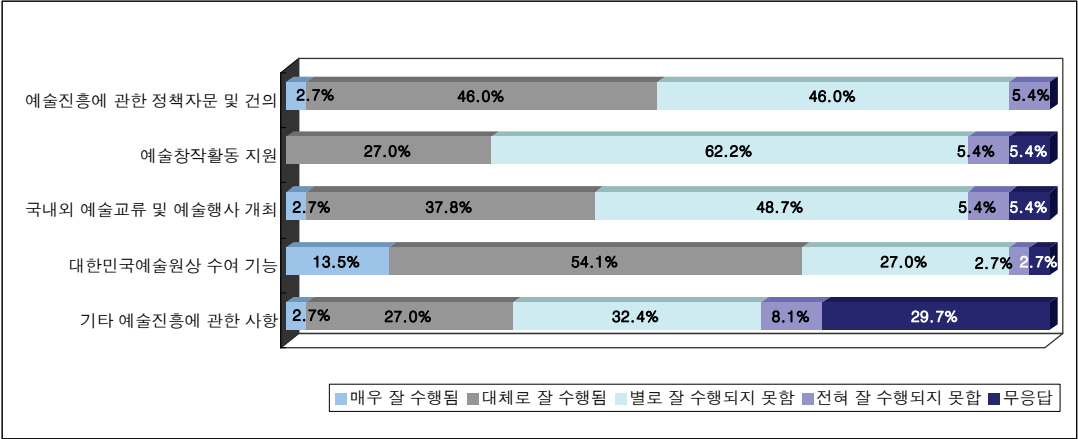
- 회원 분과별 미션에 대한 인식을 보면,
  - 분과별로는 문학과 미술분과 회원들의 경우 예술원의 가장 큰 미션으로 예술인에 대한 우대·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음
  - 음악분과 회원들의 경우 예술원의 가장 큰 미션으로 “예술인에 대한 우대·지원”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 및 담론 형성”과 “예술인의 발굴 및 양성” 등을 꼽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음



[그림 24] 예술원의 미션에 관한 인식(분과별 응답자)

다. 예술원의 기능 수행에 관한 인식

- 예술원의 법률상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기능>은 “매우 잘 수행됨”이 13.5%, “대체로 잘 수행됨”이 54.1%로, 회원들은 대체로 예술원상 수여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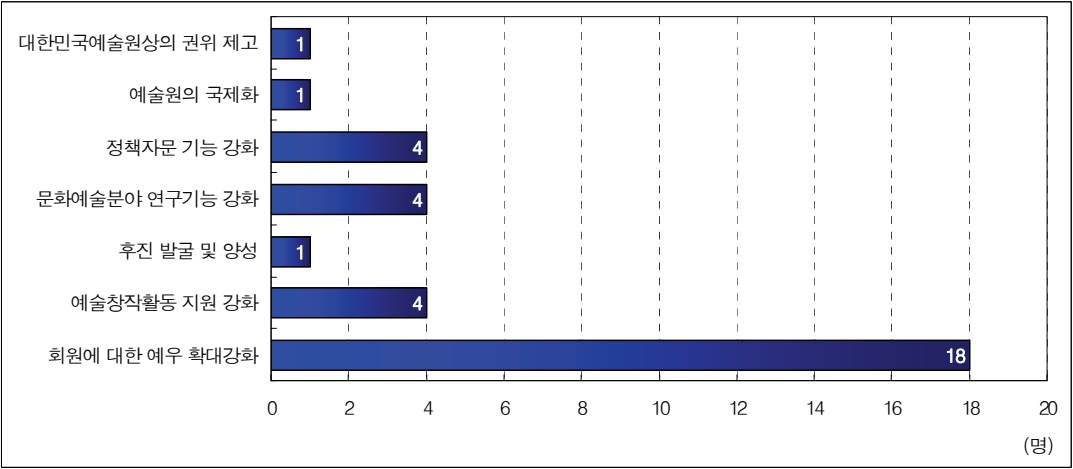


[그림 25] 예술원의 기능 수행에 관한 인식

- 그러나 <예술창작활동 지원>이나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등의 기능은 잘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현재 예술원의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이 주로 예술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회원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또한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1%(3명)가 “전혀 잘 수행되지 못함”에 응답하였으며, 29.7%인 11명은 아예 본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아, 현재 예술원의 기능 중 예술원상 시상 등의 주요 기능 외의 기타 사업에 관한 회원들의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음

라.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

-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회원 33명 중 18명(48.6%)이 “회원제에 대한 예우의 확대·강화”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분야 연구기능 강화”, “정책자문기능 강화”를 꼽았음



[그림 26]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표 38〉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회원에 대한 예우 확대강화	18	48.6	54.5	54.5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4	10.8	12.1	66.7
	후진 발굴 및 양성	1	2.7	3.0	69.7
	문화예술분야 연구기능 강화	4	10.8	12.1	81.8
	정책자문 기능 강화	4	10.8	12.1	93.9
	예술원의 국제화	1	2.7	3.0	97.0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권위 제고	1	2.7	3.0	100.0
	합계	33	89.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10.8		
합계		37	100.0		

- 분과별로는,
- 문학과 회원이 4명, 미술 2명, 음악 4명, 연극영화무용 4명, 소속을 밝히지 않은 회원 4명이 ‘회원에 대한 예우의 확대·강화’를 예술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응답하였음
  - 음악분과 응답자(11명)는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회원에 대한 예우 확대·강화(4명),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2명), 후진 발굴 및 양성(1명), 문화예술분야 연구기능 강화(2명), 정책자문 기능 강화(1명) 등을 꼽아, 가장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음

〈표 39〉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분과별)

구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무응답	합계
회원에 대한 예우 확대강화	4	2	4	4	4	18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1	1	2	0	0	4
후진 발굴 및 양성	0	0	1	0	0	1
교육기능 확대	0	0	0	0	0	0
문화예술분야 연구기능 강화	1	0	2	1	0	4
정책자문 기능 강화	1	1	1	1	0	4
예술원의 국제화	0	0	1	0	0	1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권위 제고	0	0	0	1	0	1
예술원 회원의 확대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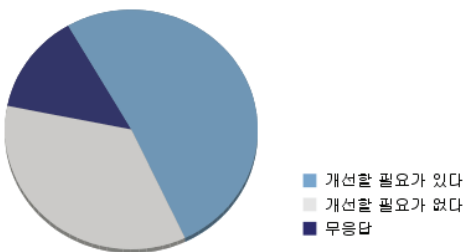
- 회원 재임기간별로는,
  - 재임기간이 5년 미만인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에 대한 예우 확대·강화(6명) 뿐만 아니라,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3명)와 정책자문기능 강화(3명), 후진 발굴 및 양성(1명), 문화예술분야 연구기능 강화(1), 예술원의 국제화(1명)에 응답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음

〈표 40〉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재임기간별)

구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합계
회원예 대한 예우 확대강화	6	7	2	3	18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3	0	0	1	4
후진 발굴 및 양성	1	0	0	0	1
교육기능 확대	0	0	0	0	0
문화예술분야 연구기능 강화	1	2	0	1	4
정책자문 기능 강화	3	1	0	0	4
예술원의 국제화	1	0	0	0	1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권위 제고	0	0	1	0	1
예술원 회원의 확대	0	0	0	0	0

마. 예술원 회원의 구성체계 개선에 관한 인식(복수응답)

- 예술원 회원의 구성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6%인 18명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7.8%인 14명이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개선할 필요가 있다	18	48,6	48,6
개선할 필요가 없다	14	37,8	37,8
무응답	5	13,5	13,5
합계	37	100,0	100,0

- 개선의 방향은,
  - “장르를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동포 예술인도 예술원 회원의 선출 대상으로 한다”는 의견이 22.2%로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현행 연극·영화·무용 분과를) “장르별로 독립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41〉 예술원 회원 구성체계 개선에 관한 인식

개선방향	빈도(명)	퍼센트(%)
① 장르를 폭넓게 포괄(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9	52.9
② 해외동포 예술인도 회원으로 선출	4	23.5
③ 외국 유명 예술인도 회원으로 선출	0	0
④ 회원체계를 세분화(정회원, 준회원 등)	3	17.7
⑤ 기타	1	5.9
합계	17	100

[유효 : 17, 결측 : 1]

※ 본 문항은 원래 복수응답 문항이었으나, 조사 결과 18명의 응답자 중 한 명만이 복수응답하여, 분석시 다중응답 분석을 하지 않고, 한 명을 결측치로 처리하였음(다중응답자 1명의 응답항목 : ① 과 ④)

바.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 기타 예술원 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국가의 예술원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는 총 37명의 응답자 중 8명이 응답하였음
- 의견의 주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2〉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구분	의견
예술원 정책에 대한 건의	- 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해 예술원의 역량(원로들의 경륜과 창작기술, 후진양성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변화 필요 -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예술인들의 모임답게 권위와 품위 유지를 위한 우대지원의 강화 필요 - 예술원이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필요하며,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예우기관으로서의 예술원의 취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술원 지원금 확대
예술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제언	- 대한민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최고 원로들의 경륜과 창작기술, 후진양성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문기구로서의 활성화가 필요함 -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젊고 활발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의 정책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문화예술분야의 연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원구성에 대한 의견	- 회원 수 등 각 분과별 체계가 불균형하므로 공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르조정은 법률적이기보다는 각 분과의 자율에 맡겨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절

### 예술인 및 예술행정 전문가 인식 조사

####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예술인 및 예술정책전문가(총 15명)

〈표 43〉 내부집단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분	분야	성명	소속
문학	평론	방민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설	성석제	소설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소위원회 위원
	소설	정연희	소설가,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미술	회화	조덕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국제갤러리 전속작가
	건축	김 익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사진	이강우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교수
음악	기악	장혜원	이원문화센터 센터장, 전 이화여자대학교 음대 교수
	지휘	임현정	부천필 상임지휘자,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
	국악	최경만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
연극 영화 무용	연극	길해연	극단 ‘작은신화’
	영화	정재형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교수
	무용	최태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다원예술		이규석	예술경영센터장, 전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
문화예술정책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예술정책		오양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조사 방법 : 심층 면접

□ 조사 기간 : 2008. 10월~11월

□ 주요 조사 내용

구분	조사 항목
인지도	인지도
	이해도
미션 및 기능에 관한 인식	미션에 대한 인식
	기능에 대한 인지도
발전방향에 관한 인식	장기발전을 위한 과제
	회원구성(장르/회원체계/국적) 개선
	예술원상 권위 제고
	의견 및 제언

2 조사 결과

□ 조사 대상자 특성

- 각 예술 장르별 예술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1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대별

구분	명수(명)	비율(%)
30대	1	7
40대	6	40
50대	5	33
60대	1	7
70대	2	13
합계	15	100

－ 성별

구분	명수(명)	비율(%)
남	10	67
여	5	33
합계	15	100

## □ 인식조사의 주요 이슈

● 외부 전문가 인식조사의 이슈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됨

- 1) 예술원에 대한 인식
- 2) 예술원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의견
- 3) 위상 강화 및 인지도 제고에 관한 의견
- 4) 회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의견

### 가. 예술원에 대한 인식

- 예술원에 대한 평소 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술원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응답함
- 예술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예술원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음.
- 그러나 예술 공적에 대한 예우기관 및 상징적인 예술계의 원로기관으로서의 예술원의 존립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예술원의 존재는 알았지만, 별로 아는 바는 없었음.”

“예술인은 퇴직금, 연금 등이 없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국가 차원에서 원로 예술가를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라 알고 있었음. 예술인으로서 예술원 회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으나, 나이가 들어서도 실질적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존재는 당연하다고 생각함.”

“존재는 알고 있으나 국가에서 주요 예술인을 예우하고 영예를 부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어떻게 예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식이 부족했음. 기관의 성격과 구체적 활동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 문화예술의 다양한 경향을 반영한 회원 구성이 아니라고 봄. 따라서 존재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

## 나. 예술원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의견

### 1)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

- 예술원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와 사회 안에서의 예술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어야 함.
- 이러한 차원에서 대한민국 예술에의 공적을 기리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우가 필요. 즉 예술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생각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의 회원 업적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고 당연한 일임. 따라서 공적이 현저한 예술인에 대한 우대·지원이라는 예술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회원 예우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는 유지하고 확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예우의 개념이 수당이나 월급, 또는 복지혜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예술 공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정으로 여겨져야 함.
- 따라서 「우대·지원」, 「수당」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예술적 공적을 기리고 예우하는 개념이 강조되는 표현으로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술원 회원의 예우는 사회에서 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예술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데 있어서 상징적인 역할이 되어야 함.

“각 분야에서 한 국가의 예술 발전을 위해 공적이 큰 예술인들에 대한 영예의 자리로서 의미가 중요함. 일생 헌신에 대한 예우와 우대는 필요.”

“회원에 대한 예우는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원들에게 요구되는 활동의 의무는 고령을 감안하여 줄이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예술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임.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기존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생각하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 대한 예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임.”

“예우 기능은 예술원 본연의 임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임. 그러나 수당이나 월급 개념이 아닌 예술 공적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개념으로 인식해야 함.”

“(회원에 대한 예우는) 회원 예우 자체에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예술인 전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목적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예술과 국가는 부합하지 않는 개념임. 그러나 국가가 예술을 필요로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국가의

예술인 예우는 당연한 것임..... 한국 사회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는 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예술원의 또 다른 역할임. 예술원 회원으로서 국가 내 예술의 위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2) 회원 지식과 경험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예술원 회원의 업적은 우리나라 예술사의 업적이나 마찬가지임. 따라서 이러한 우리 예술의 결실과 업적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예술원이 담당해야 함.
- 예술원은 회원의 지식과 경험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술의 가치가 일반인에게 향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회원에 대한 기록사업을 통해 예술원 회원을 추모하고 업적을 기림.
  - 예술원 회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회의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문을 듣는 등의 형식(자유로운 형식의 자문회의, 정책회의 등을 통해 예술원 회원의 이야기를 활용).
  - 방송에 회원들의 발자취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여 예술원 회원을 추모하고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술원 회원의 예술 활동, 예술관, 가치관 등이 지속적 전승 가능하도록 기록 사업이 필요.
  - 예술원 회원들의 활동들을 널리 알리고 예술원 회원에 대한 존경스러운 업적을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함. 수당이나 기타 혜택이 아닌, 업적에 대한 존경으로 인해 예술원 회원인 것이 더욱 명예롭게 느껴져야 됨.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원 회원들의 기록과 자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예술원 회원의 중요한 명예가 되도록 해야 함.
  - 예술원 회원들이 남긴 업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예술원 회원들의 업적이나 근황 등을 담은 뉴스레터를 관련 대학 학과, 예술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예술원 회원의 활동을 요구하기보다 예술원 회원의 업적과 경험을 보급하고 향유하는 역할이 필요함.”

“형식적인 프로젝트나 사업보다 예술원 회원의 업적과 경험을 향유하도록 하는 예술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예술원 회원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창작활동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 예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기관이므로 회원의 업적을 후세에 전파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시켜야 할 것임.”

### 3) 예술계 원로로서 국가 예술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국가의 중요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예술계 원로인 회원의 식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의 역할을 해야 함.
  - 구체적인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자문 보다는, 국가의 중대한 예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

“국가 예술정책에 있어서 예술원은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국가의 중대한 예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강조하기 보다는 예술계 원로서 국가 예술진흥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봄.”

“예술계의 원로기구로서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 다. 위상 강화 및 인지도 제고에 관한 의견

### 1) 외부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필요

- 예술원이 정체된 기관으로 남지 않고, 대한민국예술의 자산을 기록·보존·전승하고, 예술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지도와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예술원 회원들이 일반인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함.
- 소통활성화의 방안
  - 예술원 아카이브(자료관) : 예술원 별관 형식으로 하여 예술원 자료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예술원 인지도 제고와 홍보를 위해 예술원과 회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작품이나 업적 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사무국이 신문, 라디오, TV, 뉴미디어, 인터넷 등에 예술원 회원들의 업적이 노출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일반인에게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TV인만큼, 방송이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술원을 알리는 활동이 중요함.”

“예술원 회원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지속적으로 예술원 회원들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함. 예술인조차도 자기 분야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현재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해당 장르의 역사를 배워야 될 필요성 있음.”

“예술계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극심함. 또한 장르 간, 세대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한데 이런 소통의 문제를 예술원이 적극적으로 아우르며 보다 존경받는 원로의 모습을 갖추면 좋겠음.”

## 2)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권위 제고

### ● 추천방식

-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권위 제고를 위해서는 수상후보자 추천방식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 ● 심사방식

- 예술원 회원 외에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반대로 예술원상 시상은 예술원 회원이 갖는 권위와 명예의 상징으로 심사 및 선정은 회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 심사기준

- 예술원 회원이 아닌 예술인을 수상 대상으로 바꾼 것에 대해 대한민국예술원상이 보다 권위 있게 되기 위한 당연한 변화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 예술원상의 수상자 선정 시 작품으로 평가하자는 의견과 예술인의 활동 내역과 업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음.

### ● 수상 혜택

- 예술원상의 권위 제고를 위해서는 예술원상의 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 수상 작품을 실연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대한민국 예술원상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에 비해 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되어 있음. 보수적 이미지가 강함.”

“회원에게 권위를 부여한 이상 예술원 회원 주관으로 시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보수적인 경향을 떨 수 있다는 기존 인식을 탈피하여 보다 가치중립적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 장기

적 시각이 필요함.”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해당 예술인의 예술관과 가치관, 활동과 업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3) 기타 의견

#### ● 예술원 독립 청사의 확보

- 현재의 위치는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예술원 독립청사를 마련하고, 부대시설이나 대관시설에서 예술원 주최의 문학행사, 미술전시, 공연행사 등 각종 행사를 치르도록 함.

#### ● 예술원 회원에 대한 사회적 환기

- 유고회원 다큐멘터리의 TV 방영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우리나라 예술사와 예술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

#### ● 정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

- 예술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부적 관심 표출이 중요. 예술원 회원과 대통령과의 간담회, 대통령의 예술원 행사 참석 등이 상징성 제고 가능.

#### ● 예술원의 법적 위상 강화

-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최고의 예술인 예우 기관을 추구하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은 시기상조이므로 지속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 ● 예술원의 국제화

- 예술원 위상을 높이려면 국제관계 활동 중 비중 있는 관계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각 분과별로 가장 중요하고 추상적인 일에 예술원 회원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 예술원 장 또는 예술원회원 묘지

- “예술원 장”을 통한 기념을 통해 예술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예술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예술원의 인지도 역시 높아질 것임.
- 돌아가신 예술원 회원들을 한 곳에 함께 모시는 방안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기존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예술원 주최로 운영

- 올해의 작가상, 젊은 예술인 상 등 기존에 인지도가 높은 시상제도를 예술원 주최로



- 시행함으로써 예술인에 대한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예술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상제도를 굳이 예술원이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됨.

● 기부회원 제도 운영

- 예술원회원 뿐 아니라, 일반인 및 일반 예술인으로부터도 작품을 기증받아 이들을 ‘기부회원’ 등으로 함으로써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

● 사회적 반향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예술원 회원과 그들이 선정한 차세대 작가들과의 공동전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원로의 모습을 정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라. 회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의견

### 1) 회원선출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예술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 현행 회원 선출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추천제 같은 제도를 두고는 있으나, 사실상 현재 회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선출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회원의 사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는 구조라는 주장이 많았음.
- 회원 선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예술원 회원 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예술원의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므로 회원 선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예를 들어 원로 예술인, 기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1차 자격심사 시 기술분과를 구성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회원 선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음.
- 회원선정에 있어서는
  - 예술적 총의의 반영을 위해서 회원 선출의 실질적 권한을 총회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
  - 회원 정원을 확대하여 동시에 장르 및 경향의 다양성을 모색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됨.

- 회원 선출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함.
- 회원 선출을 위한 회의 정족수는 고령 회원들을 고려할 때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봄.
- 회원 선출을 위한 분과회의 정족수를 완화하면 회원 선출이 용이해 질 것이라 생각.

“정원을 두고 예술인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듯. 총 정원 및 분과별 정원 문제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정원을 의식하기 때문에 신규 회원 선출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장르의 전문성이 요구되면 장르의 전문성을 활용, 예술원 회원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총체적 입장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후보 추천은 분과 전문성에 근거하고 회원 선출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함.”

“예술계의 모든 스펙트럼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이 문제라면 기술분과 같은 것을 두어서 후보자 심사를 이원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선출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필요함. 그러나 외부 심사위원을 두는 것은 예술원의 자율성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의 선정과정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외부전문가위원회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존 회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는 번거로움 및 새로운 제도로 개선해도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기존 선출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 분과의 명칭 변경 등 장르구분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필요

● 분과의 명칭을 좀 더 넓게 조정하여 다양화되는 예술 변화를 담을 필요가 있음(예 :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 그러나 현재의 장르 구분은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음. 새로운 예술 장르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생각보다 극심할 수 있음.

- 예술의 다양화를 생각할 때 기존의 분과구분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명칭이나 분과구분은 장기간의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단기기간에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됨

- 현행 분과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영화예술 분과로 명칭 변경. 다원예술 분과와 문화일반(문화정책, 문화경제, 예술행정, 예술경영, 문화기획 등의 분야를 포괄) 분과 신설.

- 분과 구분을 대분류/소분류로 하여 현재의 분과를 세분화(예 : 문학의 하위분류로 시, 소설, 수필 등을 둠). 문학은 기본적으로 ‘문예’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 ● 기타 의견

-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는 노력이 필요함(예 : 다원예술 등).
- 예술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한 배려, 특히 단위분과 내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균등한 배려가 필요함.
- 그러나 회원에 피선될 가능성이 있는 예술인들의 연령을 볼 때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의 분과 구분은 아직 시기상조임.

“새로운 장르를 신설하거나 분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미학자 등 전문가의 견해를 따라 정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즉 분과 구분이나 신설 논의는 절대적으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

“예술원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보수성을 고려할 때 전통적 장르 구분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역지로 분과를 새로 규정하기보다는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해당 분과 내에서 새로운 형식이나 장르를 포섭하여 안정적인 예술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도록 해야 함. 지나친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기존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함.”

### 3) 해외동포 예술인에 대한 회원자격 확대

#### ● 찬성 의견

- 한국의 예술발전 및 한국예술의 위상을 높인 해외동포 예술인을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단, 국내에서 활동해 온 예술인에게 (회원 선출시) 더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그러한 방안으로 기존의 회원과는 다른 명칭(예 : 명예회원, 준회원 등)을 부여한다거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에 대한 문호 개방은 가능함. 다만 국내에서 활동해 온 예술가에게 회원선출시 더 우선권을 주어야 함.”

“외국인이어도 ‘한국 예술에 기여한 경우’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음. 단, 기간 등의 제한은 두어야 할 것임.”

“재외동포나 귀화 한국인, 혹은 한국인 혈통의 예술가에게겐 문호를 여는 게 좋겠음. 이를 통해 예술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반대 의견

- 해외 동포까지 예술원 회원으로 포섭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

“해외동포와 관련해서는 국제교류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한 해외 예술인을 모시기 위해서는 기존 해외 예술인 대우 관례를 생각할 때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로서는 예산이 충분한 상태가 아닌 이상에야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음.”

#### 4) 젊은 예술인에 대한 회원자격 확대 문제

● 찬성 의견

“중견 예술인을 제한된 임기로 선출하여 활동의 적극성을 가미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함.”

“1981년에 도입되었다가 운영되지 않고 1988년에 폐지된 준회원(50세 이하, 임기 4년) 제도를 부활시켜 중견예술인들로 하여금 예술원을 활성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고, 예술원 관련 활동 실적이 많은 준회원은 회원 심사 시 가점을 주도록 하는 방안 검토..”

“활동 가능한 회원들에게는 일반회원의 명칭을 붙여 상징성, 추상성이 강한 예술 진흥 활동 역할을 부여하고 고령으로 활동이 어려운 회원이 되면 원로회원으로써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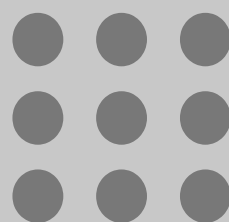
● 반대 의견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의 등급을 구분지어 젊은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예술원 회원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예술원에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단기간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수 있음.”

“준회원 제도는 예술원 회원이 되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학술원 및 해외 예술원 사례



제1절. 대한민국학술원

제2절. 일본예술원

제3절. 아카데미 보자르(Academie des Beaux-Arts)

제4절. 미국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제5절. 독일 예술원(Akademie der Künste, Berlin)

제6절.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시사점

# 제1절

## 대한민국학술원

### 가. 일반현황

#### 1) 설립목적

-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국내·외 학술교류 등을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2) 설립근거

- 「문화보호법」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1988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학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는 동법 제 16조를 그 근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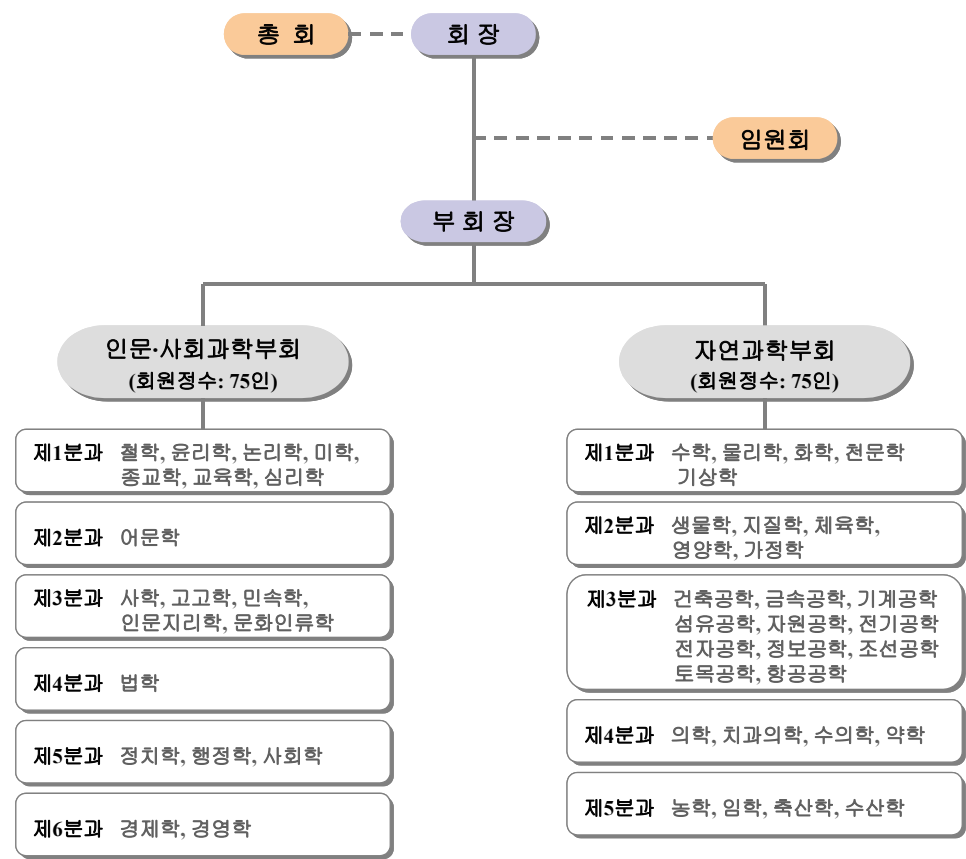
#### 3) 기능

- 학술 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 학술연구와 그 지원
-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 학술원상 수여
-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연혁

1952	08. 07	문화 보호법 제정 (법률 제248호, 회원정원 80명)
1954	04. 06	학술원 회원 선출 (50명)
1954	04. 23	임명회원 및 추천회원 선출(13명)
1954	07. 17	학술원 개원
1960	02. 03	문화보호법 개정(회원 정원 : 80명→100명)
1987	10. 15	학술원 청사 신축 이전(서초구 반포4동 산94-1)
1988	12. 31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 (회원 정원 : 100명→150명)
2004	08. 26	제30대 김태길회장(윤리학) 취임

나. 조직



[그림 27] 대한민국 학술원 조직도

다. 회원

1)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회원	- 근거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3조 - 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학술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명예회원	- 근거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 2 (“외국과의 학술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자격 :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중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회원의 선출 및 임기

- 근거법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 내지 제6조
- 회원
  - 회원심사위원회(분과회의)와 부회에서 선출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함
  -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4년이며, 연임 가능
- 명예회원
  - 근거법 :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 회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과회 및 명예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 승인을 통해 선임함
  - 임기는 4년이며 연임가능

3) 회원 현황

- 회원(정원 150명 / 현원 140명)
  - 회원의 평균연령 : 77.4세(2008.9월 현재)

구분	분과	전공분야	정원	현원
인문 사회 과학 부회	제1분과	철학, 윤리학, 논리학, 미학, 종교학, 교육학, 심리학	13	12
	제2분과	어문학	13	13
	제3분과	사학, 인문지리학,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13	13
	제4분과	법학	12	9(1)
	제5분과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12	12



구분	분과	전공분야	정원	현원
	제6분과	경제학, 상학, 경영학	12	10(1)
	소 계		75	69(2)
자연 과학 부회	제1분과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기상학	15	15
	제2분과	동물학, 식물학, 지질학, 광물학, 지학, 체육학, 영양학, 가정학	15	14(1)
	제3분과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조선공학, 항공공학, 전자공학, 자원공학, 금속공학, 섬유공학	15	15
	제4분과	의학, 치과의학, 수의학, 약학	15	13(1)
	제5분과	농학, 임학, 축산학, 수산학	15	14
	소 계		75	71(2)
총 계			150	140(4)

※ 현원 중 ( ) 의 숫자는 종신회원임

● 명예회원 (정원 20명 / 현원 10명)

- 2008년 현재, 명예회원은 물리학, 물리화학, 생화학, 화학, 생명과학, 의학, 법학, 유기금속화학, 역학전자구조, 인간세포유전학 분야에 각 1명씩의 회원이 있음

회원명	국적	분야	비고
John R.Schrieffer	미국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 수상
Sung-Hou Kim	미국	물리화학	
Thomas R. Cech	미국	생화학	노벨 화학상 수상
Phillip A. Sharp	미국	화학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Bruce Alberts	미국	생명과학	
Gajdusek Daniel Carleton	미국	의학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Masami Itoh	일본	법학	
Ryoji Noyori	일본	유기금속화학	노벨 화학상 수상
Saburo Nagakura	일본	역학전자구조	
Jan Lindsten	스웨덴	인간세포유전학	

-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라. 주요사업

●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

- 국내 과학자 중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

- 195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4회에 거쳐 약 200여명이 수상
-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휘장, 상금이 주어짐
- 수상자 선정은 국내외 학술단체나 학술원 회원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 부문별 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으로 최종 확정함

#### ● 국제학술대회

- 국가 간 학술과 지식의 교환을 통해 학자 간 친목 도모와 지식교류를 통한 학문의 상호보완을 목적으로 함
- 1960년 제1회 대회 개최 이래 2003년까지 31회 개최하는 동안 109명의 국내학자와 112명의 외국학자가 참가함

#### ● 학술세미나

- 분과회별로 연간 1회 이상씩 분과 세미나 및 전체회원 세미나를 개최중임
- 회원의 오랜 연구 경력과 학식을 살린 학술 연구 결과의 발표와 회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학문 간 상호이해 확대를 목적으로 함

#### ● 정책토론회

- 학술원 회원의 오랜 연구 경험과 학식을 살린 정책 연구 결과로 학술원의 정부정책 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95년도부터 1년에 2번씩 개최

#### ● 학술연구 지원

- 매년 회원 대상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을 통한 연구 활동 진작 추구
- 학술연구 조성비 지급 규정에 의거 연구기간은 1년임
- 완성된 연구 결과는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 학술세미나 발표, 학술원 논문집에 게재 등으로 활용함

#### ● 학술원 연구재단 운영

- 1986년 4월 재단법인 학술연구재단을 설립
- 재단의 기본 재산은 학술원 회원의 출연금과 경제단체의 기부금으로 마련됨
- 재단의 사업으로는 정책연구비 지원, UAI 및 PSA 등 국제학술기구 회의참가 지원, 외국학술원 파견 지원,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지원, 학술원 통신 발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재단의 임원 중 (이사 10인, 감사 2인) 학술원 사무국장, 5명의 외부 이사를 제외하고 6명은 학술원 회원으로 구성
- 연구재단의 각종 지원 활동은 학술원 회원의 학술연구 및 활동을 대상으로 함

● 학술교류

- 현재 학술원은 미국의 NAS, 영국의 Royal Society, 중국 과학원 및 사회과학원, 프랑스의 Academie des Sciences, 이스라엘 학술원, 노르웨이 학술원, 스웨덴 왕립 학술원 및 스웨덴 왕립인문사회과학원, 몽골 학술원, 일본학사원 등과 학술교류협약을 맺고 있음
- 특히 중국 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및 일본 학사원과는 정기적 교류 중에 있음
- 학술 교류 현황

2007년	일본학사원 회원 2인, 사무국 직원 2명, 프랑스 학술원 회원 2명이 대한민국 학술원 방문
	학술원 회원 중 일본 학사원에 2인, 중국 과학원에 2인, 중국사회과학원에 2인 방문
	제2회 한일학술포럼 개최시 일본학사원 회원 및 직원 11명 방문
2006년	일본학사원 회원 4인, 중국사회과학원 회원 2인, 영국학술원 회원 1인이 대한민국 학술원 방문
	김태길 회장이 참가한 제1회 한일학술포럼에 9인, 일본학사원 정기교류를 통한 2인 등 11명 일본 학사원 방문
2005년	일본학사원 회원 1명, 중국사회과학원 학자 7명이 대한민국 학술원 방문
	김태길 회장 및 박영식 회원 일본 학사원 방문
	중국과학원 및 중국사회과학원에 각각 2명의 회원 방문
2004년	일본학사원 회원 1명, 중국사회과학원 학자 2명이 대한민국 학술원 방문
	5월12일 학술원개원50주년기념식-일본학사원장, 중국과학원장, 스웨덴왕립학술원원장 및 미국학술원회원 참석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일행 2명이 일본학사원 방문
2003년	일본학사원 인문사회과학부회장, 미국학술원 일행 3명이 대한민국 학술원 방문
	일본학사원,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에 각각 2명의 회원 방문
2002년	일본학사원 원장 일행 2명, 중국 사회과학원 회원 2명이 대한민국 학술원 방문
	회장 일행 2명이 일본학사원 방문
2001년	일본학사원 원장 일행 2명 대한민국 학술원 방문
	일본학사원,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에 각각 2명의 회원 방문
2000년	일본학사원 원장일행 2명, 중국과학원 및 중국사회과학원 회원 4명, 스웨덴왕립학술원장 일행 3명 학술원 방문
	일본학사원, 스웨덴 왕립학술원에 각 1명의 회원 방문

● 국제기구 참가

- 2006년 현재 8개 국제 학술기구에 가입 중임

-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
- 국제기구 가입 현황

<b>가입 기구 현황</b>	<p>8개 국제 학술기구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 : 1961년 가입, 회의참석 11회</li> <li>- 태평양과학협회(PSA) : 1957년 가입, 회의참석 16회(1987년에는 서울에서 개최)</li> <li>- 국제과학재단(IFS):1973년 가입, 회의참석 6회</li> <li>- 국제학술원연합(UAI) : 1977년 가입, 회의참석 18회</li> <li>- 아시아학술원연합(FASAS) : 1987년 가입, 회의참석 12회</li> <li>- 국제지구권 생물권 연구계획(IGBP) : 1995년 가입, 회의참석 7회</li> <li>- 아시아학술회의(SCA) : 2000년 가입, 회의참석 8회</li> <li>- 국제학술원위원회(IAP) : 2000년 가입, 회의참석 4회</li> </ul> <p>※ 8개 기구 중 6개 기구에 매년 분담금 납부(예 : 국제과학연맹이사회 연 \$11,400)</p>
<b>활동</b>	<p>대한민국을 대표해 총회, 심포지엄 등에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총회를 통해 회원국 중 회의개최국을 선발하여 진행</li> <li>- 한국위원회 위원 결성 : 학술원 회장을 중심으로 10명 내외</li> </ul>
<b>예산</b>	<p>이전에는 학술원에서 국고를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나, 2008년 현재 교육과학부 다자협력과의 예산으로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 내역 : 분담금, 항공료, 체재비 등(인당 약 1,000만원)</li> </ul>

## 마. 종합 및 시사점

- 학술원은 1954년에 예술원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그 형태 및 운영에 있어서 예술원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학문과 예술이라는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 등에서 예술원과 다른 부분이 있음. 예술원과는 다른 학술원의 운영 및 사업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학술원 연구재단 운영을 통한 회원 학술활동 지원
  - 학술원은 회원들의 학술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86년에 재단법인 학술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회원의 학술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학술원 연구재단의 기본재산은 학술원회원의 출연금과 경제단체의 기부금임. 기관의 특성상 운영재원은 전적으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타 재원은 목적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재원조성이 필요함
- 비교적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
  - 2008년 10월 현재, 학술원은 8개의 국제 학술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각 학술기구의

총회 및 심포지엄에 회원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NAS, 영국의 Royal Society, 중국과학원 및 사회과학원 등 해외 학술원과 학술교류협약을 맺고 있으며, 중국과학원 및 중국사회과학원, 일본학사원 등과 회원방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를 하고 있음

#### ● 명예회원 제도

- 회원제도에 있어서 학술원은 예술원과 달리 ‘명예회원’을 두고 있음
- 이는 세계적인 석학을 명예회원으로 둬으로써, 학술원의 위상을 높이고 학술원 회원이 노벨상 등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 그러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2절

### 일본예술원

#### 가. 일반현황

##### 1) 설립목적 및 역할

- 일본예술원은 미술, 문예,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각 분야의 우수한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일본의 최고 영예기관임
- 일본예술원은 예술 공적이 현저한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한 영예기관이며, 예술발달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그것을 문부과학대신 혹은 문화청 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2) 연혁

- 일본예술원은 1906년 6월에 문부성미술전람회(문전)를 개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미술 심사위원회를 모체로, 1919년 9월에 “제국미술원”으로 창설되었음
- 이후 1937년 6월에 미술 외에 문예, 음악, 연극, 무용의 분야를 더해 “제국예술원”으로 개편되는 등의 확충을 거쳐 1947년 12월에 “일본예술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음

##### 3) 청사(일본예술원 회관)

- 일본예술원 회관은 회원 고 요시다 이소야 설계에 따라 1958년에 준공되었으며, 2003년 9월 일본건축학회에 의해 역사적 가치가 높고 기술의 성과가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어서 “일본 모던 무브먼트 건축 100선”에 선정되었음
- 회관은 회원의 회의·간담회나 예술원상 수상식 등에 사용되는 것 외에 전시실에서는 예술원 소장 미술품을 일반에게 공개(부정기)하고 있음
  - ※ 회관 규모 : 부지 3,580㎡(1,083평), 건물 1,435㎡(434평)

4) 연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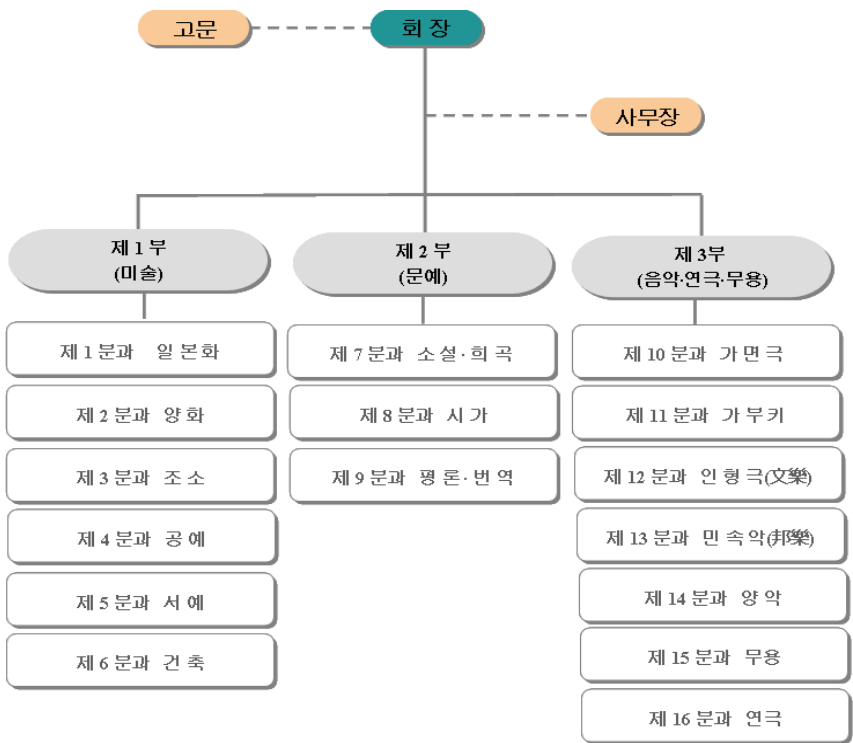
- 일본예술원은 정부기관이므로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됨(문화청 예산)
-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예술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재원 모색 필요성 및 재원 다양화 논의 등은 없음

〈표 44〉 일본예술원 연간 예산

(단위 : 천 엔)

항목	2001 예산액	2003 예산액	증감액
합계	460,706	466,269	5,563
직원인건비	48,195	49,432	1,237
일반관리비	80,669	80,303	▽ 366
일본예술원상 경비	10,759	17,259	6,500
일본예술원 회원 수당	303,000	303,000	-
특별관리 비용	18,083	16,275	▽ 1,808

나. 조직



[그림 28] 일본 예술원 조직도

● 사무국 정원 및 현원

구분	관리직			일반직	연구직	합계
	원장(비상근)	사무장	사무계장			
정 원	1	1	1	7	—	10
현 원	1	1	1	7	—	10

## 다. 회원

### 1) 회원 구분 및 자격

● 회원의 구분 없음

● 회원 자격은 각 분과의 예술상 공적이 현저한 예술가로 함

### 2) 회원선출 및 임기

● 회원은 부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보자를 원장의 신청에 의해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함

- 회원후보자 추천 : 당해 소속 부의 회원. 단, 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 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회원후보자 심사 및 선출은 일본예술원회원후보자전형위원회(전 회원)에서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미술, 문예, 예능의 전형부회로 구성됨
- 후보자의 부회 추천은 부회원의 과반수 투표(연기투표 : 連記投票)를 얻은 자로 함
- 부회의 투표에 있어 병이나 다른 사고가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총회 승인 시 회원 과반수가 총회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한 회원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사전 통지한 의제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표시한 회원은 해당 의제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됨

● 일본예술원회원 선출시의 특징(『일본예술원 회원추천 및 전형규칙』 제18조)

- 후보자 심사기준을 예술상의 공적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예술상의 경력 및 인격을 충분히 고려함
- 후보자에 대하여 당해 예술분야에서 한 분야 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함



- 후보자의 전형은, 신중을 기하고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보충할 필요가 없음
- 예술원 원장은 예술에 관해 탁월한 식견을 가진 자 중, 회원의 선거에 의해 과반수 투표를 얻은 자를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함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대 투표를 얻은 2인에 대해 투표를 재 실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원장과 각 분과 부장의 임기는 3년
  - 회원이 퇴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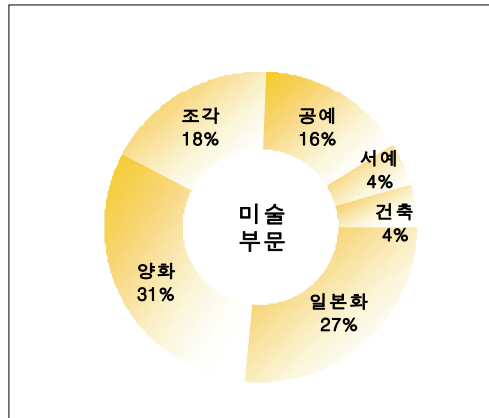
3) 회원현황

- 일본예술원의 회원은 3부 16분과로 구분되며, 1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됨
  - 일본예술원 현회원의 평균연령은 80.2세, 평균재임기간은 10.9년임
  -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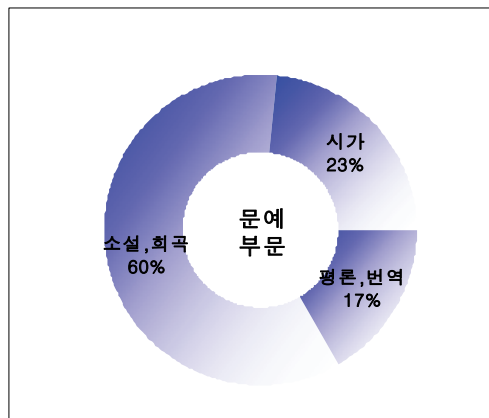
(2008년 8월 현재)

부	분과	정원	현원	과부족
제1부. 미술	제1분과 일본화		12	
	제2분과 양 화		14	
	제3분과 조 소		8	
	제4분과 공 예		7	
	제5분과 서 예		2	
	제6분과 건 축		7	
	소 계	56	45	11
제2부. 문예	제7분과 소설·희곡		18	
	제8분과 시 가		7	
	제9분과 평론·번역		5	
	소 계	37	30	7
제3부. 음악·연극·무용	제10분과 가면극(能樂)		7	
	제11분과 가부키(歌舞伎)		7	
	제12분과 인형극(文樂)		1	
	제13분과 민속악(邦樂)		5	
	제14분과 양 악		3	
	제15분과 무 용		1	
	제16분과 연 극		0	
	소 계	27	24	3
합 계		120	9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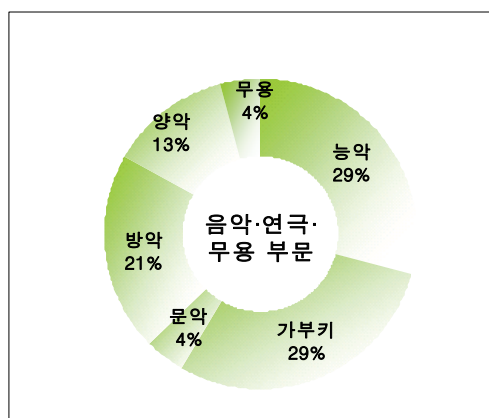
● 분과별 회원 구성비



[그림 29] 미술부문 분과별 회원 구성비



[그림 30] 문예부문 분과별 회원 구성비



[그림 31] 음악·연극·무용 부문 분과별 회원 구성비

#### 4) 회원예우 및 제복

● 연금 지급

- 연간 연금 : 원장 270만 엔, 부장회원 260만 엔, 평회원 250만 엔
- 지급 방식 : 연 4회 분할(3월, 6월, 9월, 12월)

● 회원 사망 시, 일왕으로부터 2만 엔의 조의금 증정 및 고인의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훈장 추서

● 고령회원 축하 및 기념품

- 『고령회원축하내규』에 따라 90세에 달한 회원에게는 축하와 기념품을 제공함

### 라. 주요사업

● 소장 작품전

- 예술원 회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작품 및 일본예술원상 수상작 구입 등을 통해 총 283점의 작품을 보유, 예술원 내 전시실(60~70평 규모)에서 부정기적(연 150~200일) 공개 전시

※ 2008년도 전시회

- 소장 작품전(1차 : 4.10~5.16 / 2차 : 7.1~8.8 / 3차 : 11.11~'09.2.13)
- 은사상·일본예술원상 수상 작품전(6.4~6.10)
- 소장작품 특별 공개전(10.1~10.25)
- 특별 강연회(9.27 / 11.1)

● 소장미술품 대여

- 일본 국내 미술관에 예술원 소장 미술품을 대여 전시
- 소장 작품

(2008년 8월 현재)

일본화	양화	조소	공예	서예	계
65	61	48	51	58	283

● 우에노 야마 문화존 페스티벌 참가

- 매년 개최되는 본 페스티벌에는 관련 문화단체 모두가 참가하며 일본예술원도 그 중

### 하나임

- 2008년 행사에서는 일본예술원은 소장미술작품 특별공개전과 소장 작품전을 개최할 예정임

#### ● 일본예술원 회원 강연회

- 예술원에서 회원의 무료강연회 실시(참가는 예약으로만 가능)

#### ● 기록물 제작 사업

- 『일본예술원회원기록작제위원회규칙』에 따라 예술원 회원의 예술상의 공적 등의 기록을 영상으로 작성
- 기록의 제작을 위하여 <일본예술원 회원 기록작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원장 및 원장이 각 부마다 지명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 어린이 꿈·아트·아카데미(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현재는 폐지)

- 2005년 일본예술원 미우라 슈몬 원장의 제창에 의해 시작된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어린이에게 풍부한 감성을 가지도록 하여 문화계승자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
- 회원의 출신지, 거주지 등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회원이 직접 강연 및 간단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
-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희망학교를 모집하고, 예술원이 이를 조정하여 회원에게 파견 학교를 알려줌으로써 진행됨
- 회원에게 강사 사례비 명목으로 1회 35,000엔과 왕복 여비를 지급하며, 조수가 필요할 경우 5명까지 함께 활동할 수 있음. 조수는 1회 12,500엔의 사례비와 왕복 여비를 지급받음

#### ● 예술원 전시작품 스케치 프로그램(여름)

- 무료 관람인 예술원 전시작품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스케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전시를 방문했을 때 스케치 경험이 가능하도록 스케치북, 연필 등 재료 일체를 준비하고 있음

- 예술원회원들의 예술세계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 예술원 하루 방문객 200명 정도

※ 예술원에 대한 홍보 : 의지만 있지, 실제로는 (예산이나 인력 등의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

마. 시상제도

1) 일본예술원상/은사상

- 일본예술원은 회원 이외의 자에게 탁월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작한 사람, 또한 예술진보에 공헌하는 현저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매년 일본예술원상과 은사상을 수여하고 있음
  - 일본예술원상은 1941년부터 전중, 전후의 한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수여하고 있고, 2008년에는 제64회를 수여했음. 일본예술원상에는 상장·상패·상금(100만 엔)이 주어짐
  - 은사상은 일본예술원상을 수상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출하여 주는 상으로, 은사상에는 일왕의 하사품(은병)이 주어짐
- 일본예술원상과 은사상의 수상식은 일왕과 왕비의 참여로 매년 6월에 열림

2) 수상현황(1998~2008)

구분	미술	문예	음악·연극·무용	계
61회(2004)	6 (1)	2 (1)	5 (1)	13 (3)
59회(2002)	6 (1)	4 (1)	4 (1)	14 (3)
58회(2001)	3 (1)	1 (1)	5 (1)	9 (3)
57회(2000)	5 (1)	2 (1)	3 (-)	10 (2)
56회(1999)	5 (1)	5 (1)	3 (1)	13 (3)
55회(1998)	5 (1)	2 (1)	5 (1)	12 (3)

※ ( ) 안은 은사상

바. 종합 및 시사점

1) 일본 문화정책의 방향

- 최근까지 일본의 관심은 경제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국민을 풍요롭게 하고 경제적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문화관이 변화하고 있음
- 문화정책의 변화를 보면, 2차대전 이전에는 예술문화정책과 문화재보호정책으로 구분되

었으나, 2차대전 이후부터는 각 시대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1968년 문부과학국과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한 문화청은 일본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심기구이며, 예술창조활동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의 진흥, 문화를 지탱할 인재양성, 문화를 통한 국제공헌, 문화별전을 위한 기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예술인에 대해서는 1973년 ‘예능인 연금제도’을 도입하여 무대예술분야 실연 예술인의 노후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 적립형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 일본 예술원의 특징

- 회원 예우 중심의 사업
  - 일본예술원의 주요 사업은 회원 예우 및 회원의 대외적 활동 추진, 회원 기록물 제작, 예술원상 시상 등을 중심으로 함
  - 일본에서의 예술창작 지원은 독립행정법인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를 중심으로 예술문화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문화예술진흥회>는 신(新) 국립극장 운영을 통한 일본의 현대 무대예술 진흥 및 보급, 예술문화진흥기금 운용에 의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즉 일본 내에서의 예술 창작 지원 활동은 <일본문화예술진흥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일본예술원은 회원 예우 및 회원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회원 예우에 있어서 연금이나 수당 외에 비 물질적 혜택이나 예우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일본 예술원 회원은 그 자체로 높은 사회적 명예를 얻으며, 기타 혜택이나 예우는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기초함
- 전통예술 및 순수예술 중심의 분과 구성
  - 장르적인 측면에서 일본예술원은 크게 전통예술과 순수예술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본예술원의 분과는 크게 미술, 문예, 음악·연극·무용의 3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장르별 분과의 구성을 보면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음악·연극·무용을 포함하는 제3부의 경우, 7개 분과 중 4개 분과가 각각 가면극, 가부키, 인형극, 민속학 등의 전통공연예술장르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邦樂(일

본 전통음악)”분과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최근 장르를 세분화하였음

- 전통공연예술장르(가면극, 가부키, 인형극, 민속학)의 경우, 회원의 수가 제3부 회원의 83%를 차지하는 등 예술원 내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할 수 있음
- 순수예술 중심의 분과 구성
  - 일본예술원의 장르 구분은 크게 문학, 음악, 미술로 되어 있으며, 세부 분과에는 영화나 사진, 미디어아트 등의 장르가 없이 전통예술 및 기존의 순수예술로만 이루어져 있음. 또한 회원제도 상에서도 영화나 사진 분야 예술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명예회원 제도 등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사진이나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예술장르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예술계 내의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장르의 예술가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예술원 회원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연령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추천된다고 해도 예술원 회원이 되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분과를 신설하지 않고 있음

#### ● 일본예술원의 현대적 역할 및 위상

- 당초 예술인을 예우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된 일본예술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원로예술인에 대한 예우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있음. 이러한 예우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은 입헌군주제라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일본예술원은 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국 내에서의 예술인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본 전통예술에 대한 보존 및 계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이 꿈 예술 아카데미’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회원의 경험과 지식을 전승하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 오늘날 일본예술원의 과제

- 일본예술원 회원은 예술의 정점에 달한 최고의 예술가에 해당하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문제가 있음
- 일본예술원 사무국에서도 수준 높은 예술인인 일본 예술원 회원을 외부에 알리고 진가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사무국의 인력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예술원에 대한 홍보 및 회원 활동 보조를 위해 예술원 사무국 직원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제3절

### 아카데미 보자르(Academie des Beaux-Arts)

#### 가. 일반현황

##### 1) 개요

- 아카데미 보자르는 프랑스 학사원(Institut de France)을 구성하는 5개의 아카데미 중 하나로, 대한민국예술원에 상응하는 기관임
- 프랑스 학사원(Institut de France)은 예술과 과학의 다(多)학제적 연구 발전을 위해 1795년 10월25일에 창설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5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됨
  - 아카데미 프랑세즈( Academie Francaise) : 프랑스 한림원이라고도 불리며 1635년 프랑스 추기경 뤼슐리유(Richelieu)에 의해 창설됨. 프랑스 문인들로 구성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프랑스어의 순수성을 강조 프랑스어의 연구 발전을 바탕으로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 1964년 “아카데미 사전”의 편집을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개정·발간하며 프랑스학계에 꾸준한 발전을 꾀하고 있음
  - 비명 문학원(Acade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 Lettres) : 1701년 설립 1716년 비명문학원 (Acade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 Lettres) 이라는 공식명칭을 얻음. 주로 고대문명, 중세문명, 오리엔탈 문명과 관련된 고문서, 건축물, 언어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맡고 있음. 55명의 회원, 40명 외국인 회원과 프랑스인 50명 외국인 50명, 총 100명으로 이루어진 통신원으로 구성됨
  - 왕립과학 아카데미 (Academie des Sciences) : 1699년 창설된 왕립과학 아카데미는 18세기 과학의 발전과 정계의 조언자 역할을 맡았음. 수학, 정보학, 물리, 화학 및 의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의 연구 발전을 위해 활동함
  - 정신과학 및 정치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 1795년 계몽주의 영향으로 프랑스 학사원 내 정신 및 정치학과가 설립되었으나 실제로 정신과학 및 정치학 아카데미가 창설된 것은 1832년임. 사회와 인간과 긴밀히 연관된 철학, 윤리학 및 사회학, 법률 및 판례, 통계 및 재정 경제학, 역사와 지리학과, 일반 분야



와 같은 주 6 분야를 다룸. 12명의 외국 회원과 60명의 통신원으로 구성됨. 학회 및 연구진 보고서 발간 등 프랑스 정계에 관한 조언을 담당

- 아카데미 보자르(Academie des Beaux-Arts) : 대한민국예술원에 상응하는 기관임

## 2) 설립목적 및 역할<sup>13)</sup>

- 아카데미 보자르는 프랑스 예술 발전과 예술문화유산 보호 및 홍보활동에 기여함
- 일반교육에 있어 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예술전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한 국외 예술가들과의 관계 발전 도모
-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유증과 기부를 통해 얻은 예술 문화작품관리 및 재단을 경영하는 동시에 메세나 활동 전개 장학제도 및 수상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박물관 관리, 각종 콩쿠르 및 예술가들을 지원함(매년 100만 유로)
- 해외에 벨라스케스의 집과 같은 프랑스 예술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새로운 예술 경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함
- 과거의 예술유산을 보존하고 동시에 현대적 예술 창조활동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이에 기여함

## 3) 연혁

- 아카데미 보자르는 1648년에 설립된 왕립 아카데미(회화 및 조각)와 1666년 르브룅과 콜베르 재상의 건의에 따라 이탈리아 로마에 설립된 프랑스 아카데미에 기원을 두고 있음
- 1816년, 시행령에 의해 3개의 기관<sup>14)</sup>을 합쳐 정회원 50명(프랑스인), 준회원 10명(외국인), 통신회원 4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191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 ‘벨라스케스의 집’을 설립

13) 아카데미 보자르 1998년 6월 8일 법령에 근거

14) Academy of Painting and Sculpture(1648에 설립), Academy of Music(1669에 설립), Academy of Architecture(1671에 설립)

- 1935년 영화 및 시청각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2005년 5월에 사진분과를 신설하여 총 8개 분과로 이루어짐
- 현재 아카데미 보자르는 전통을 보존하고 모든 예술 장르의 발전을 꾀하는 프랑스 현존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 예술기관임

#### 4) 청사

- 아카데미 보자르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네 마르모탕 미술관, 지베르니 모네의 집, 빌라 에프루시 드 로스차일드 등의 박물관 및 재단을 운영 관리하고 있음
- 마르모탕 미술관
  - 마르모탕 미술관은 현존하는 모네 작품의 최대 소장처
  - 1934년에 설립되어 1966년 모네의 차남인 미셸 모네의 기증 작품으로 인상주의 미술관으로 탈바꿈하였음. 국보급 작품으로 해외 반출이 금지된 인상주의의 대표작품 〈인상, 해돋이〉를 소장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지베르니 모네의 집
  - 1966년 클로드 모네의 아들 미셸 모네가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지베르니 정원과 아틀리에를 프랑스 보자르 아카데미에 기증하여 현재와 같이 일반인에게도 공개됨
  - 모네의 작업실 공개를 통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로써 예술원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음
- 마르모탕 도서관
  - 1932년 폴 마르모탕이 아카데미 보자르에 자신의 개인 저택을 기증함
  - 연구, 컨퍼런스실, 공연실을 갖추는 등 현대에 맞게 재보수하여 1996년부터 다시 문을 엮
- 빌라 에프루시 드 로스차일드
  - 프랑스 남부 꼬뜨 다 쥐르에 위치한 1934년 아카데미 보자르에 기증된 저택으로 벨에포크의 예술과 동서양의 예술적 감수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건축물임
- 뤼싸(Lurcat)기증회
  - 아카데미 보자르의 회화분과 회원이었던 Jean Lurcat(1892-1966)의 부인 Simone Lurcat가 창설한 뤼싸 기증회는 회화품, 석판화 및 회귀본 등 기증된 여러 예술품 및

장 뒤사의 예술품을 전시하고 장 뒤싸 관련 소장 예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

5) 재정 현황

- 아카데미 보자르의 재정은 박물관 운영과 개인 후원 등으로 이루어짐
  - 마르모탕, 지베르니의 집 등 박물관에서 운영수입을 얻기는 하지만, 박물관의 운영 자체가 상업적 목적을 취하지는 않음
- 아카데미 보자르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적 재정적 지원은 없음
  - 대통령 보호 아래 있는 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독자적 기구로서 보자르의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개입도 받지 않음
  - 단, 회의참석을 위한 교통비 등 특별수당 목적으로 정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고등교육부 부처 예산에서 지급됨

나. 조직

- 아카데미 보자르의 조직은 사무국과 행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이루어짐
- 기구

기구	주요내용
사무국	구성 : 사무국장, 의장, 부의장 등 사무국장(종신제) - 모든 행정 책임을 지고 대표성을 갖고 있음 - 비밀투표를 통해 다수결 선출 - 후보자는 7개 분과 각 대표 1인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결정
행정위원회	구성 : 2인 - 매년 사무국을 비롯하여 아카데미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재임 가능
특별위원회	규제위원회, 독서위원회, 사전위원회, 예술교육위원회, 메디시스 빌라위원회 등

## 다. 회원

### 1) 회원구분 및 자격

회원구분	자격
정회원	프랑스 국적을 가진 25세 이상의 예술가 또는 예술분야 관련인사 아카데미 보자르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어야 함 ※ 법령에서는 회원 최소 제한 연령을 25세로 하고 있지만 예술계에서 매우 저명한 예술인들을 선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선출되는 회원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예술활동을 많이 한 50-60세 이상이라 할 수 있음
준회원	외국인 회원
통신회원	미술역사가 및 예술계 후원자 또는 아카데미 보자르 분과에 속하지 않는 예술분야 아티스트 및 세계 예술 문화계 유명인사

### 2) 회원선출 및 임기

-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을 통해 선출되며 회원 선출은 유효표의 절대 다수자로 결정됨
- 정회원
  - 아카데미 보자르 의장에 의한 회원 공식 발표 후 각 분야의 후보자를 받아 분과별로 분류한 후 총회 시 투표에 붙여짐
  - 추천된 후보자는 총회 개시 이전 자신의 작품을 아카데미 보자르에 제출해야 함
  - 신입회원 선출을 위한 의사 정족수는 현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이 되어야 함
  -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신입회원 선출을 연기할 수 있음
- 준회원
  - 준회원 후보 결정을 위해 보자르 분과별 대표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보자르 회원들의 후보 추천을 수렴함
  - 선출위원회는 추천된 후보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공지한 후 회원 선거를 위해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함
  - 준회원 선거 시 정족수는 현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이어야 하며, 절대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됨

- 후보가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투표는 2주 후에 다시 시행됨
- 선출된 준회원은 신원 서류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함

● 통신회원

- 통신회원 후보를 추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예술원 회원은 해당 추천자에 대한 소개서를 아카데미 보자르에 제출하며, 소개서는 각 해당 분과에 전달됨
- 각 해당 분과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아카데미 보자르에 제출한 후 총회에서 비밀투표와 절대 다수결에 의해 회원 선출이 결정됨
- 아카데미 보자르의 통신회원의 수는 정회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일 경우 신원서류를 외교통상부에 신원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원입기 : 종신제

3) 회원 현황

● 아카데미 보자르 회원 현황

(2008년 현재)

구분	인원
정회원 : 프랑스인	57
준회원 : 외국인	16
통신회원 : 프랑스인 및 외국인	55
계	128

● 정회원 현황

분과	정원	현원
회화분과	10	9
조각분과	8	7
건축분과	9	7
판화분과	4	4
작곡분과	8	7
기타 자유분과	10	6
영화 및 시청각분과	6	5
사진분과	2	2
계	57	47

- 기타 자유분과 : 아카데미 보자르 후원자, 박물관 관장, 공연장 대표 등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본업은 의사이나 문학창작활동이 활발한 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4) 회원 예우 및 제복

- 사무국장 지정 및 임명 시 선거권 부여
- 콩쿠르의 심사위원 참여 기회 부여
- 아카데미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상징적 의미로서 특별수당 지급
  - 매월 300~350 유로
  - 아카데미 보자르 회원은 명예직으로서 공식적 급여를 받지 않으나, 1주일에 한번 열리는 아카데미 보자르 회의 참석을 위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특별수당이 지급됨
  - 특별수당 지급을 위해 회의 참석 시 회의참가 출석을 체크함
- 회원 제복 : 녹색의복
  - 오스트리아 깃털로 장식된 이각모와 검은 비단 직물에 진녹색 수를 놓은 의복임
  - 통신회원을 제외한 정회원, 준회원에게만 한정됨
- 회원 사망 시 아카데미 보자르 공식 장례절차 진행
  - 회원 사망 시 아카데미 보자르 주최로 장례를 진행하며 사무국 직원과 해당분과 회원 및 타 분과 대표가 장례식에 참석
  - 장례식 참석 시 고인 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보자르 예복 착용은 의무사항임
- 준회원의 경우
  - 아카데미 보자르 주최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선거권 및 아카데미 주최 시상 및 콩쿠르 심사권한은 부여받지 못함
  - 준회원은 특별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과학, 문학, 예술과 관련한 토론장에서의 발언권이 주어짐

## 라. 주요사업

### ● 예술창작활동의 권장

- 다양한 경연대회와 수상제도를 두어 아티스트의 지원을 돕고 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함
- 장학제도를 통한 청년 아티스트 후원 : 매해 100명의 젊은 아티스트 활동을 후원(350,000유로 지급)
- 매해 두 번 15명의 아티스트를 선발하여 파리 근교 아카데미 보자르 소유지인 Chars (아뜰리에 숙박시설 마련)에서의 체류기회 제공 및 보조금 지급
- Cite international des arts , Loumarin 성 및 La Pree수도원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프랑스 여러 지역에 아티스트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류시설 지원
- 빌라 메디치<sup>15)</sup>와 벨라스케스의 집<sup>16)</sup>에서의 체류 및 창작, 연구 활동 지원
- 고등예술교육 이외에도 초중고생과 성인들에게 예술창작의 입문과 실기 교육 지원

### ● 정책자문 및 컨설팅 역할

- 정부 및 여러 협회 관련 분야에 대한 고문역할을 담당
- 예술교육, 문화재 복원 및 보존, 예술가의 사회적 보장 등 아카데미 보자르가 관계되는 각 영역에 대해 조언 및 권고
- 유네스코와 국제예술촌, 국립미술관회의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도 컨설팅 수행
- 정부나 언론에 대해 특정문제의 의견 개진

### ● 이론적 기반 구축

- 보자르 발전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파악과 이론적 고찰을 위해 매주 수요일 회원간 회의를 개최. 외부인사 초청하기도 함. 이를 통해 회의 주제 관련 논문과 백서를 발간함
- 아카데미 보자르 “아카데미 토론의 장” 블로그 창설 : 예술과 관련한 주제로 아카데미 회원들간 토론내용을 참고하고, 개인적 의견 개진 가능

15) 1803년 설립 이후 현재 문학, 사진, 영화, 디자인, 요리 등 11개 문화예술부문의 아티스트를 선발하여 아티스트의 체류 및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임. 아카데미 보자르는 2007년부터 사진 분과 아티스트를 선정, 빌라 메디치의 체류비용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아카데미 보자르에 의한 선정 기준은 20세 이상 25세 미만의 프랑스어권 또는 이태리 국적을 가진 아티스트로 최대 체류기간은 2년, 체류 가능 회원 수는 22명이며 체류 수당은 현재 2650유로~3500유로 사이에서 지급됨.

16) 벨라스케스의 집은 문화, 과학 발전을 위한 공공 기관으로서 프랑스 교육연구부 소속의 국외 프랑스 학교임. 문화 예술 관련 창작활동 발전과 프랑스-이베리아 국가 간 과학예술교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창립 80주년에 해당함. 아카데미 보자르는 벨라스케스의 집 아티스트 선발 공쿠르를 주최하며, 벨라스케스의 집에서 체류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매해 9월 파리에서 아카데미 보자르 주최로 전시하고 있음.

- 매해 아카데미 보자르 매거진 발간
- 각종 컨퍼런스 개최

● 문화재보호

- 주요 박물관 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아카데미 보자르가 관리·담당하는 재단 및 박물관의 공공 또는 개인 예술품들을 관리함
- 프랑스 문화 예술 유산이 위험에 처해있을 시 프랑스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함(예 : Reims 성당 복구 Bouvignol 국립공원 보존 등)

● 박물관 및 재단 운영

- 마르모탕 모네 박물관 로스차일드 에프루시 빌라 뒤프란재단 끌로드 모네 재단 운영

마. 시상제도

〈표 45〉 프랑스 예술원 시상제도

(단위 : 유로)

부문	시상	분야	시상개요	상금
경쟁부문 (Competitive Prize)	Grand Prize for Architecture (건축그랑프리)	건축	- 1975년 이후 35세 이하 건축학도 및 건축가를 대상으로 수여 - 2002년부터 HP社가 모든 기술적 장비 지원	25,000~5,000
	The Pierre David-Weill Drawing Prize	미술	- 국적 상관없이 프랑스 거주 1년 이상 된 자 중 30세 이하 작가를 대상 시상 - 수상자 외 10명 추가 선정 전시회 개최	6,100(1등) 2,285(2등) 1,525(3등)
	The Prize for Photography	사진	- 2007년 프로사진가 활동 장려 목적 - 연령 제한 없이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사진가를 대상 - 수상자는 다음 해 프로젝트 마련해야 함	15,000
	Grand Prize Jean-Louis Florentz for Organ	음악	- 2002년 프랑스 유명 음악원의 청년 - 오르가니스트들을 대상으로 시상 - 2005년부터 회원이었던Jean-Louis Florentz의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음	4,500
	Prize of Cercle Montherlant	문학	- 2002년 이후 예술 서적 편찬 작가를 대상으로 시상	10,000
	Prix litteraires	문학	- 2002년 이후 문학작품 대상 시상	1,000
	Prize Lurcat	문학	- 2005년, 예술서 희귀본을 대상으로 시상	7,500
	Entry competition for the Casa Velazquez		- 프랑스 교육 연구부에 속한 벨라스케스의 집(마드리드) 의 경영 및 연수자 선정을 위한 입학 콩쿠르	
공로상 (Achievement Prizes)	The Liliane Bettencourt Choral Singing Prize	음악	- 1990년 Liliane Bettencourt 와 보자르 회원인 그의 남편에 의해 설립 - 합창곡을 대상으로 함 - 우승자는 아카데미 공회 초청 연주	40,000
	The Simone and Cino del Duca	음악 미술	- 1995년 아카데미 회원 Simone del Duca에 의해 신설 - 회화 및 작곡분과는 45세 이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함	분과별 50,000 (매년)



부문	시상	분야	시상개요	상금
	Foundation Prize and Scholarship		- 작곡분과는 3년 주기로 2년은 프랑스 작곡가를, 1년은 국적 무관 프랑스어 사용 작곡가 대상으로 함	청소년에게 별도 50,000유로 장학금 지급)
	Prix Pierre Cardin	전분야	- 아카데미 보자르 회원인 피에르 까르탱에 의해 1993년 신설	총 7,623
	Prix Francois – Victor Noury	영화 및 시청각	- 아카데미 회원 중 영화 및 시청각 분과 회원을 대상으로 함 - 프랑스 학사원 후원	

바. 종합 및 시사점

1) 프랑스 문화정책의 방향(정부주도형 문화부 모델)

- 프랑스에서 국가차원의 문화정책은 문화공보가 창설된 1959년에 시작되었음
- 1981년 ‘문화의 국토개발정책 아래 문화행정의 지방자치를 추진하여 예술인 양성, 교육 기관 창설, 학교 예능교육 강화, 국가 문화행정 영역 확대, 외국문화의 체계적 도입 및 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하였음
- 프랑스 문화정책에 있어서 특징은 예술인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접근인데, 공연예술 비정규직에 대한 실업급여제도인 ‘앵페르미땅 제도’, 개인활동 중심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의 집, 작가사회보장협회 등을 통한 사회보장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그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 전국 국립박물관 무료 관람카드를 발급하거나 법률지원서비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2) 프랑스 예술원(아카데미 보자르)의 특징

- 프랑스 예술계에서의 아카데미 보자르 역할 변화
  - 17세기 창설된 아카데미 보자르는 19세기 까지 수세기에 걸쳐 발전된 예술세계를 지키고 고수하는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어 예술의 공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시대의 경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예술을 인정하는 혁신적인 아카데미 보자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함
  - 21세기 들어와 1985년 영화 시청각분과 및 2005년 만들어진 사진분과는 새로운 예술 창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되어짐

- 그 결과 오늘날 아카데미 보자르는 전통을 수호하는 동시에 예술적 표현의 창조를 강조, 예술 창조 활동을 지원하면서 현대 예술의 꾸준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 오늘날의 예술경향 파악

- 아카데미 보자르는 여러 경연대회 주최를 통해 심사위원단과 함께 직접적으로 예술 창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 파악함. 현재 실제로 벨라스케스의 집 (프랑스 교육 연구부 소속 마드리드 고등교육 기관) 입학 콩쿠르를 주최하고 건축 및 사진 경연대회를 주관하면서 현대 예술 표현을 파악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이러한 현대 예술 창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상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티스트 200명을 대상으로 단기적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함 동시에 아카데미 보자르 자체적으로 또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젊은 아티스트 양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체류시설을 마련해 줌
- 아티스트의 예술 활동 지원 뿐 아니라 아티스트의 교육에도 힘쓰고 있음. 그 예로 현재 아카데미 보자르는 벨라스케스의 집 행정고문을 맡고 있고 아티스트 선발에도 참여하며 이들 연구생의 작품 전시회를 매해 주최하고 있음

#### ● 아카데미 보자르 재정

- 아카데미 보자르는 여러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고 유증과 기부를 통해 벌어진 수익과 마르모탕, 지베르니, 에프루시 박물관 운영 수익으로 예술 지원 활동을 함

#### ● 프랑스 내 아카데미 보자르 위상

- 2006년 4월 법에 따라 프랑스 대통령 보호 아래 있던 아카데미 보자르가 자체 행정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공식 인정됨
- 아카데미 보자르는 예술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활동을 보충하는 역할을 함. 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정부 예술 고문 역할을 맡는 아카데미 보자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카데미 보자르 자체적으로 대규모 풍력 발전소 건설이 프랑스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들 임무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 회원 예우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아카데미 보자르에 선출된 회원은 프랑스 예술계의 명예직으로 회원으로서 받는 수당을 제외하고는 기타 혜택은 존재 하지 않음. 또한 아카데미 보자르에서 이뤄지는 회원

으로서의 역할 외에 다른 개인 활동 사항은 아카데미 보자르와는 무관한 개인적 예술 활동을 전개함

- 2006년 5월, 사진을 프랑스예술원의 한 분과로 인정할 것이냐는 10여년 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진분과 회원 2인(뤼시앙 클레르그, 얀 아르튀스-베르트랑)을 회원으로 선정하였음. 이는 ‘사진’을 별도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보고 해당 분과를 구성하기 위한 조치. 이에 따라 회화, 음악, 조각, 건축, 영화·시청각 예술창작, 판화, 자유회원(문화예술계 주요인사)에 ‘사진’을 추가하여 총 8개 분과로 이루어지게 됨. 이러한 측면은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구성의 폭을 넓히려는 외부의 비판에 대응함에 있어 시사점을 주고 있음

제4절

미국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가. 일반 현황

1) 설립 목적 및 역할

- 문학과 예술의 진흥을 장려하고 연방정부의 예술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상제도 마련 등의 활동을 통해 문학 및 예술의 활동을 촉진
- 설립 당시 예술 및 문학 진흥을 위한 회원규범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각 분과에서의 기념할만한 작품 활동
  - 훌륭한 문학 작품의 전통 보존
  - 새로운 기조의 문학 · 예술 작품에 대한 개방적 태도

2) 연혁

- 1898년 National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 설립 이후 1904년 내부 조직으로서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설립
- 1910년 이후 두 조직은 각각 별도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독립 운영
- Institute 와 Academy 두 기관의 독립적 운영에 대해 회원의 정체성 논란 및 회원 간 대립의 문제, 외부(정부나 국회, 일반 대중)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역할의 혼란 등의 문제로 1976년 두 기관을 통합하여 지금에 이름

연 도	연 혁
1898년	American Social Association(1865년 설립)의 분과조직으로서 National Institute of Arts, Science and Letters 설립
1900년	명칭에서 Science 제외, National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로 명칭 변경
1904년	National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 내 프랑스 아카데미(Academie Francaise)를 모델로 한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설립 총 회원 수 150명 (Academy 회원 30명)
1907년	총 회원 수 300명으로 증원(50명의 Academy 회원 포함)
1913년	National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 독립 법인화 법률 의회 승인

연 도	연 혁
1916년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독립 법인화 법률 의회 승인
1976년	National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 와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하나의 비영리 법인으로 통합
1976-1993	American Academy and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 명칭으로 운영 회계 관리 시스템 단일화 회원 관리 시스템은 Academy와 Institute 각각 별도로 운영
1993년 이후	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이던 회원 시스템 통합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로 명칭 변경

3) 청사

● 아카데미 청사는 Audubon Terrace Historic District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제3청사와 제1청사(사무국 빌딩) 3층의 갤러리 사이에 유리로 된 연결 통로를 건설하여 청사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였음

① 제1청사(사무국 건물)

- 중앙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하며, 사무국 사무실, member's room, 초상화 갤러리, 도서관, 아카데미의 남쪽 갤러리를 포함한 전시 공간이 있음
- 1923년 William Mitchell Kendall의 디자인으로 완성됨
- 사무국 빌딩 입구의 청동문은 회원인 Adolph A. Weinman에 의해 디자인(1938년)되었으며, 아카데미의 최초 여성회원인 소설가 Mary E. Wilkins Freeman에게 헌정됨

② 제2청사

- 사무국 건물과 마주한 두 번째 청사는 북쪽 갤러리, 넓은 자연채광 전시 공간, 730석의 강당(아카데미의 annual ceremonial 공간)을 두고 있음
- 1930년 Cass Gilbert의 디자인에 의해 완성됨

③ 제3청사

- 아카데미의 갤러리, 아카이브, 도서관, 사무실 확충 등을 위해 2005년에 구입한 것으로, 원래는 American Numismatic Society(미국 화폐학 협회)의 청사였음
- 청사 건물의 동쪽 편은 Audubon Terrace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건물로서 Charles Pratt Huntington의 디자인으로 1907년 완성되었으며, 서쪽 편은 1930년에 완공되었음

- 아카데미의 북쪽과 남쪽 갤러리 청동문은 회원이었던 Herbert Adams가 디자인하여 1930년에 완성된 것으로, 청동문에는 각각 미술, 문학, 시, 음악, 회화, 조각 등을 상징하는 고전적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음

#### 4) 예산

- 회원은 일년에 한번씩 일정금액의 연회비를 지불해야함(1900년대 당시 \$5)
- 주된 운영 자금은 개인 재력가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짐
  - 통합 이전 Institute에 대한 기부는 운영에 필수적 재원만을 마련할 정도로 미미함
  - 통합 이전 Academy에 대한 기부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규모임
  - 1920년대 당시 Academy 기부금 규모는 년당 평균 \$400,000 이며,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오늘날 2300만 달러 정도에 해당함
- 1976년 기관 통합 이후 아카데미 기부금에 의한 자산을 중심으로 회원 납부금 등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나. 조직

- 아카데미의 운영은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짐
- 사무국 임원은 위원회 소집 및 회원 관리사항, 사무국 직원 고용을 담당함
- 두 기관 통합 이후 회계 관리 담당 임원은 단일화함
- 두 기관 통합 이후 1993년까지 Academy의 임원 5명, Institute의 임원 4명이 해당 기관의 회원시스템을 각각 별도로 관리해 옴
- 1993년 회원 시스템 단일화 이후 사무국 임원의 구성은 11명으로 아카데미 회장, 8명의 부회장, 서기관, 회계담당으로 이루어짐

다. 회원제도

1) 회원 구분 및 자격

회원 구분	자격 및 정원
일반회원	- 250명 정원
외국명예회원	- 1929년 외국명예회원제도 신설 - 신설 당시 정원은 50명, 1969년 75명으로 증원 - 신규 회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없음
미국명예회원	- 1983년 미국명예회원제도 신설 - 10명 정원 - 아카데미 분과인 미술, 문학, 음악 분과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서 큰 업적이나 공헌을 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함 - 신규 회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없음

2) 회원 선출 및 임기

- 분과회원의 후보자 추천과 총회 비밀투표로 신입회원 선출
- 임기는 종신제

3) 회원 현황

- 정원 및 현원

구분	일반회원 (정원 : 250명)	외국 명예 회원 (정원 : 75명)	미국 명예 회원 (정원 : 10명)
문 학	117 명	41 명	10 명 (분과구분 없음)
미 술	81 명	13 명	
음 악	44명	17 명	
계(현원)	241 명	71 명	10 명

- 미술 분과는 회화, 조각 및 비주얼 아트와 건축가 등을 포함
- 문학 분과는 극작가, 시인, 소설가, non-fiction 작가 등을 포함
- 음악분과는 연주가 및 각종 음악 장르의 작곡가 등을 포함
- 미국 명예회원은 영화, 출판, 발레와 무용, 사진 등 최근 예술 분야로 인식되는 부문을 대상으로 함

● 일반회원 분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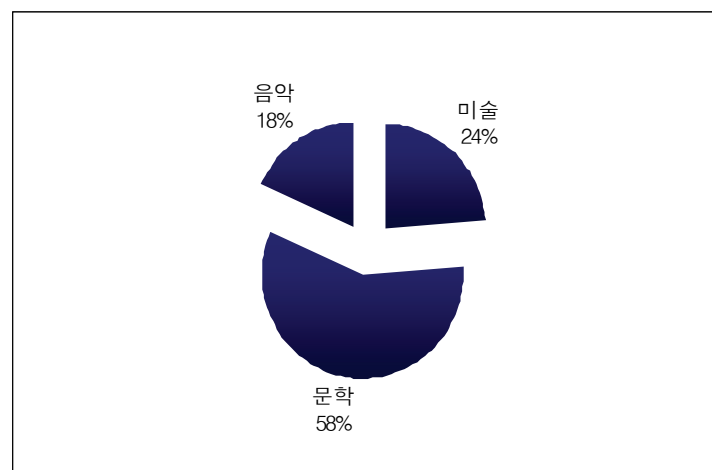
– 평균 재임기간 : 16.7년



[그림 32] 미국 예술원 분과별 일반회원 현황

● 외국 명예회원 분과별 현황

– 평균 재임기간 : 1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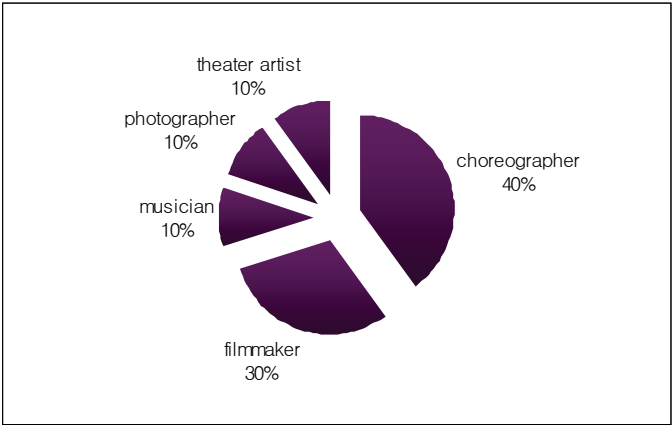


[그림 33] 미국 예술원 분과별 외국회원 현황

● 미국 명예회원 분야별 현황

– 평균 재임기간 : 11.4년





[그림 34] 미국 예술원 명예회원 분야별 현황

● 유고회원 현황

구분	일반회원	외국 명예 회원	미국 명예 회원
문 학	389 명	40 명	17 명 (분과구분 없음)
미 술	526 명	108 명	
음 악	101 명	32 명	
계	1,016 명	180 명	17 명

- 미국 명예회원 분과구분은 없으나 유고회원의 활동 분야는 안무가, 영화제작자, 음악감독 및 지휘자, 음악학자, 재즈 뮤지션, 사진가, 출판업자 등임

4) 회원 예우 및 제복

- 회원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으며, 회원들은 선거권 및 각종 상의 수상자 선정권을 통해 명예와 권위를 가짐
- institute와 academy 통합 이전 academy 회원에게만 와이셔츠 커프스 단추, 회원 이름을 새긴 의자, 기념 열쇠 및 상징메달 등이 주어졌으나 기관 통합 이후 이러한 사항들은 없어짐

## 라. 주요 사업

### 1) 전시 프로그램

- 아카데미 주최로 1년에 두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두 전시회의 관람료는 모두 무료임
- Invitational Exhibition of Visual Arts(초대 미술전)
  - 매 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개최
  - 현대 미술 작가 30여명 가량의 작품을 전시
  - 초대되는 작가는 아카데미 주최 시상의 수상자이거나 아카데미의 작품 구매 사업 대상자임
- 신규 회원 및 수상자 작품 전시회
  - 매 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개최
  - 미술, 건축 작품, 책, 원본 초고, 작곡가의 자필 악보 등을 전시

### 2) 출판

- 아카데미의 재원으로 회보, 회원 명부, 아카데미 설립 조항 및 허가서, 아카데미 내규, 아카데미 주최 각종 행사의 연설문, 행사 열람표 등의 출판물을 출간함
- 아카데미 100주년 기념 출판물 “A Century of Arts and Letters”
  - 1998년도 아카데미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Columbia 대학에서 출판
  - 10년 간격으로 아카데미의 역사를 구분하여 회원의 구술을 바탕으로 책으로 엮음

### 3) 기록물 수집 및 관리사업

- 회원의 초상화, 사진과 회원 작품인 회화, 조각, 판화, 인쇄물 등을 아카데미 소유로 소장함
- 아카데미 사무국 건물의 사진 전시관에는 1898년도부터 모든 회원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음(2008년 8월 현재, 미국 인상파 화가인 Childe Hassam의 작품 전시중)
- 아카데미 도서관은 회원의 작품이나 회원과 관련된 서적 25,000권 가량을 보유

- 아카데미 기록물 보관소에는 과거 회원 관련 사항, 신문 스크랩 자료, 기관에 대한 기록, 음악이나 문학 분과 회원의 자필 악보나 원고 등을 보관하고 있음
- 아카데미 소장 자료는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신분이 공적으로 보장된 학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

마. 시상 제도

- 해마다 아카데미에서는 작곡가, 미술가, 건축가, 작가 등 50명 이상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상금은 상의 종류에 따라 최소 5,000 달러에서 최대 75,000 달러까지 주어짐
- 수상자는 아카데미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선정되며, 수상 후보자는 반드시 아카데미 회원에 의해 후보로 추천되어야 함
  - 상 종류 중 Richard Rogers Awards는 회원의 추천 없이 지원서 제출이 가능한 유일한 시상 제도임
- 아카데미 회원은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미국 아카데미의 시상제도 현황

〈표 46〉 미국아카데미 시상제도

(단위 : 달러)

시상	분야	시상개요	상금
Academy Awards	미술 문학 건축 음악	- 1941 미술창작진흥 위해 설립된 이후 1년에 한번씩 5명의 미술가, 4명의 작곡가, 3명의 건축가에게 시상	7,500 (작곡가 7,500 추가지급)
Gold Medals		- 1950년부터 각 분야별로 돌아가며 2개의 메달 수여 - 대상 분야는 각각 순수문학과 비평문학, 회화, 전기문학과 음악, 소설과 조각, 역사의 건축 등으로 짜지어짐	
Michael Braude Award	문학	- 2년에 한번씩 영문 시 작가를 대상으로 시상(국적 무관)	5,000
Benjamin H. Danks Award		- Benjamin H. Danks를 기리기 위해 아들이 시상제도 마련 - 1년에 한번씩 작곡가, 극작가, 작가 등 대상 시상	20,000
E. M. Forster Award		- 외국명예회원E. M. Forster의 사후작품 로열티 기증으로 설립 - 미국 거주 젊은 영문작가 시상	15,000

시상	분야	시상개요	상금
The William Dean Howells Medal		- 1925년 신설, 5년에 한번씩 시상 - 시상일 기준 5년 내 출판된 미국소설 대상	
Sue Kaufman Prize for First Fiction		- 1979 작가 Sue Kaufman 기리기 위해 설립 - 시상전년도 출판 신인작가 작품 대상으로 시상	5,000
Katherine Anne Porter Award		- 2001년 아카데미 회원 Katherine Anne Porter의 재산기증으로 설립 - 2년에 한번씩 작가를 대상으로 시상	20,000
Arthur Rense Prize		- 시인 Arthur Rense를 기리기 위해 미망인의 기증으로 1998년 설립 - 3년에 한번씩 시인을 대상으로 시상	20,000
Rome Fellowship in Literature		- 해마다 두명의 젊은 작가 선정, 아카데미 로마지부에서 1년간 거주기회 및 보조금 제공	
The Mildred and Harold Strauss Livings		- 1981년 Strauss living fund 설립 - 해마다 작가 두명 선정, 5년간 지급	50,000
Harold D. Vursell Memorial Award		- 시상시기 기준 최근 출판된 산문 작품 대상으로 시상	10,000
Morton Dauwen Zabel Award		- 2년에 한번 진보적, 독창적, 실험적 경향의 문학작품 대상으로 장르별로 돌아가며 시상	10,000
Jimmy Ernst Award	미술	- 작품활동에 헌신적인 화가나 조각가를 대상으로 시상	5,000
Hassam, Speicher, Betts, and Symons Purchase Fund		- 아카데미 회원들의 작품기증으로 마련된 기금 - 기증 작품 판매수입으로 화가 작품 구입 후 작품을 박물관에 기증	
Metcalf Award	미술 문학	- 아카데미 회원 Wilard L. Metcalf의 아들이 유산기증으로 설립 - 2년에 한번씩 젊은 미술가와 작가를 대상으로 상금 지급	10,000
Award of Merit		- 1942년 설립 후 회화, 소설, 조각, 시, 드라마 등을 대상으로 분야는 해마다 돌아가며 선정	10,000 (메달 별도)
Rosenthal Family Foundation Awards		- 시상 전년도 소설작품과, 수상경력 없는 젊은 화가를 대상으로 각각 시상	5,000
Arnold W. Brunner Memorial Prize	건축	- 1955년 이후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시상(국적 무관)	5,000
Marc Blitztein Award	음악	- 아카데미 회원 Blitztein를 기리기 위해 친구가 상금을 기부 - 작곡가, 작사가 등 음악극 창작 진흥 기여자를 대상으로 시상	5,000
Walter Hinrichsen Award		- 미국의 중견 작곡가 작품 대상	
The Charles Ives Awards		- Charles Ives의 미망인이 남편작품의 사후 로열티를 기증하여 설립 - 1998 the Charles Ives Living은 젊은 작곡가에게 3년동안 보조금 지급	7,500 (장학금 15,000 (fellowship) 50,000

시상	분야	시상개요	상금
		- 2008 Charles ives Opera Prize 신설	(오페라 대상)
Wladimir and Rhoda Lakond Award		- 1987년도 작곡 공부 학생이나 작곡가 대상으로 설립	5,000
Goddard Lieberman Fellowship		- 1978년 이후 1년마다 젊은 작곡가 2명 선정 후 fellowship 제공	15,000
Richard Rodgers Awards for Musical Theater		- 1978년 이후 공연제작비용 전반을 지급하는 시상제도 - 유일하게 외부 지원이 가능한 시상	
Award for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Arts	기타	-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문화예술 서비스 분야에 공헌한 자를 대상	1,000
Medal for Spoken Language		- 예술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시상	

마. 종합 및 시사점

1) 미국 문화정책의 방향(민간주도형 국가예술기금 모델)

-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문화외교’ 정책과 ‘재난경영’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음
- 미국 문화정책의 트렌드
  - 1930년대 이전 : 경제적 희생 차원에서 예술프로그램이 이루어짐
  - 1950-60년대 : 냉전시대 외교정책수단으로 예술이 활용됨. 점차 주정부 및 지역과 지방예술기관의 능력과 영역, 자원이 확대되어 연방정부와 협력적 연계 강화
  - 1990년대 이후 : 지원의 분산화, 다양화 및 세분화를 기본원칙으로 함. 예술 및 문화가 시민의 삶,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확대에 초점을 맞춤
- 미국의 문화정책과 인프라는 문화예술행정기관들과 연방정부와의 파트너십으로 형성되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
- 문화정책의 중심기관은 국립예술기금(NEA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로서, 각 지역 문화예술행정기관이 연방정부와 독립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예술지원정책인 NEA 기금은 예술인 개인보다는 단체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예술인에 대한 정책은 지방정부 예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예술가를 위한 기술적 지원, 마케팅,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2) 미국 예술원의 특징

- 미국예술원(Academy of Arts and Letters)의 가장 큰 특징은 시상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시상의 종류는 총 27개(비정기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30개 이상임)이며, 이들은 기부나 후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27개의 시상제도 중 일반 개인, 아카데미 회원, 기타 재단의 기부나 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시상제도는 13개에 해당함
  - 유고회원의 유족에 의한 기부, 회원 본인의 기부로 운영되는 시상제도
    - 음악부문의 Marc Blitzstein, The Charles Ives Awards 등
    - 문학부문의 E. M. Foster Award, Katherine Anne Porter Award 등
    - 미술부문의 Hassam Purchase Fund, 문학미술부문의 Metcalf Award 등이 있음
  - 일반 개인 기부나 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시상제도
    - 문학부문의 Benjamin H. Danks Awards, Arthur Rense prize 등
  - 재단의 후원 및 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시상제도
    - 음악부문의 Walter Hinrichsen Award, Goddard Lieberman Fellowship 등
    - 문학부문의 The Milred and Harold Strauss Living 등
    - 문학/미술부문의 Rosenthal Family Foundation Awards 등이 있음
- 전시사업의 활성화
  - 아카데미 운영 시상제도의 수상자 및 신규 회원 작품의 주기적 전시
  - 미술 작품의 경우, 아카데미 작품 구매 사업 대상이 되는 작가의 작품을 포함함
  - 전시 대상은 미술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작가의 원본 초고, 작곡가의 자필 악보 등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함
  - 이는 전시 대상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기록사업의 체계화 및 활성화
  - 아카데미는 회원의 작품 뿐 아니라 회원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관함

- 이에는 회원 관련 사항, 신문 기사 자료, 작가나 작곡가의 자필 원고와 악보 등이 해당함
- 아카데미의 기록 수집 및 관리 사업은 기록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음

#### ● 재정운영 상의 특징<sup>17)</sup>

- 아카데미의 주된 운영 재원은 민간의 기부금이며, 정부 예산의 지원은 없음
-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기는 하나, 기부금 액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조성된 재원은 사무국 운영비, 연초와 연말 회원 ceremony 진행, 사업 진행 등의 비용으로 주로 사용됨
- Institute와 Academy가 구분되어 있을 당시, 아카데미 회원에 대한 특전으로서 교통비 지급 등의 사례는 있으나, 설립 이후 주기적 회원 수당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사항들은 사업별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함

#### ● 회원 분과 구분에 대한 논의

- 기존 문학, 미술, 음악 분과 외에 예술 장르가 다변화되면서 회원 분과 구분에 대한 논의가 존재해 왔음
- 예를 들면 사진 분야에 대해 “과연 예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쟁<sup>18)</sup>이 지속되어 왔음
- 수많은 논의 후 사진, 재즈, 출판, 영화 관련 분야를 기존 분과 내로 포함시키지는 못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미국 명예회원〉 제도를 만들어 아카데미 회원으로 포섭하고 있음
- 예술 장르 다변화의 현실 속에서 분과 구분 개편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회원 선출 절차에 대한 논의

- 분과별 회원의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신규 회원 선출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17) 『A Century of Arts & Letters』,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 1998

18) 『Those who were not artists believed that photographers should be included, but within the dual election system it was impossible an answer to “What is Art?” on the department, The painter Robert Motherwell was heard to say that though his wife was widely recognized as an excellent photographer, he could not accept what she did as art. “In answering Macdonald's charge that photography was craft, felt that the camera should be regarded as a tool……”』(『A Century of Arts & Letters』,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 1998, p.218)

- 기존 신규 회원 선출 방법에 의하면, 엄격한 투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회원은 항상 정원에 못 미친다는 문제가 존재함
- 또한 활동 업적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예술가 자신의 동료들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실제 예술 분야에서 활동이 뛰어난 예술가를 회원으로 선출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과회원 2명과 타 분과 아카데미 회원 1명의 동의 하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 위원회는 후보자 경력 증명 외에 업적이 뛰어나지만 후보자로 등재되지 않은 예술가를 발굴하도록 하여 회원 공식보다 많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sup>19)</sup>
- 회원 선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는 아카데미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업적이 뛰어난 다양한 예술가를 포섭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 회원 정원 개편 관련 논의

- 1907년 회원 규모가 300명으로 결정된 이후 아카데미 내부에서는 적절한 회원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존재함
- 회원 정원 결정에 대한 기준으로서 미국의 인구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sup>20)</sup>
- 즉, 미국의 인구성장 규모에 대응하여 예술계를 대표하는 아카데미 회원의 비율 역시 증가해야 한다는 논리에 해당함
-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정원과 관련하여, 국내의 인구성장률, 문화예술계 종사자 비중, 예술에 대한 수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19) 「A Century of Arts & Letters」,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 1998, p.215

20) 「A Century of Arts & Letters」,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 1998, p.216-217



## 제5절

### 독일 예술원(Akademie der Künste, Berlin)

#### 가. 일반 현황

##### 1) 설립목적 및 역할

- 독일예술원은 독일 연방공화국 내에서 예술을 진흥하고, 문화 예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연방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체임. 원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베를린 예술원이 2005년 5월 1일 제정된 법률 근거로 2006년 1월 1일부터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독일예술원은 독일 출신의 예술가뿐 아니라 미술, 건축, 음악, 문학, 공연예술 및 영화 및 미디어 예술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공동체를 지향
- 또한 예술원은 현대 예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대중에서 전달하고,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임무를 띠며, 이러한 임무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전시회, 강연회, 낭독회, 영화상영, 연극 무용 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주최함
- 한편, 예술원 회원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소장하고 있는 문서고는 예술원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예술원 회원 소장자료 및 예술관련 일반자료들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 연혁

- 독일 베를린 예술원은 1696년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1세가 로마와 파리의 모델을 따라 설립한 “미술, 조각 건축 아카데미”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음
- 후진 양성 및 예술관련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던 베를린 예술원은 1세기 이상 침체기에 빠져 있다가 계몽시대인 1786 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에 의해 다시 부활하여 활발한 전시 활동 등을 주축으로 문화와 예술에 관한 공적인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이후 예술원은 1907년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옆의 Pariser Platz로 이전하였고, 1920년 대 독일 미술계의 거장 막스 리버만 원장 시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화적 공론 형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음
- 1933년 국가사회주의 집권 이후 40여명의 예술원 회원이 축출되고 1937년에는 예술원 자체가 해산되었음
- 2차대전이후에는 1950년과 1954년에 각각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에서 독자적인 예술원이 설립되어 운영되다 1990년 통일이후 투표절차를 거쳐 1993년 1월 1일부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예술원이 통합되었음
- 이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시가 운영해 오던 베를린 예술원은 베를린시와 연방정부의 협약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연방정부에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표 47〉 독일아카데미의 연혁

연도	내 용
1696년	프리드리히 3세(후 프리시안 왕 프리드리히 1세)에 의해 설립 명칭은 “Academie der Mahler-, Bildhauer- und Architectur-Kunst”
1786년	첫 번째 공식 전시회와 문화예술 토론을 위한 포럼을 개최
1833년	아카데미 분과 중 음악 분과 신설
1907년	베를린-Mitter 의 Paris Place 4로 아카데미 이전
1931년	미술과 음악 교육을 위한 대학 설립 및 아카데미와 분리
1950년	망명 회원들이 2차 대전 후 재회합을 통해 Deutschen Akademie der Künste in Berlin(동독) 설립 representing art 분과 신설
1954년	Akademie der Künste in Berlin (서독) 설립 representinf art 와 건축 분과 신설
1984년	서독 아카데미 – film and media art 분과 신설
1991년	동독 아카데미 – 회원 정원 105명에서 69명으로 감소 (회원 감소는 동독과 서독의 아카데미 통합을 위한 과정에 해당함)
1993년	동독과 서독의 예술원을 Akademie der Künste 로 통합
2000년	Paris Place 4에 아카데미 청사 신축 개시
2005년	아카데미 신축 청사 준공 및 개관
2008년 5월	1933년-1938년 사이 예술원 회원 기록물에 대한 기념행사

### 3) 청사

- 본관 (Pariser Platz 4, 10117 Berlin) : 1696년 설립이후 예술원은 20세기 초까지 베를린 운터 덴 린덴의 현 국립도서관에 위치했었고, 1907년 파리지 플라츠의 Arnim-Boitzenburg 궁으로 옮겼음. 그러다 1937년 나치스에 의해 예술원이 해산된 이후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에 독립된 예술원이 설립되었고, 동독에 속했던 이 건물은 파괴되어 사용되지 못했음. 통일 후 격렬한 토론을 거쳐 예술원을 다시 이 곳으로 결정하기로 한 이후 6년간의 건축기간을 거쳐 2005년 5월부터 예술원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문서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현재는 이 본관에서 수행됨
- 제2 청사 (Hanseatenweg 10, 10557 Berlin) : 1960년 6월 18일 이후 서베를린 예술원 본관으로 사용되었고, 1993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통합이후에도 여전히 사용되었던 현재의 제 2청사는 미국출신의 기업가 Reichhold 가 건축자금을 내고, 베를린시에서 토지를 제공하여 건축되었으며, 설계는 Düttmann 이 담당하여 지어진 건물임. 2005년 5월 본관이 이사한 이후에는 전시장, 강연회나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예술가들이 아틀리에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 문서고 (Robert-Koch-Platz 10, 10115 Berlin) : 동독 시절 예술원 건물으로 사용되었던 이 곳은 현재 예술원 소장 자료를 관리하는 문서고와 대중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음

### 4) 연간예산

-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연방정부의 산하로 이관된 독일 예술원의 예산은 연간 18,430,000유로에 달하며, 거의 대부분 연방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술원 예산 집행내역은 매년 독일 행정부 회계감사 법원에 제출해야 함
- 상세 예산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8〉 독일 예술원의 연간예산

(단위 : 천 유로)

항목	2007 예산액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
직원인건비 (정규직 및 프리랜서 포함)	8,653	47
일반관리비 (임대료 등)	6,113	33
IT 경비	524	3
행정경비	1,239	6.7
프로그램 운영 경비	1,901	10.3
총계	18,430	100
(연방 지원금)	(17,751)	96.3
자체 수입금 (입장료 등)	679	3.7

※ 자료출처 : 독일예술원 내부자료

〈표 49〉 프로그램 운영 경비 내역

(단위 : 천 유로)

항목	2007 예산액
문서고	581
- 취득 및 관리	316
- 행사	140
- 간행물	125
기타 프로그램	1,320
- 행사	955
- 협력	60
- 간행물	70
- 장학금 및 시상	235
프로그램 총액	1,901

※ 자료출처 : 독일예술원 내부자료

나. 조직

1) 회원 총회 (Mitgliederversammlung)

- 모든 회원은 회원 총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원 총회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회원 및 명예회원선출
  - 원장 및 부원장 선출
  - 각분과장 및 부분과장 선출

- 최대 4명의 위원회 위원 선출 (위원회, 원장 혹은 12명 이상의 회원이 제안한 자를 대상으로 표결에 참가함)
  - 위원회, 원장 및 12명 이상의 회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표결
  - 회원이나 명예회원의 제명 및 원장, 부원장에 대한 불신임 표결
  - 정관 결정
- 회원 총회는 1년에 2회 개최되며, 회원 30인 이상이 서명한 경우에는 특별 총회가 개최될 수 있음. 모든 회원에게 총회 초대장이 전달되었고, 총 회원의 1/6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한해 표결이 가능함.

## 2) 위원회 (Senat)

- 위원회는 예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로서, 명시적으로 다른 조직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특히, 프로그램, 예산안, 인사 문제, 각종 시상관련 지침 마련 등 예술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위원회에서 결정함.
- 위원회는 원장 혹은 부원장, 그리고 각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최대한 4인 포함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원장에 의해 매년 8회 이상 소집되며, 3인 이상의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소집될 수 있음. 위원회에는 대개 사무처장 및 원장비서실장등이 자문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절반 이상의 회원이 참가한 경우에 한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참가 회원의 과반수로 의사 결정을 함.
-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구)서독의 아카데미 위원회와 동일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음
- 회장 (president)
  - 부회장 (vice-president)
  - 명예 임원 (honorary president)
  - 각 분과별 위원장 (director)
  - 각 분과별 부위원장 (deputy director)

### 3) 원장

- 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예술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총회와 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담당함.
- 예술원의 모든 업무는 원장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으며, 사무처장은 원장에 직속으로 소속되어 있음.
-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반드시 예술원 회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2회에 한해 재임될 수 있음.
- 원장의 업무 보조를 위해서는 비서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 연구직원을 고용해 내용적, 행정적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4) 분과

- 독일 예술원은 미술, 문학, 음악, 건축, 공연예술, 영화 및 미디어 예술 등 총 6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각각의 해당분과에 소속됨.
- 예술원의 각 예술분과에서는 예술 프로젝트, 전시회, 행사 등을 기획하고 조율하며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각 분과의 업무는 각 예술분과에 한정되는 프로젝트 뿐 아니라, 예술 분과를 넘나드는 예술원 전체 차원의 프로젝트를 포괄함.
- 각 분과에는 한 명의 분과 위원장이 있으며, 이들은 동시에 예술원 위원회 회원의 역할도 담당함. 또한 각 분과의 업무를 위해서 사무처 직원이 배당되어 있음.

### 5) 사무처

- 예술원 사무처는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예술원 각 기구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
-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의 임무는 현재 3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장 및 부원장과 더불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술원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2008년 10월 현재 사무처 직원은 정규직 160명과 비정규직 10명을 포함해 1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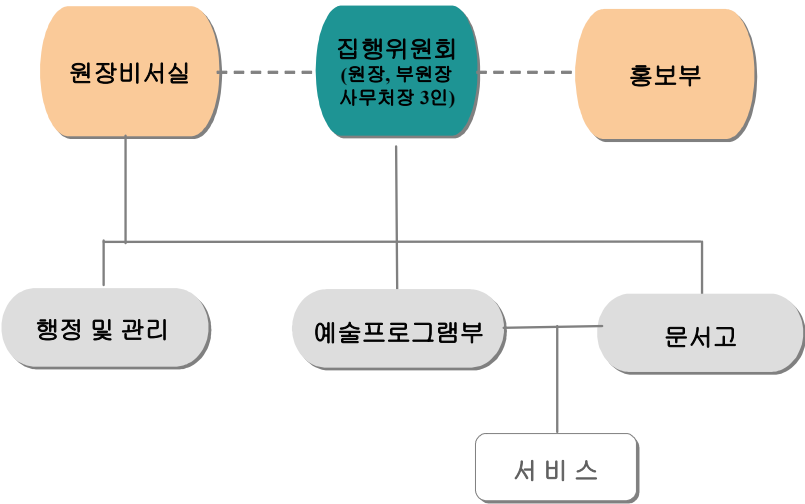
● 정규직원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0〉 예술원 사무처 직원 구성

구분	인원	비고
사무처장	3	1명은 예술프로그램부장 겸직
행정 및 관리	22	
원장비서실	4	
예술프로그램부	27	
문서고	77	
홍보부	12	
서비스	16	
계	160	

※ 자료출처 : 예술원 내부자료

－ 홍보부 직원은 기본적으로 예술원 자체의 대외 홍보 뿐 아니라, 예술원에서 하는 각종 행사팜플렛, 보도자료, 간행물 편집 등 예술원 발간 자료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또한, 기관 교류 및 연방정부 관련 업무도 홍보부에서 담당하여, 인원이 비교적 많은 편임



[그림 35] 독일 예술원 사무처 직원 조직도

## 다. 회원

### 1) 회원 구분 및 자격

- 예술원은 각 분과별로 50~75 명의 회원을 정원으로 하며, 전체적으로는 50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회원수 규정에 관계없이 명예회원을 선출할 수 있음
- 명예회원은 예술 진흥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되며, 절차적으로는 예술원 위원회에서 해당인을 추천하고, 회원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서 선출됨. 명예회원은 어떠한 분과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총회에 투표권을 가지지 않으며, 자문의 기능만을 수행함. 2008년 10월 현재, 독일 예술원의 명예회원수는 10명에 이름

회원 구분	자격 및 정원
일반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과별 50명~75명 정원, 단 전체적으로 500명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자격 : 현대예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예술가로서 국적, 거주지, 언어의 구애를 받지 않음</li> </ul>
명예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수 규정에 관계없이 선출할 수 있음</li> <li>- 자격 : 예술진흥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li> </ul>

### 2) 회원 선출 및 임기

- 독일 예술원 회원의 자격은 현대 예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예술가로서 국적, 거주지, 언어에 구애를 받지 않음.
- 예술원 회원의 선출은 각 분과나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회원 총회의 동의를 거친 후 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절차를 거침. 이 때 회원 총회에서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함. 회원 선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추천 등의 절차는 없으며, 분과나 위원회에서는 신규 회원을 제안할 때 반드시 적절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회원 선출 권한 자체가 예술원회원이 누리는 당연한 권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예술원 내부 및 외부 사회에서도 이러한 회원 선출 절차에 대한 불만은 없음
-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않는 회원은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회원총회를 거친 후 원장에 의해 임명됨. 명예회원도 동일한 임명절차를 거침
- 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임
  - 죽음, 포기, 제명을 통해서만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예술원 회원이 회원직을 포기할 경



우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함

- 예술원 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임

3) 회원 현황

- 현재 예술원 회원 총수는 380명이며, 분과별 현원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 독일 예술원 부별 현원

구분	현원	분과 위원장
미술 (Bildende Kunst)	64	Robert Kudielka
건축예술 (Baukunst)	67	Donata Valentien
음악 (Musik)	52	Erhard Grosskopf
문학 (Literature)	51	Volker Braun
공연예술 (Darstellende Kunst)	70	Thomas Langhoff
영화 미디어 예술 (Film und Medien kunst)	66	Hans Hermut Prinzler
명예회원	10	
계	380	

※ 자료출처 : 예술원 웹사이트, 2008년 9월 현재

[참고] 회원제도 및 분과 구분의 변천

- 회원 분과 구분의 변화

구분	분과
Preußische Akademie der Künste, Berlin, 1696–1945 (Prussian academy of the arts, Berlin)	1833년 die Bildenden Künste(forming art) 분과 신설
	1835년 음악 분과 신설
	1926년 Dichtkunst 분과 신설
	1932년 poetry 분과 신설
Akademie der Künste, Berlin (Ost), 1950–1993 (Academy of the arts, Berlin (east))	Bildende Kunst(screen end art)
	Darstellende Kunst(representing art)
	Literatur und Sprachpflege (literature and language care)
	Musik(음악)
Akademie der Künste, Berlin (West), 1954–1993 (Academy of the arts, Berlin (west))	Bildende Kunst(screen end art)
	Baukunst (건축)
	Musik (음악)
	Dichtung, seit 1966 Literatur (시, 1966 이후 문학)

구분	분과
Akademie der Künste, Berlin, seit 1993 이후 현재 (Academy of the arts, Berlin)	Darstellende Kuns (representong art)
	Film- und Medienkunst (film and media art : 1984 신설)
	Bildende Kunst (screen end art)
	Baukunst (건축)
	음악
	문학
	Darstellende Kunst (representong art)
	Film- und Medienkunst (film and media art)

● 회원 구분의 변천

구분	회원 구분
Preußische Akademie der Künste, Berlin, 1696-1945 (Prussian academy of the arts, Berlin)	일반 회원
	명예 회원
	특별 회원
	외국 회원
Akademie der Künste, Berlin (Ost), 1950-1993 (Academy of the arts, Berlin (east))	일반 회원
	특별 회원(1969년-1974년)
	통신 회원
	명예 회원
Akademie der Künste, Berlin (West), 1954-1993 (Academy of the arts, Berlin (west))	일반 회원
	특별 회원(1979년까지)
	명예 회원
Akademie der Künste, Berlin, seit 1993 이후 현재 (Academy of the arts, Berlin)	일반 회원
	명예 회원

라. 주요사업

- 독일 예술원은 예술원 회원들의 작품과 대중들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시회, 강연회, 낭독회, 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예술원 회원뿐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행사도 자주 운영하고 있으며,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예술가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토론회 등도 자주 개최하고 있음. 입장료를 받고 진행되는 이러한 행사들은 예술을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독일 예술원은 예술원 회원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문서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서고 운영은 위에서 언급한 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예술원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임. 문서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1696년 베를린 아카데미 설립이후 예술원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1900년 이후 예술원 회원들의 자료, 1900년 이후 베를린의 예술가들과 문화전반을 알려주는 자료, 1933년-41년 사이 유대인 예술가 협회의 자료, 동독의 문화 및 예술정책 관련자료, 독일 예술가 협회의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미술, 건축, 음악, 영화 및 미디어 등 전 장르를 망라함. 현재 총 장서수는 540,000 권에 이르며, 소장 예술품은 60,000 점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예술원은 “젊은 예술원 (Junge Akademie)”라는 기구를 통해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원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운영함.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상금, 장학금, 행사 및 전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예술원 각 분과 회원으로 구성된 특별 심사위원단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젊은 예술원은 현재와 과거의 지원대상자들로 구성되며, 예술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상제도의 수상자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예술원은 위의 시상제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학금, 기금 등의 형식으로 된 다양한 시상제도를 운영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마. 시상제도

- 독일 예술원은 장학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진 예술가상, 공로상 등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예술원 회원의 업적을 기려 제정된 상이 많으며 예술원 회원의 유산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상도 많은 편임. 특히, 기금들은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남긴 예술가를 기리거나 잠재성이 풍부한 신진 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씌어짐
- 현재 예술원이 시상하고 있는 주요 시상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52〉 독일 예술원의 시상제도

(단위 : 천유로)

시상	분야	시상개요	상금
베를린 예술상	예술일반	1848년 혁명을 기념하여 제정된 상으로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남긴 예술가들에게 예술원 차원에서 매년 3월 18일 시상	총 45,000
케테 콜비츠 상	미술	1960년 동독 예술원에 의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새로 구성되는 독자적인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정됨.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중에서 수상자가 선정됨.	12,000
하인리히 만 상	문학	에세이 작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하인리히 만의 탄생일인 3월 27일에 시상식을 거행함.	8,000
콘라드 볼프 상	미술, 영화 미디어	동독 예술원 원장을 지냈던 콘라드 볼프를 기리기 위한 상으로 미술, 영화 미디어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작가를 선정하여 시상함.	5,000
종합 기금상 I	전분야	예술원이 운영하는 기금중 가장 오래된 기금으로 5개 예술분야에서 재능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 운영	
에두아르트 아르놀트 지원기금	전분야	1971/72 아르놀트 가에서 예술원으로 운영권을 양도한 이래, 재능을 가졌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장학금 지급	
빌라 세르판타라 장학금	전분야	40세 미만의 예술가에서 3개월간 이탈리아 소재 빌라 세르판타라에 체류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학금	4,500
빌 그로만 상	미술, 미술비평	1968년부터 매년 12월 4일 젊은 미술가 및 미술비평가에게 시상	6,000
다니엘 초도비키 기금	예술전반	1992년 귄터 그라스가 폴란드 미술가를 기려 제정한 기금으로 독일 폴란드 관계 증진에 기여한 작가에게 시상	5,000
부소니 작곡상	음악	2,3년 주기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를 발굴하여 시상	8,500 (2,500:학생에게 수여)
알프레트 되블린 상	문학	2년 주기로 출판되지 않은 서사 문학작품에 시상하는 상	10,000
알프레트 되블린 기금	문학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에 위치한 되블린 하우스에서 체류하면서 창작기회를 주는 장학금	12,000
리온 포이트방어 상	문학	우수한 서사시를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포이트방어 탄생일인 7월 7일에 수여되는 상	7,500
F.C. 바이스코프 상	문학	언어비평적 작품을 대상으로 2-3년마다 4월 3일에 수여되는 상	5,000
알렉스 베딩 상	문학	아동 및 청소년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2-3년마다 5월 11일에 수여되는 상	5,000
하쎄 기금	공연예술	배우 O.E. 하쎄를 기념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배우들에게 상이나 장학금 형식으로 시상	5,000-10,000
요아나 마리아 고르빈 상	공연예술	예술원의 공연예술 분과 소속 5명의 회원이 여성 배우 요아나 마이라 고르빈을 기리기 위해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뛰어난 여성 배우에게 수여하는 상	25,000
히르시마이어 술루바흐 장학금	영화 미디어	베를린 출신 무대미술 및 영화미술가인 안 술루바흐를 기려 뛰어난 젊은 영화미술가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	
엘렌 아우어바흐 장학금	사진	사진가 엘렌 아우어바흐의 유산으로 젊은 사진가에게 수여되는 장학금	

## 바. 종합 및 시사점

### 1) 독일 문화정책의 방향

- 독일의 문화정책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 하의 문화행정과 의사결정의 중앙집중적 구조를 서구의 체제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지금의 틀을 형성하기까지 통독 이후 거의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음
- 헌법에 의해 독일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연방정부(중앙정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법적 체계, 대외 문화정책, 베를린 및 본 주재 문화기관 관련업무, 예술문화에 대한 소규모 지원만 담당
- 연방정부 이외에 주, 도시 및 지역의 문화정책은 연방체제를 전제로 자율성을 갖고 시행되고 있음. 독일의 문화중심지는 특정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분권주의의 역사적 배경에 의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독특한 지방색을 가짐
- 통일 이후 총체적 독일문화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개입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갈수록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임

### 2) 독일예술원의 특징

- 독일은 연방공화국으로서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주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연방차원에서 운영되는 문화기구는 예외적인 사항에 속함. 독일 예술원은 이러한 예외 중의 하나로서, 주를 초월하여 연방전체를 대표하는 독일의 문화예술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독일 예술원은 회원의 예우보다는 예술의 사회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즉, 예술원 회원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예술가로서는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우는 없으며, 오히려 회원들의 작품과 활동을 널리 알리고, 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또한, 독일 예술원은 자체 기획행사들을 통해 예술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대중이 보다 가깝게 현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아울러 독일 예술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술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독일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사안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예술가 연금보험 문제라든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등과 같이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예술원 회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예술원 자체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이외에도 독일 예술원은 회원 자격을 독일 국적자로 제한하지 않아, 해외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지향함
- 또한, 예술의 미래를 위해 젊은 예술가 발굴과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 예술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장르구분 관련
  - 독일 예술원에서는 문학, 음악, 공연예술, 미술, 영화와 미디어예술 분과, 건축예술 분과 등 비교적 장르가 세분화되어 있음. 물론 최근 뉴 미디어 예술의 발흥, 공연예술과 미디어 예술의 결합 등으로 인해 장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예술원의 장르체제가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음. 특히, 영화와 미디어예술 분과가 하나로 독립되어 있어서 새로운 예술 사조를 많이 수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독일 예술원에서는 탈장르화, 장르간의 통합 추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예술 진흥에 대한 공로로 명예회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어느 한 분과에 소속되지 않고, 명예회원 자격을 유지함

### 3) 독일예술원의 역할 변화

- 아카데미 설립 당시의 이상향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에 의한 장벽 없는 소통과 작품에 대한 토론 등이 이루어지는 “예술가의 커뮤니티”였으며, 설립 초기 아카데미가 표방하는 이상향에 의해 아카데미는 독일 사회에서 예술가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그러나 실제 독일에서 예술 장르 간 경계는 엄격하였고, 다양한 작품 활동 역시 예술가 자신이 속한 장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또한 아카데미로 인해 예술이란

배우기 힘들고 어려운 분야라고 인식되기 시작함

- 독일 아카데미는 예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술 역시 자연과학만큼 일반 대중이 접하고 익히기 쉬워야 한다는 로마와 파리의 아카데미의 지향을 본받고자 함
- 19세기 이후 독일 아카데미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순수 예술로서 음악과 미술 교육을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의 아카데미로 분리된 후, 각자 별도의 시스템으로 예술가 교류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예술 교육 기능을 담당하였음
- 1975년 예술대학 설립을 통해 동독과 서독 아카데미의 예술교육 기능을 통합시킨 이후, 두 아카데미는 예술 장르 간 전문가의 토론과 교류의 장으로서 예술계를 대표하는 기능에 집중하였음
- 또한 예술대학 설립 이후 아카데미는 순수예술 뿐만 아니라 스크린 아트, 건축, 문학, 공연예술, 영화 미디어 아트 등 그 영역을 확장함
- 통일 후 통합된 독일 아카데미는 국제적 예술 교류 확대에 따른 독일 예술계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 로마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국제적 예술교류 확대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양한 시상제도를 통한 신진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예술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해당함

## 제6절

###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시사점

#### 1 설립목적 및 역할 변화

- 해외 유사기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각 기관들은 자국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현대예술의 새로운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끊임없이 적극적인 역할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일본예술원은 예술인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회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일본예술원상 시상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회원의 경험과 지식을 전승하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보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예술원으로서의 역할 변화를 꾀하고자 함
  - 프랑스 및 미국, 독일의 경우 예술계 원로의 입장에서 예술 진흥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며, 다양한 시상제도를 통해 신진예술인 및 새로운 예술의 경향을 장려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수행하고 있음

〈표 53〉 기관별 설립 목적 및 역할

구분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설립 목적	예술 각 분야의 공적이 현저한 예술가를 우대	자국의 문화예술작품 널리 알리고 보호·발전시킴	예술가에 대한 예우와 장려를 통해 문학, 음악, 미술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유지	자국 내 예술을 진흥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
현대적인 위상 및 역할	최근 ‘어린이 꿈·예술 아카데미’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회원의 경험과 지식을 전승하고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오랜 전통 속에 다소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 전통을 수호하는 동시에 현대예술의 꾸준한 발전에 기여	회원작품 및 관련자료의 전시, 각종 시상제도 등을 통해 예술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	국제적 예술교류 확대에 따른 독일 예술계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시상을 통해 예술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역할 강화



## 2 회원제도

### 1) 회원 자격

- 오랜 시간동안 예술 각 분야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회원 선출의 기준임
- 희소성에 따른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제도를 대부분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정회원의 권위를 지키면서 기관 자체의 고착성을 막기 위해 회원 기준이 완화된 다른 회원제도도 가지고 있음
  - 독일만이 자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도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대부분 다른 국가들은 정회원 외에 명예회원이라는 방식으로 예술적 공헌이 큰 외국인들에게 회원자격을 주고 있음. 명칭은 조금씩 다름
  - 미국의 경우, ‘명예회원’이라는 명칭으로 외국인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미국인 중 기존의 분과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인을 회원으로 수용하기 위해 미국인 명예회원을 신설하면서, 명칭을 ‘외국인 명예회원’과 ‘미국인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사용
  - 프랑스의 통신회원은 미술역사가 및 예술계 후원자 또는 아카데미 보자르 분과에 속하지 않은 예술분야 아티스트 및 세계 예술문화계의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기존 회원 외의 다른 회원들은 회원선출 및 각종 상의 심사에 관한 권한이 없음

〈표 54〉 기관별 회원의 구분

구분	대한민국예술원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회원 구분	①회원 ②명예회원 : 외국인	①회원	①정회원 : 프랑스인 ②준회원 : 외국인 ③통신회원 : 외국인 및 프랑스인	①회원 : 미국인 ②외국인 명예회원 ③미국인 명예회원	①회원 : 독일인 및 외국인 ②명예회원 :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외국인 회원 유무	○ (명칭 : 명예회원)	×	○ (명칭 : 준회원)	○ (명칭 : 외국인명예회원)	○ (명칭 : 회원) ※회원자격에 외국인도 포함
회원 등급 유무	×	×	○ (명칭 : 통신회원)	×	×

## 2) 회원 선출

### ① 추천

- 대부분 분과 회원이나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회원 후보자를 추천함.
  -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 회원의 추천(명예회원), 일본은 부회의 추천(회원), 프랑스는 분과별 대표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준회원), 또한 모든 예술원 회원 추천(통신회원), 독일은 각 분과나 위원회에서 제안, 추천함
  - 미국은 분과별 회원의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지만 새로운 회원 확보에 있어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면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강구함

### ② 심사

- 회원 선출과정에 있어 외부인사는 심사과정에서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기관 내부에서 결정함
  - 예외적으로 대한민국학술원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있어서 학술원이 지정하는 학술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선출 과정에서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음

### ③ 결정권

-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예술원은 회원 결정권이 각 분과에 있고, 총회는 그것을 승인하는 방식을 취함
- 프랑스, 미국, 독일은 각 분과나 회원에게서 추천을 받아 분과가 모인 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기 때문에 회원 결정권이 총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3) 회원예우의 방식

- 해외 유사기관들의 회원들은 회원이 되는 것 자체를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연금이나 별도의 회원예우를 위한 활동은 없는 것이 특징임

- 다만 신규회원 선출권이나 각종 시상에서의 심사권 등을 통해 회원에게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회원들 역시 신규회원 선출권 및 다양한 시상에 있어서 심사를 담당하는 것을 상당한 명예로 여기고 있음
  - 이들 기관들은 각기 다양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이러한 시상제도 운영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독일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예술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일본예술원의 경우 회원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로예술인에 대한 예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음. 회원 기록물을 제작하고, 회원의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등 주요사업들도 회원예우 중심으로 이루어짐

〈표 55〉 기관별 회원 예우의 방식

구분	대한민국학술원	일본예술원	아카데미 보자르	미국예술원	독일예술원
주요 예우 방식	회원수당 지급 (월 150만원) 학술활동지원	연금 지급 (연 260엔) 회원 기록물 제작, 대외활동 지원 등	교통비 명목의 상징적 수당 지급(월 350유로) 회원 제복	특별한 예우 없음	특별한 예우 없음
공통점	신규회원 선출권 및 각종 시상에서의 수상자 심사·선출권은 회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식됨 이를 통해 회원에게 권위와 명예를 부여				

3 주요 기능 및 사업

〈표 56〉 해외 유사기관 주요 기능 및 사업

구분	기능 및 역할	주요사업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적이 현저한 예술가 우대</li><li>• 예술발달에 기여하는 활동</li><li>• 예술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국가(문부과 학대신 또는 문화청 장관)에 건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장 작품전 : 예술원 회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작품, 예술원상 수상작 등 전시</li><li>• 일본 국내 미술관 대상으로 예술원 소장 작품 대여</li><li>• 일본 예술원 회원의 무료 강연회(참가는 사전예약에 한해 가능)</li><li>• 기록물 제작 사업 : 일본예술원 회원 기록작제위원회 규칙에 근거한 회원기록사업</li></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술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li><li>• 국외 예술단체와 협력증진</li><li>• 각종 공훈 및 예술가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양한 경연 및 수상제도를 통한 예술창작활동 권장 및 예술교육</li><li>• 정부 및 여러 관련 분야 협회에 대한 정책자문 및 컨설팅 역할</li><li>• 주 1회 회원 참석 회의를 통해 예술에 대한 이론적 기반 구축 및</li></ul>

구분	기능 및 역할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유산 및 작품 보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논문과 백서 발간</li><li>박물관 및 재단운영</li><li>문화재 보호 : 주요 박물관 유산 보존·관리 및 프랑스 문화예술 유산에 대해 정부에 의견 제시</li></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각종 시상 및 예술가 지원</li><li>예술가 작품 구입을 통한 예술가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각종 시상제도 운영</li><li>신규회원 및 수상자 작품전시</li><li>소장품 관리</li></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예술 분야에서 독일대표</li><li>예술 진흥</li><li>국가의 문화발전에 기여</li><li>국가문화유산의 보존</li><li>문화예술분야의 국가 자문</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기적 전시회, 강연회, 낭독회, 공연 등</li><li>시사적 문제와 관련한 예술가의 토론회</li><li>회원 소장품 중심의 문서고 운영</li><li>젊은 예술가지원 및 예술원과의 교류 추진</li><li>각종 시상제도 운영</li></ul>

1) 일본(회원예우)

- 일본예술원의 주요 기능은 회원 예우 및 예술에 관한 자문활동이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도 회원 연금 지급, 회원에 대한 기록물 제작, 소장작품전, 예술원상 시상 등 회원 예우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이 꿈·아트 아카데미, 회원작품 스케치 프로그램 등 유소년에게 예술적 영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프랑스(보존과 지원, 교육)

- 아카데미 보자르의 주요 기능은 과거에 예술가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재에 예술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미래에 예술을 만들고 향유할 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임
- 아카데미의 주요 사업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구호로만 남지 않도록 예술가에게 경제적 지원과 체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 또한 정부나 여러 협회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정책 자문이나 컨설팅 역할을 하며 내부 학술회의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3) 미국(기록과 시상제도)

- 미국예술원의 주요 기능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기록하는 것임. 또한 각종 시상제도를

통해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음

- 미국예술원의 주요 사업은 회원의 기록물을 수집, 관리, 전시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예술 진흥을 장려하는 것임. 또한 미국 예술원이 중심이 되어 주관하는 약 30개 정도의 시상 제도를 통해 예술가들을 지원함

#### 4) 독일(지원과 보존)

- 독일예술원의 주요 기능은 예술 진흥시켜 국가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국가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임
- 독일예술원의 주요 사업은 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가들을 지원함. 특히 ‘젊은 예술원’이라는 기구를 통해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원과의 교류를 이끄는 사업을 운영함.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국가 자문자체 기획행사들을 통해 예술원 회원들의 작품과 대중들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문서고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인 회원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음

## 4 시상제도

### 1) 일본예술원은 하나의 시상제도 운영

- 예술원 회원 이외의 예술인 중 탁월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작한 사람, 또한 예술진보에 공헌하는 현저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매년 일본예술원상을 수여
- 일본예술원상 수상자 중 특별히 선출해 은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은사상 수상자에게는 일본왕의 하사품을 수여함

### 2) 프랑스, 미국, 독일은 다수의 시상제도 운영

- 프랑스, 미국, 독일의 경우 다양한 시상제도의 운영을 기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고 있으며, 다양한 상의 수여를 통해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음
  - 각 상의 종류는 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것 외에도 유고회원, 일반 개인의 기탁에 의한

장학금 형식의 시상제도까지 다양함

- 이러한 시상제도는 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

● 아카데미 보자르(프랑스)

- 경쟁부문으로 건축, 미술, 사진, 음악, 문학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함으로 현대 예술창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음악, 미술, 영화, 전분야에 걸쳐 뛰어난 사람에게 각 분야의 공로상을 수여함

● 미국예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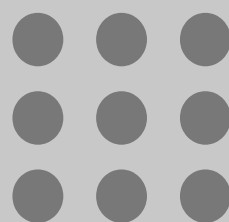
- 각종 시상제도는 미국예술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상의 종류가 30개 가까이 됨.
- 유고회원의 유족이나 본인의 기부, 일반 개인의 기부나 후원, 재단의 후원이나 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시상제도가 있음
- 27개의 시상제도 중 일반 개인, 아카데미 회원, 기타 재단의 기부나 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시상제도는 13개에 해당함

● 독일예술원

- 장학금, 신진 예술가상, 공로상 등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금으로 운영되는 상들은 주로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남긴 예술가를 기리거나 잠재성이 풍부한 신진 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수여되고 있음

# 6

## 대한민국예술원의 중장기 목표와 발전 방향



제1절 중장기 계획의 전제

제2절 중장기 계획의 기본 방향

# 제1절

## 중장기 계획의 전제

### 1 원칙 및 고려사항

-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예술인들을 우대·지원하고 이들의 식견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정책자문, 국내외 예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한민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해 왔음.
- 예술원이 설립된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예술의 영역이 확장되며 예술 향유의 저변도 넓어진 반면, 예술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못한 것이 사실임.
  -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1세기의 예술은 예술원이 설립되던 5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장르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기술의 발달로 예술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경제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장르에서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고 향유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임. 반면 지나친 상업화 경향으로 인해 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예술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 예술인이 모인 기관으로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며 예술의 중요성 및 가치가 사회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히도록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실제로 7월에 실시한 예술원회원 인식조사 결과, 예술원 회원들은 국가 예술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원이 회원에 대한 우대·지원 외에도 국가정책자문, 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이제까지 예술원의 여건이 우리 예술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물리적 한계가 있었음을 간과하면 안 됨. 예술원이 환경의 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예술 발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중장기 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술계 및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예술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 2 예술원의 미션 재정립

### 가. 미션 재정립의 필요성

- 1954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예술원은 각 분야별로 예술창작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예술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해 왔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원이 설립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한국 사회 및 예술계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원은 한국 예술계에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이제까지 예술원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를 되짚어보고, 적극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한국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고도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원의 새로운 역할은 명확한 미션의 바탕 위에서 모색될 수 있는 바, 우선 예술원의 미션이 예술환경의 변화와 예술원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임.

### 나. 미션 재정립의 방향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예술원의 임무와 역할은 기존 임무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예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야 함.
  - 예술은 항상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속성은 변치 않는다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는 바, 예술원의 미션을 새롭게 모색함

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기존의 예술원이 지향하는 가치의 바탕 위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예술원의 기존 미션을 분석하고, 예술원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예술원 미션에 대한 외부의 인식, 해외 유사기관의 사례 등을 점검함으로써 예술원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도록 함.

1) 고려 사항

- 예술원의 기존 미션
  - 법령상 대한민국예술원의 기존의 임무는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임.
  - 또한 설립선언문을 통해 예술원은 스스로 ‘예술의 자유를 우호·발전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민족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 세계예술을 흡수하여 민족예술의 정통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노선으로 한다고 하였음.
  - 지금까지 예술원은 이러한 미션을 바탕으로, ①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②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③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④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⑤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해왔음.

〈표 57〉 예술원의 기존의 미션

구분	예술원의 미션	비고
법령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
설립 선언문	헌법에 의해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우호·발전시킬 의무를 가짐 고전적인 민족예술의 전통을 정확히 계승하고 현대 세계예술의 정수를 정당히 흡수하여 우리의 민족예술의 정통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노선으로 함	예술원 설립 선언문 (1957.7.17)

- 예술원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 예술원 설립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의 증가, 예술인구의 증가, 예술시장의 규모 확대 등 과거에 비해 예술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술의 사회적 임무에 대한 요구도 커지게 되었음.
  - 특히 예술에 있어서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예술의 상업화 경향이 빠르게 진행되고, 기술의 발달로 예술 장르의 해체와 다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등 예술 자체

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예술의 가치 혼재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예술원의 미션에 대한 외부의 인식

- 예술원에 대한 외부 인식조사 결과, 각 장르별 예술인 및 예술정책 전문가들은 예술원이 대한민국 예술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기관으로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원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를 위해 예술원은 국가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고 보존·전송하는 차원에서 예술인을 우대하고, 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하였음.

● 해외 유사기관의 사례

- 예술원과 유사한 해외 기관들의 경우에도 자국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시상제도 등을 통해 예술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대 예술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예술의 본질과 전통을 보존한다는 근본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급진적인 역할의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관 자체의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2) 재정립의 방향

-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술인 우대」 및 「예술창작 지원」이라는 기존의 미션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환경변화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도록 함.

### ① 기존 미션의 발전적 계승

● 「우대·지원」이 아닌 「예우」로

- 1957년 예술원의 설치 근거가 되었던 『문화보호법』 제16조를 보면, “① 예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하여 예술원을 설치한다. ② 예술원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즉, 예술원 설립 당시 예술은 국가에 의해 보호될 뿐 아니라 관리, 지도되는 대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르면 예술원은 “예술 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됨. 즉 예전과 같이 국가의 관리, 지도를 받는 대상으로는 더 이상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시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는 여전히 있음.
- 그러나 예술원은 국가가 예술에 대해 시혜적 지원을 하는 상징이 아니라, 예술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고 이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상징이 되어야 할 것임.
- 예술원의 미션도 역시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본질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리는 차원으로 승격되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즉, 예술인을 우대한다는 기존의 미션을 계승하되, 단순히 몇몇 예술인에 대해 시혜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술인 전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상징으로서 정의되어야 할 것임. 즉, 예술인의 예우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기존 미션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함.

● 「창작활동 지원」이 아닌 「예술 활동의 장려」로

-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르면 예술원은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음.
- 현재 예술원의 창작활동 지원은 지원 대상도 예술원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 금액도 규모가 작아 예술 창작활동 진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예술 창작활동 지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갖고 있는 바, 예술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예술원의 창작활동 지원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회원 이외의 예술인에게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예술계의 원로로서 우리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술 진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② 환경 변화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역할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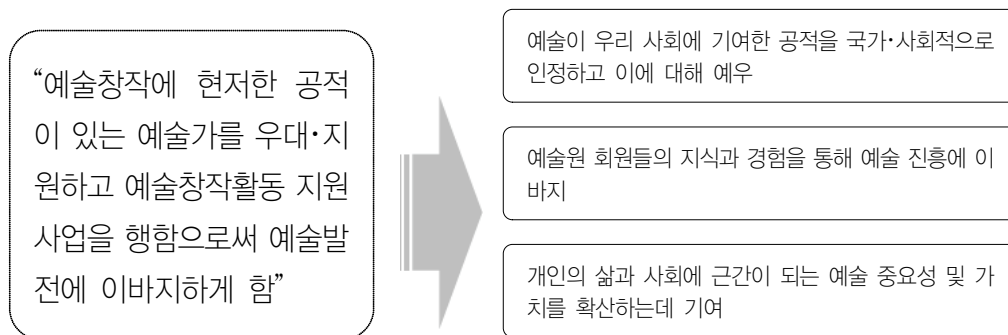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존재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도

- 예술은 그 자체로서 인간 삶의 한 형태이자 인간됨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진보의 부산물이기보다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힘을 가진 근원적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인간이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지의 척도이며,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임.

- 예술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기여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예술은 삶의 필수적 요소가 아닌, 주변적이며 장식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음.
- 사회의 근간으로서 예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임. 또한 이 과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예술원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

## 다. 예술원의 미션

- 위와 같은 과정을 종합하여 재정립한 대한민국예술원의 미션은 다음과 같음.



### 1) 예우

- ‘예우’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국가·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예우한다는 의미임.
- 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도 회원 예우 그 자체의 목적 외에도 예술인 전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의미임.
  - 예술원 회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예술인들로서 한국 예술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예우는 회원들 개인에 대한 예우의 의미 외에도 우리나라 예술인에 대한 예우를 상징하는 것임.

### 2) 지식과 경험 전수를 통한 예술 진흥에 이바지

- 우리나라 예술계의 대표적인 원로들의 모임으로서 예술원은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임무를 가짐.

-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술의 본질에 대한 균형을 놓치지 않고 창의성 및 다양성이 최대한 자유스럽게 발휘되도록 예술계 원로들이 축적해온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예술 진흥에 이바지함.
- 예술계 원로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예술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해외 예술원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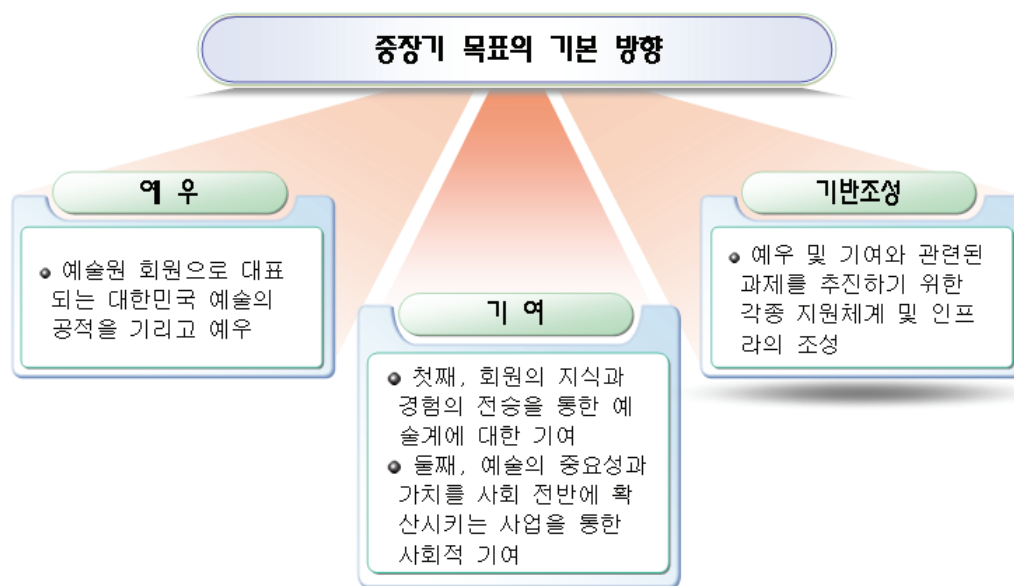
### 3) 예술의 중요성 및 가치 확산에 기여

- 예술원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는 예술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에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존재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임무를 가짐.
- 경제가 발전하고 예술의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예술의 경제적 가치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 예술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삶과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데 기여.

## 제2절

### 중장기 계획의 기본 방향

- 대한민국예술원은 우리 예술사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원로 예술인들의 기관으로, 대한민국예술원의 존재 의의 및 역할은 크게 ‘예우’와 ‘기여’,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볼 수 있음.
- ‘예우’는 예술원 회원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예술의 공적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임.
- ‘기여’는 예술계에 대한 기여와 사회에 대한 기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예술의 중요성 및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여 우리나라 예술인을 대표하는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사회적으로는 대한민국 예술의 자산 및 결실이 대중에게 널리 향유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임.
- 이에 따라 예술원의 중장기 계획의 방향도 예술원의 역할인 ‘예우’ 및 ‘기여’ 부문, 이를 위한 ‘기반 조성’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함.
  - ‘예우’는 예술원 회원제도의 운영과 관련됨.
  - ‘기여’는 예술의 중요성 및 가치를 알리는 사업 및 예술원 회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예술 현장에 기여를 하는 사업과 관련됨.
  - ‘기반 조성’ 부분은 ‘예우’ 및 ‘기여’와 관련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체계 및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됨.



[그림 36] 중장기 목표의 기본방향

- 예술원 중장기 계획을 통해 예술원에 요구되는 예술사적,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예술원에 부여된 미션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 또한 이를 통해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취약한 예술원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예술원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런 예술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예술원 회원의 발자취 정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예술의 역할 환기
  - 회원 예우의 내실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예술인 위상 제고
  - 자문 및 시상 제도 등을 통한 예술 진흥에 이바지
  - 예술 현장 및 일반 대중과의 장벽 없는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

## 1 중장기 계획 목표

### 가. 예술원 회원의 발자취 정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예술의 역할 환기

- 대한민국 예술사와 대한민국예술원의 역사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예술인인 예술원 회원들의 업적은 곧 우리 예술사의 발자취요 자산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 예술이 보여주는 성과들도 지난 세월 동안 축적된 예술의 자산들이 거름이 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음.
  - 지난 세월 예술계의 쌓여진 역량이 현재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예술계는 역사적 관점에서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 하는 형편임.
- 유무형의 대한민국 예술 자산에 대한 보존·전승
  - 세계적인 흐름과 변화에 민감하고 이를 빠르게 수용하는 만큼 우리 예술계가 쌓아온 성과 및 자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예술사의 주요한 발자취 및 결실을 정리하여 보존하고 이를 후대 예술인 및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전승할 필요가 있음.
  - 10월에 실시한 예술인 및 예술정책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대한민국 예술의 역사 및 발자취를 보존하고 후대에 널리 전승하는 역할을 예술원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길 기대하고 있었음.
- 예술원 회원들의 발자취 및 업적의 전수를 통해 젊은 예술인과 일반 대중에게 대한민국의 예술적 전통이 창조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함.
-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를 풍부하게 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예술의 역할을 상기시키고 널리 알림.

#### 나. 회원 예우의 내실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예술인 위상 제고

- 우리 사회 대표적인 예술인인 예술원 회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국가의 인정 및 공적에 대한 존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예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함.
  - 최고 예술인에 대한 예우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고 기리는 일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사회의 원로예술인인 예술원 회원을 예우함으로써 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사회

적으로 널리 인식시키도록 함.

- 회원 예우 방식도 회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보상 외에도 예술 공적에 대한 존경과 이를 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
  - 해외 예술원 사례의 경우 경제적 보상 자체 보다는 회원 선출의 자율성 및 각종 시상 심사 권한 부여를 통해 예술원 회원의 권위를 부여함을 알 수 있었음.
- 예술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예술원상을 정립하도록 함.
  - 예술원은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임. 따라서 예술원의 기반이자 핵심은 회원제도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선출, 회원의 구성, 예술 장르의 구분 등 다양한 면에서 사회적 공감과 변화를 반영.

#### 다. 자문 및 시상 제도 등을 통한 예술 진흥에 이바지

- 우리 예술계를 대표하는 원로 예술인으로서, 예술 현장의 창의성 및 다양성 실현을 장려하여 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함.
  - 대한민국예술원상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술 현장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원로 예술인으로서의 예술원 회원의 권위 제고.
  - 회원의 경험과 지식, 예술세계의 전승을 통해 예술계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
- 국가예술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우리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예술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라. 예술 현장 및 일반 대중과의 장벽 없는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

- 예술원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일반 대중 및 예술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이며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
- 예술원의 청사는 단순한 사무 공간과 회의실이어서는 안 되며, 대중이 예술을 직접 접하고 전승받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인 동시에 예술인들이 원로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토론의 공간이 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예술원 아카이브, 회원기념관, 작품전시실, 세미나실, 강연회실 등의 공간을 통해 예술인 및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예술인은 물론 일반 대중과 함께 살아 숨쉬는 기관으로서의 예술원으로 거듭나도록 함.

## 2 중장기 목표에 따른 주요 과제

### 가. 예술원 사업

#### 1) 추진전략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존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
  - 현재 예술원의 주요 사업은 예술원상 시상, 예술원 미술전, 예술창작활동 지원,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국제예술 심포지엄, 회원 국제교류, 예술강연회, 회원 세미나 등이 있음.
  -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타 기관과 중복되거나 예술원의 미션 달성과 거리가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등 핵심사업 위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 예술원을 대표하는 브랜드사업 육성
  - 대한민국예술원상 및 예술원 아카이브 등을 예술원의 미션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 이들 사업을 예술원의 브랜드 사업으로 활성화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술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위상을 강화하도록 함.

#### 2) 주요 추진과제

- 회원 업적 정리 및 예술원 아카이브 구축
- 대한민국예술원상 활성화 및 권위 제고
- 예술 전승사업 활성화
- 국제교류 활성화

## 나. 회원제도

### 1) 추진전략

- 회원예우를 통한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 회원의 예술 공적에 대한 예우를 통해 예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젊은 세대들에게 예술에 대한 열망을 키워주도록 함. 나아가 예술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함.
- 예술원의 근간인 회원제도의 체계적 운영
  - 예술원은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임. 따라서 예술원의 기반이자 핵심은 회원제도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원 회원들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공감과 변화를 반영.

### 2) 주요 추진과제

- 회원 예우의 내실화
- 독립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회원제도 운영

## 다. 운영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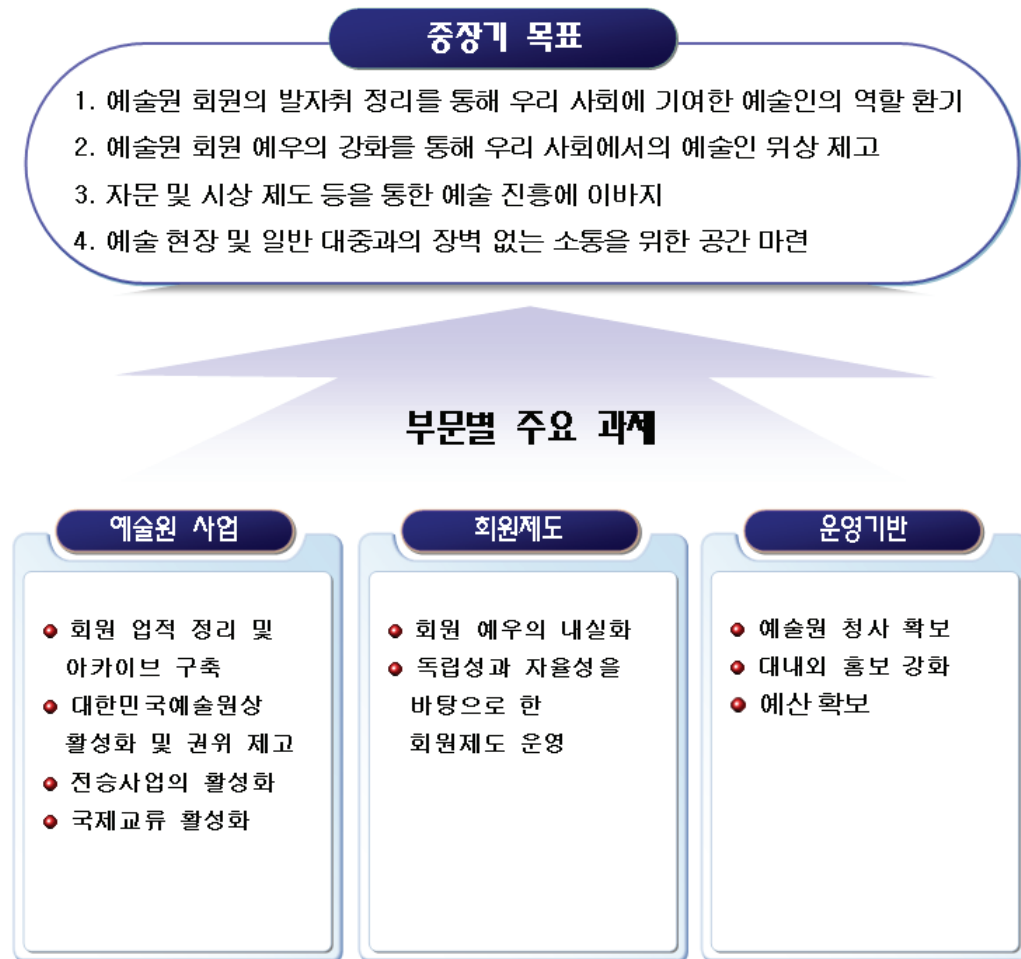
### 1) 추진전략

- 예술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 예술원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예술원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청사 등의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또한 예술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예술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 2) 주요 추진과제

- 예술원 청사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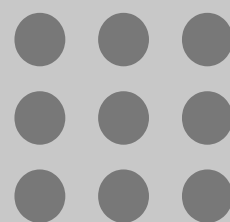
- 예산의 확보
- 대내외 홍보 강화
-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체계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7]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도

##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제1절 예술원 사업  
제2절 회원제도 운영  
제3절 운영 기반



## 제1절

### 예술원 사업

#### 1 회원 업적정리 및 예술원 아카이브 구축

##### 가. 개요

- 회원의 생애 및 업적에 대한 기록사업을 통한 회원 예술세계 보존
  - 예술원 회원들의 업적은 대한민국 예술의 흐름과 발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지난 60여 년 동안 예술원 회원들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예술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임.
  - 예술원이 예술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회원 및 유고회원의 발자취와 예술 세계에 대한 기록과 보존이 필요.
- 우선적으로 현재 예술원 회원의 발자취 및 업적을 정리하며, 예산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유고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 이를 예술원을 대표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우리 사회 대표적인 예술인인 예술원 회원들의 평생 업적을 집대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예술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 제고

다. 여건분석

1) 예술원 내부 여건

- 현재 예술원에서는 회원의 업적이나 기록 등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사업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미술분과의 신규회원이 선출되면 관례적으로 해당회원의 작품을 기증받아 소장함으로써 예술원소장품전 또는 기획전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정도임.
- 그러나 미술분과의 경우에도 단순히 회원의 작품을 소장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회원 업적에 대한 수집과 기록, 보존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2) 해외 유사기관 사례

- 해외 유사기관의 경우, 회원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기록사업이 기관의 중요한 활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회원 사망 시 유족에 의한 회원 작품이나 소장품의 기증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 유사기관의 회원 대상 기록사업에는 회원의 작품, 일대기, 공적 등 회원 관련 사항의 수집 및 보관 사업 등이 있음.

〈표 58〉 해외 유사기관의 회원 기록사업 현황

국가	회원 기록사업 현황
일본	- ‘일본예술원회원기록작제위원회규칙’의 규정에 의해 예술원 회원의 예술상 공적 등을 영상 등의 기록물로 제작하고 있으며, 상설전이나 특별전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 기록 제작을 위해 일본예술원회원기록작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원장 및 원장이 각 부마다 지명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미국	- 회원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전시는 미국 예술원의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수집되는 기록물은 회원 작품 뿐만 아니라 회원 초상화, 연설문, 신문기사자료, 사진 등 회원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을 포함 - 회원작품은 미술작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음악이나 문학 분과 회원의 자필 악보나 자필 원고 등까지 포함
독일	- 독일 예술원은 예술 프로그램과 문서고 운영이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함 - 문서고 운영에 있어 소장품은 예술원 회원의 소장품이 중심이 됨 - 독일 예술 및 예술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회원이 소장하고 있는 유서 깊은 자료들을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이 특징임



## 라. 사업내용

### 1) 회원의 업적 정리

- 예술원 회원의 업적 및 회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예술세계 등에 대한 기록물을 제작하는 등 회원의 평생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함.
- 대상은 현재회원 뿐만 아니라 유고회원의 업적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개원 이래 회원 총 수 : 206명(현재 회원 수 : 84명 / 유고회원 수 : 122명)
- 세부 내용
  - 회원 관련 자료(회원 사진, 초상화, 연설문, 신문기사, 영상, 음원, 프로그램 팸플렛, 의상, 회원 소장품 등)의 수집, 보관
  - 회원들의 발자취에 대한 구술 기록물, 회고록 등 제작
  - 작품 전집, 도록, 평전 등의 출판
  - 회원의 발자취 및 예술 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 2) 회원 작품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공개

- 회원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존할 뿐 아니라 상설전 또는 기획전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 세부 내용
  - 회원자료의 전시(회원작품 및 소장품에 대한 상설전, 기획전 등)
  - 회원 업적을 활용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기획·실시
  -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영문 아카이브 포함)
- 예술원의 예산 및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 2 대한민국예술원상 활성화 및 권위 제고

### 가. 개요

- 대한민국예술원상은 예술에 관한 우수한 연구, 작품제작 또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예술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임.
- 2008년부터 「예술원 회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일반 예술인들의 참여와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예술원상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추진. 또한 심사방식, 수상혜택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예술원상의 권위를 제고하도록 함.

###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경쟁도입을 통한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
  - 일반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쟁을 제고하고 예술원상의 운영을 활성화
  - 이를 통해 예술원상에 대한 현장예술인 및 일반인의 인지도를 제고
- 예술원상의 권위 제고
  - 대한민국 최고 예술인인 예술원회원에 의해 수여되는 상이라는 점 자체가 현장예술인 및 젊은 예술인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통해 예술원회원의 권위와 명예를 드높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예술원상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예술원의 대표브랜드화 함으로써 예술인을 위한 대표적인 상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다. 여건 분석

#### 1) 예술원상의 운영 현황

-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은 예술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사업비 규모도 회원 수당 및 기타 수시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 예술원의 주요 사업 예산의 42%를 차지함.

- 2008년 사업 예산 : 20억 1천 4백만원
  - 회원 정액수당 지급(14억 7천 6백만원),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1억 4천 4백만원), 각종 회의수당(6천 3백만원), 예술원 미술전(5천 7백만원) 등

● 기존의 예술원상은 해당 분야에서 현저한 예술적 공적을 이룬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해당분야의 원로 예술인인 예술원 회원이 주로 수상하였음. 그러나 2008년부터는 ‘예술원회원은 예술원상 수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규정」(2007.12.17개정))하고 예술원상의 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2) 유사기관의 사례

- 프랑스, 미국, 독일의 경우 시상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 다양한 시상제도를 통해 신진예술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기관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 및 가족의 기탁에 의한 회원 명의의 상 및 각종 기금을 통한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들 시상제도는 경쟁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반 대중에게 해당 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

〈표 59〉 해외 유사기관의 시상제도

국가	특징
일본	- 단일한 시상제도 : 일본예술원상(은사상) - 대한민국예술원상과 유사함 - 단, 일본예술원상 수상자 중 특별히 뛰어난 자를 선정하여 ‘은사상’ 수여. 은사상 수상자에게는 일본왕의 하사품이 수여됨
프랑스	- 10여개의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경쟁부문과 공로상으로 구분됨 - 경쟁부문으로 건축, 미술, 사진, 음악, 문학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함으로 현대 예술창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음악, 미술, 영화, 전분야에 걸쳐 뛰어난 사람에게 각 분야의 공로상을 수여함
미국	- 상의 종류는 약 30개 - 시상제도 운영은 미국예술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임 - 유고회원의 유족이나 본인의 기부, 일반 개인의 기부나 후원, 재단의 후원이나 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독일	- 약 20개의 상이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장학금의 성격 - 장학금, 신진 예술가상, 공로상 등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금으로 운영되는 상들은 주로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남긴 예술가를 기리거나 잠재성이 풍부한 신진 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수여되고 있음

## 라. 사업 내용

### 1) 예술원상의 운영 활성화

- 대한민국예술원상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원상에 대한 국민적 환기를 도모하도록 함.
- 예술원상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을 도입하도록 추진. 이를 위해 심사방식 및 수상혜택에 대해 검토하도록 함.

### 2) 예술원상의 심사 방식

- 심사 과정에서의 외부인사 참여 검토
  - 현재 예술원상의 수상자 결정은 「부문별 심사 → 종합 심사 → 총회 결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문별 심사 과정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규정).
  - 이러한 외부인사의 참여는 예술원상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을 이끌어냄으로써 예술원상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예술원상의 수상자 심사 및 결정은 예술원회원에게는 상당한 명예일 뿐 아니라 예술원의 고유한 권위의 상징이므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더라도 최종 수상자의 결정권한은 회원에게 부여.
  -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도 예술원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심사위원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예술원상 수상자 선정은 회원고유의 권한이므로 수상자의 최종선출은 회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해외 예술원의 경우에도 각종 시상제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회원들에게는 상당한 명예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외부위원을 두거나 외부에 심사를 위탁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회원이 가짐.

### 3) 수상 혜택

- 현재 예술원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휘장, 그리고 상금 3천만원이 주어짐.
- 이러한 수상혜택을 보다 확대하여 예술인의 예술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원상의 인지도 및 권위를 제고

- 수상 혜택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
  - 상금의 인상
  - 상패 및 기념품 등 예술원상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념물 수여
  -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회 제공
  - 예술원 회원과의 공동 작업
  - 기타 예술원상 수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슈화를 통한 간접적인 혜택 확대

### 3 회원 전승사업 활성화

#### 가. 개요

- 원로예술인들의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현장예술인 및 일반 대중에게 전승함으로써 예술적 영감과 꿈을 키워주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함.
- 직접적인 전승 외에도 회원의 업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예술담론 형성의 장 마련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전승방안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추진

####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예술원 회원의 예술세계와 경험을 후세에 전승함으로써 일반인 및 신진예술가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다. 여건 분석

##### 1) 예술원의 회원 전승사업 현황

- 현재 예술원의 사업 중 회원전승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예술원회원 강연회, 전시회, 정책 자문, 발간물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예술원 회원들의 직접적인 전승
  - 예술원 회원들의 전시회, 예술원 회원이 직접 주관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시리즈 등이

- 기준에 이뤄졌으나 주로 단발적인 행사들이었음 .
- 단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술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2) 해외 유사기관의 사례

- 해외 예술원의 경우에도 회원강연회, 세미나 등을 통한 직접적인 전승과, 회원의 작품 전시, 공연, 정책자문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전승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특징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경우로, 프랑스는 박물관 및 유고회원의 자택 등을 공개하거나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에 활용함으로써 회원의 업적 및 예술세계가 간접적으로 후세에 전승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표 60〉 해외 유사기관의 회원 전승사업 현황

국가	특징
일본	- 회원 무료 강연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강연회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승사업 · 어린이 꿈·아트·아카데미 : 회원이 자신의 연고가 있는 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실기지도 및 경험담을 들려주는 사회공헌사업 · 회원작품 스케치(모사) 프로그램
프랑스	- 프랑스는 정부 및 여러 관련 분야 협회 등에 대한 예술원 회원의 자문 및 고문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아카데미 회원은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통해 예술의 새로운 경향 파악과 이론적 고찰을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논문과 백서를 발간 - 박물관 및 유고회원의 자택 등을 공개하거나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에 활용함으로써 회원의 업적 및 예술세계가 간접적으로 후세에 전승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독일	- 독일은 예술원 회원의 작품과 대중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전시회, 강연회, 낭독회, 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음(일반 대중에게 유료로 개방)

라. 사업내용

1) 회원의 예술세계 및 경험의 전승

- 예술원 회원 및 신진 예술인의 교류 방안 모색
  - 예술원회원과 현장예술인과의 공동 전시 및 공동 공연
  - 예술원 회원 및 신진 예술인의 멘토십 프로그램 등

## 2) 정책자문기능 강화

- 현재 예술원은 정부의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등 각종 정책결정시 공식·비공식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건의와 자문을 해 왔음. 또한 회원들이 문화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자문위원회 등 정부 및 산하 유관기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예술원이 국가 예술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구심점(求心點)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술원회원으로서의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대통령 및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연 1회)
  - 예술 부문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수시) 등

## 3) 예술담론 형성 기능의 강화

- 예술원이 세계예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예술의 담론을 형성하는 교류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세계 예술의 흐름 파악
  - 예술원회원 국제교류 활성화
  - 국제예술심포지엄 개최 활성화
  - 해외 예술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예술 담론 형성의 장 마련
  - 예술원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예술원이 기획, 주관하는 세미나 및 강연회 시리즈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계 담론을 주도
  -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 수행
  - 예술원회원 세미나 활성화
  - 문화예술계 주요현안 및 과제에 대한 릴레이식 강연회 개최
  - 예술 담론에 대한 장르간 토론 및 연구기회 제공

## 4) 예술도서의 발간

- 현재 예술원에서는 매년 예술논문집과 예술원보를 발간하고 있으나, 발간부수 및 전체적

인 예산 측면에서 규모가 매우 작은 실정임.

- 발간부수 : 각 500부

- 소요예산 : 3천 3백만원

- 예술원의 주요 발간물의 집필자 등 참여자를 확대하고, 배부처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이 예술원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예 : 공공 도서관 및 각 대학도서관에 배포, 예술원 소식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식지 등을 통한 이메일 홍보 등

## 4 국제교류 활성화

### 가. 개요

- 국제예술심포지엄 등의 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유사기관 및 예술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 예술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사조와 경향을 파악하고 예술원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을 제고하도록 함.

###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예술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사조와 경향을 파악하고 예술원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을 제고하도록 함.
- 나아가 국제 예술계에서의 한국예술 및 한국예술인의 위상을 제고

### 다. 여건분석

#### 1) 예술원의 국제교류 현황

- 현재 예술원의 국제교류 활동에는 예술원회원 국제교류, 국제예술심포지엄 개최 등이 있음.
- 예술원회원 국제교류 사업은 매년 회원들이 국제예술회의 및 주요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국제예술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예술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년 2명의 회원에게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음.

- 국제예술심포지엄은 2명 내외의 해외 저명 예술인을 초청하여 예술원회원 및 대학교수, 국내 저명예술인 등과 함께 주어진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

2) 유사기관의 사례 : 대한민국학술원의 국제교류 현황

● 국제기구 참가

가입 기구 현황	8개 국제 학술기구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 : 1961년 가입, 회의참석 11회</li><li>- 태평양과학협회(PSA) : 1957년 가입, 회의참석 16회(1987년에는 서울에서 개최)</li><li>- 국제과학재단(IFS):1973년 가입, 회의참석 6회</li><li>- 국제학술원연합(UAI) : 1977년 가입, 회의참석 18회</li><li>- 아시아학술원연합(FASAS) : 1987년 가입, 회의참석 12회</li><li>- 국제지구권 생물권 연구계획(IGBP) : 1995년 가입, 회의참석 7회</li><li>- 아시아학술회의(SCA) : 2000년 가입, 회의참석 8회</li><li>- 국제학술원위원회(IAP) : 2000년 가입, 회의참석 4회</li></ul> ※ 8개 기구 중 6개 기구에 매년 분담금 납부(예 : 국제과학연맹이사회 연 \$11,400)
활동	대한민국을 대표해 총회, 심포지엄 등에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년 총회를 통해 회원국 중 회의개최국을 선발하여 진행</li><li>- 한국위원회 위원 결성 : 학술원 회장을 중심으로 10명 내외</li></ul>
예산	이전에는 학술원에서 국고를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나, 2008년 현재 교육과학부 다자협력과의 예산으로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산집행 내역 : 분담금, 항공료, 체재비 등(1인당 약 1,000만원)</li></ul>

● 학술 교류 사업

- 해외 유사기관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NAS, 영국학술원 및 Royal Society 등 9개국 12개 기관과의 교류협약을 맺고 있음.
- 특히 중국과학원 및 사회과학원, 일본학사원과 정기적인 간행물 송부, 방문교류 등을 통한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하고 있음.

다. 사업내용

1) 기존 국제교류 사업의 활성화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회원 국제교류 및 국제예술심포지엄 등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회원 국제교류의 내실화

- 해외 예술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또한 단순한 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시 및 발표 등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 국제예술심포지엄 사업의 활성화

- 국제예술심포지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생 및 일반인의 참여 확대

**2) 해외 유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해외 유사기관과의 교류협정을 맺고, 정기적인 방문 및 공동전시, 공동공연 등의 교류활동을 함으로써 한국예술 및 한국예술인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

● 예술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세계 예술의 흐름을 수용하고 한국 예술의 위상 강화

## 제2절

### 회원제도

#### 1 회원 예우의 내실화

##### 가. 개요

- 예술원회원에 대한 공적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를 함으로써 예술 공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함.
- 예우의 방안에 있어서는 경제적 예우 외에도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예우, 기타 사회적 인식과 존경심 차원에서의 다양한 예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예우를 내실화하도록 함.

#####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예술원회원에 대한 예우 강화의 방향은 예술원 회원 지위가 예술인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예우와 인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 원로예술인의 우대를 통해 예술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예술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회원 예우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통해 회원의 자긍심을 높일 뿐 아니라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하도록 함.

##### 다. 여건 분석

- 대한민국예술원법에는 예술원의 목적을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한다고 표현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자칫 국가의 ‘시혜’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며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

- 따라서 예술원의 설립 목적은 예술이 우리 사회의 삶과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만든 데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정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이런 의미에서 최고 예술인에 대한 예우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고 기리는 일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음.
- 회원 예우 방식도 회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보상 외에도 예술 공적에 대한 존경과 이를 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예술원 회원의 지위만으로도 명예가 되도록 운영되고 있음.
- 예술원 회원들의 견해도 다르지 않았는데, 예술원 회원 인식조사 결과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이고 정신적인 예우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다. 사업내용

### 1) 「예우」에 대한 개념 재정립

- 예술원 회원 예우는 예술이 국가사회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짐. 즉,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공경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우에 대한 접근은 그렇지 못해 왔음.
  - 회원인식조사 결과, 예술원회원들은 예술원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가지고 있는 반면, 별로 사회적으로 예우와 존경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이제까지의 회원 예우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나 국가의 예술인에 대한 시혜적 입장에서의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데에서 기인함.
- 따라서 지원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공적을 기리고 존경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예술원 회원 및 회원의 예술 업적에 대한 ‘예우’ 개념이 재정립 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용어 및 표현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령상의 ‘예술인에 대한 우대·지원’이라는 용어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개념이 강한 바, 이를 국가 예술발전에 대한 ‘공적을 기린다’는 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수당’이라는 용어의 개선도 필요
  - 용어 개선의 예

구분	현재	개선 방향
설립목적(미션)	예술인을 우대·지원	대한민국 예술에 대한 공적을 기림
정액 수당	정액 수당	기본 활동비

2)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예우 확대

- 회원 인식조사 결과, 회원들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 전반적인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제고와 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
-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회원 예우 확대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될 수 있음.
  - 단, 관련 기관과의 제도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예술원 회원을 위한 국공립 예술기관 무료 주차 및 무료 입장
  - 국가 주요 행사 시, 예술원 회원 자격으로 초대

3) 회원들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회 제공

- 예술원 회원은 비상근으로서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타분과는 물론 같은 분과 회원들 사이에서도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그러나 예술원이 예술장르간 장벽 없는 토론과 교류의 장으로서 예술계를 대표하고, 장르를 초월하여 보다 총체적인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회원들간의 소통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술원 회원을 위한 사랑방(Member's Room) 마련

- 회원 초청 행사
  - 예술원 개원기념일 등 의미 있는 날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회원 만찬
  - 이를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회원 세미나
  - 범 분과 차원의 회원 세미나를 통해 장르를 초월한 토론과 가치의 공유를 도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원 회원 세미나는 관련 예산의 부족 등으로 그 운영이 유명무실한 바,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예산 확보, 참여 회원 수 확대 등)이 필요

#### 4) 예술창작활동 지원의 내실화

#####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창작지원의 내실화

- 현재, 예술창작지원은 1년에 각 분과별 2인을 선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 인식조사와 자문회의 결과 이러한 지원은 창작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지원금을 골고루 분배하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한두 건의 지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창작활동에 집중하는 등 근본적인 창작지원의 방식 변화가 필요
- 이를 위한 지원금액의 단계적 현실화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절차의 간소화

- 창작지원금을 수령하면 창작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와 정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자문회의에서도 이러한 예술창작지원사업의 복잡한 절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자유로운 예술창작여건을 조성하고 회원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

#### 5) 유고 회원에 대한 추모 및 기념

- 유고회원에 대한 추모 및 기념을 통해 해당 예술인의 예술세계는 물론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환기를 도모.

● 예술원장(藝術院葬) 시행

- 회원 사망시 장례를 예술원장으로 치름으로써 회원의 예술 공적에 대한 국민적 환기를 도모
- 관련 분야 예술인들의 네트워킹 및 소통 기회로서의 의미도 가짐.
- 해외 사례(프랑스 아카데미 보자르)
  - 회원 사망시 아카데미 보자르 주최로 장례를 진행하며, 사무국 직원과 해당분과 회원 및 타분과 대표가 장례식에 참석함.
  - 장례식 참석 시 고인 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보자르 예복을 착용

● 기타 유고회원 기념 사업

- 전집 발간, 평전 작업, 기념 전시회, 도록 제작, 추모 공연, 추모 상영 주간 등의 사업을 통해 유고회원의 업적을 기념하고 보존·전승

## 2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회원제도 운영

### 가. 개요

- 오늘날의 예술 환경은 장르간, 세대간, 패러다임간의 변화가 활발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각지의 다양한 예술적 디אל로그(Dialog)가 일어나고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음.
- 예술원이 이러한 예술의 흐름과 변화를 수용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예술원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르간, 세대간, 패러다임 간의 장벽 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회원 구성에 있어서 예술장르, 세대, 국적 등에 대한 포용성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함.
- 그러나 예술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원의 권위가 회원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나온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됨.

##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예술원이 세대와 장르, 국적을 초월하여 현대 예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도록 추진

## 다. 여건 분석

- 예술원의 외부환경 분석 결과, 21세기의 예술은 그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성과 가치의 혼재 등의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예술계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예술의 흐름과 같은 맥락 속에서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예술의 규모 증대에 따른 예술원 정원 및 회원선출의 문제, 장르의 해체 및 융합 등 예술 자체의 변화에 따른 예술원 분과구분에 대한 재고, 예술의 국제화에 따른 회원 자격에 관한 문제 등의 논의가 예술계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라. 사업 내용

### 1) 회원 선출제도에 대한 검토

- 현재 예술원회원의 선출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신규회원 선출 절차 : 후보자추천(예술원회원 및 외부추천기관) → 후보자선출위원회 심사 → 자격심사위원회 심사 → 총회 인준 → 예술원회장 임명
- 회원 선출에 있어서 일반대중과 예술계, 회원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예술원 분과위원회가 전형적·전통적 예술장르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장르 예술인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신규회원 선출은 예술원 고유의 권한으로써, 예술원 회원들이 신규회원을 추천하고 선출하는 현재의 방식은 예술원의 자율성 및 독립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 해외 유사기관의 경우에도 신규회원의 추천 및 선출권은 기존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을 선출하는 권한 자체가 예술원회원의 명예와 권리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61〉 해외 유사기관의 신규회원 선출 권한

구분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추천	부회	분과	분과	분과 또는 위원회
선출	총회 승인	총회 비밀투표	총회 비밀투표	총회의 동의
임명	문무과학대신	회장	회장	회장

- 따라서 신규회원 선출에 있어서는 예술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근간으로 유지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회원선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회원 정원의 점진적인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2) 회원 정원에 대한 검토

- 예술원 회원 정원
  - 예술원회원 정원은 1988년 87명에서 1996년 100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음.
  - 예술원 회원 정원의 변화 추이

〈표 62〉 연도별 회원 정원의 변화

1954	1957	1960	1981	1988	1996	2008년 현재
25명	40명	50명	65명	70명	100명	100명

- 예술의 확대 및 예술장르의 다양화를 반영하기 위해 회원 정원의 점진적 확대 필요
  - 정원 확대 시, 국내의 인구성장률, 국내 예술의 규모, 예산의 규모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정원의 수가 특별한 의미를 상징할 수 있도록 숫자의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3) 예술원 장르 및 분과의 조정 검토

① 예술 환경의 변화

- 최근의 예술계는 장르간의 융합이나 새로운 장르의 출현 등 기존 장르의 해체 현상이 일

반적인 추세임.

- 그러나 현재 예술원의 분과는 전통적인 예술장르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장르 예술인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인식이 존재
- 따라서 새롭게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용하고, 예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기존의 분과의 조정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원의 확대
  - 분과 구분 조정 시 총 정원 및 분과별 정원의 확대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분과 조정의 예

- 분과의 분류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 예술장르를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누고, 새로운 장르의 수용이 필요할 때에는 중분류 안에서 신규분과를 신설하는 방안
  - 분류체계 조정의 예 :

대분류	중분류
문학	시
	소설
	수필
	평론
미술	회화
	조각
	사진
	건축

- 해외 사례로는 일본예술원의 분과구분을 참고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3부 16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 안에서 필요시 새로운 분과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분과를 독립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부	분과	정원	현원
제1부. 미술	제1분과 일본화	56	12
	제2분과 양 화		14
	제3분과 조 소		8
	제4분과 공 예		7
	제5분과 서 예		2
	제6분과 건 축		7
	소 계		45
제2부. 문예	제7분과 소설·희곡	37	18
	제8분과 시 가		7
	제9분과 평론·번역		5
	소 계		30
제3부. 음악·연극·무용	제10분과 가면극(能樂)	27	7
	제11분과 가부키(歌舞伎)		7
	제12분과 인형극(文樂)		1
	제13분과 민속악(邦樂)		5
	제14분과 양 악		3
	제15분과 무 용		1
	제16분과 연 극		0
	소 계		24
합 계		120	99

- 이러한 방식을 취할 경우, 각 분과별 정원의 문제는 중분류(분과)의 정원은 확정하지 않고, 대분류(부)에서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일본 예술원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음.

● 분과의 명칭을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

- 현재의 분과의 명칭을 보다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용
- 예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 해외 사례 : 독일 예술원의 분과 구분
  - 미술(Bildende Kunst)
  - 건축예술(Baukunst)
  - 음악(Musik)
  - 문학 (Literature)
  - 공연예술(Darstellende Kunst)
  - 영화 미디어 예술(FilmundMedien kunst)
- 단, 분과의 명칭 변경은 미학자 등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 또한 새로운 예술장르를 둘러싼 의견 차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됨.
- 전통적인 틀을 유지하되, 필요시 새로운 분과를 신설하는 방안
  -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명칭을 사용하되, 필요시 새로운 예술장르를 신설함으로써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방안
  -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
    - 프랑스의 경우, 기존의 장르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장르의 분과를 신설(예 : 2005년 사진분과의 신설)
    - 미국의 경우, 「문학, 미술, 음악」의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술 장르의 다변화에 따른 회원분과에 관한 논의가 존재해 왔음. 수많은 논의 후 사진, 재즈, 출판, 영화 관련 분야를 기존 분과 내로 포함시키지는 못했으나, 기존 분과에 해당되지 않는 장르의 예술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미국인 명예회원’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장르 예술인들을 아카데미 회원으로 수용하고 있음.
  - 안정적인 바탕 하에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예술 장르의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예술 환경에서, 신설되는 분과의 장르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함.
- 현재 예술원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일본 예술원 사례처럼 분과의 분류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임.

#### 4) 회원 선출 절차

##### ① 후보자 추천

- 현재 회원 후보자의 추천은 예술원회원,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장, 예술단체의 장, 대학교 총장에 의해 이루어짐.
- 세대, 장르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외부 추천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② 실질적 회원 선출 권한

- 예술원의 신규회원 선출절차는 “후보자추천(예술원회원 및 외부추천기관) → 후보자선출위원회 심사 → 자격심사위원회 심사 → 총회 인준 → 예술원회장 임명”으로 이루어짐.

- 실질적으로는 각 분과위원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선출이 되면, 총회에서 가부투표를 통해 이를 인준해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원 결정은 분과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원 회원은 해당 장르 내에서의 전문성 차원을 넘어, 전체 예술의 차원에서 예술성과 인품을 두루 갖춘 예술인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원 회원 선출에 있어서도 해당 장르의 전문성보다는 범장르 차원에서의 예술적 총의를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음.
-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일본예술원은 실질적인 회원 결정권이 각 분과에 있고 총회는 그것을 승인하는 방식이지만 나머지 프랑스, 미국, 독일은 각 분과나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예술적 총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회원 결정의 실질적 권한을 현행의 ‘분과’보다는 ‘총회’로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예) 분과별 다수의 후보자 추천 → 총회에서 무기명 연기투표(連記投票)를 통해 최종 선출

### ③ 의사결정 정족수

- 현재 분과에서의 회원 추천 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의 추천이 이루어짐. 그러나 현재 예술원 회원들의 연령 및 해외체류 회원 등을 고려했을 때 참석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는 바, 이러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이는 결과적으로 회의참석을 저조로 이어지며, 이러한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정족수의 기준을 완화하되 적용은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예 : 분과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2/3’에서 ‘과반수’로 완화 등).

## 5) 회원 자격의 확대 검토

### ① 해외 동포 예술인

- 현재 예술원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동포 예술인들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예술성을 인

정반고, 더불어 대한민국 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임.

-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대한민국 예술의 위상을 높인 공적을 기리고, 역으로 예술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동포 예술인을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단, 예술원 회원에 해외 동포 예술인을 포함시킨다면, 국내 예술인 회원과는 다른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예 : 정회원(국내 회원), 명예회원(동포 예술인 회원) 등
- 반면 전문가인식조사 결과, 국내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국내 예술인에게 더 많은 배려와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② 외국인 예술인

- 예술에 있어서의 지역간, 국가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국제적 예술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에 대한 회원자격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외부 인식조사 결과,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예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단, 기존의 회원과는 차별화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 유사기관의 외국인 회원 현황
  - 대한민국학술원
    - 외국과의 학술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학술원회원이 노벨상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명예회원’제도를 운영.
    -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연임 가능)이며, 현재 노벨상 수상자 5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명예회원이 있음.
    - 그러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외국인 학자를 회원으로 선출하고 회원으로서 예우하기 위해서는 관련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독일(Akademie der Künste, Berlin)

- 설립 초기의 이상향이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커뮤니티’였던 독일예술원은 회원 자격에 있어서도 국적, 거주지,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표 63〉 유사기관의 외국인 회원 현황

구분	대한민국예술원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외국인회원 유무	○	×	○	○	○
명칭	명예회원	—	준회원	외국인명예회원	회원 (별도명칭 없음)
비고					기존의 회원자격에 외국인도 포함

- 그러나 외국인을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관련예산의 문제, 예술원의 정체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 예술인을 회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관련예산이 충분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대한민국예술원의 정체성 차원에서 외국인 예술인에게까지 회원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었음.

6) 원로회원 제도

- 고령이나 병환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이 곤란한 회원에게 원로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회의 참석 등 활동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술원회원의 평균연령 : 78.4세
- 원로회원 기준의 예 : 재임기간 25년 이상의 회원 등
- 기존의 예우는 그대로 유지하되, 회의 참석 의무 및 예술원의 위원회 등에서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단,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 참여).
  - 임기를 종신으로 전환
- 회원 업적 기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
  - 회원 업적 기록사업은 예산 등 제반 여건의 한계로 인해 모든 회원의 업적을 동시에 정리하기 어려우며, 제반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 따라서 단계적 추진의 기준을 원로회원이 되는 회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해외 사례

- 해외 유사기관 사례에서 회원의 연령에 따른 등급을 두는 사례는 없었으나, 프랑스의 경우 국내외 예술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위해 ‘통신회원’이라는 명칭의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통신회원의 자격에는 자국민(프랑스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됨.



## 제3절

### 운영 기반

#### 1 예술원 청사 공간의 확보

##### 가. 개요

- 예술원의 자료관, 작품 전시공간, 세미나실, 강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사 공간을 마련하여 일반인의 예술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원과 일반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예술담론을 형성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별도의 청사공간을 활용해 각종 전시 및 행사 등 예술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일반인의 예술원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예술원 아카이브, 회원기념관, 작품전시실, 세미나실, 강연회실 등의 공간을 통해 예술인 및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여 일반 대중과 함께 살아 숨쉬는 기관으로서의 예술원으로 거듭나도록 함.
- 현장의 예술인들이 원로 예술인들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으며 예술계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토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다. 여건 분석

###### 1) 예술원의 청사 현황

- 현재 예술원은 국유재산인 학술원 사무국 건물의 일부(328.4평)를 「무상사용수익허가」 받아 사무국 사무실 및 회의실, 미술관, 자료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술관의 경우, 130평 규모로 예술원회원 미술전 및 예술원 소장 작품전 등에 활용됨.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져, 일반인이 참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미술관 수장고의 경우 10평 남짓 되는 공간으로써, 규모나 소장품의 보관 환경 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향후 소장 작품의 증가추이를 고려했을 때, 수장고의 확충이 불가피함.
- 따라서 향후 예술원이 일반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각종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청사 공간의 확보가 요구됨.

2) 해외 유사기관의 청사 현황 및 활용

- 해외 예술원의 경우,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청사 외에도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의 부속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청사 및 부속건물들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거나,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서, 각 기관은 이들 청사를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64〉 해외 유사기관의 청사 현황 및 활용

구분	청사현황 및 활용	비고
일본	- 예술원 회원인 고 요시다 이소야의 설계로 1958년 준공 (규모는 부지 3,580㎡, 건물 1,435㎡이며, 도쿄에 위치) - 회의, 간담회, 예술원상 시상식 등에 활용되며, 전시실에서는 예술원 소장 미술품을 일반에게 공개(부정기)	- 회원 고 요시다 이소야 설계. 일본 모던 무브먼트 건축 100선으로 선정됨
프랑스	- 본관 : 예술원 사무국 사무실로 활용 - 이 외에도 마르모땅 미술관, 지베르니 모네의 집, 마르모땅 도서관, 빌라 에프루시드 로스 차일드, 뤼싸 기증회 등의 부속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미술관, 도서관, 회의실, 공연장 등으로 활용됨 - 특히 지베르니 모네의 집은 모네의 작업과정 등을 공개하여 일반인 및 젊은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아카데미 보자르가 소유한 이들 건물들은 대부분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한 것임
독일	- 본관 : 1696년 건립되었으며, 통일 후 6년간 재건축 하여 2005년부터 사용. 문서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짐 - 제2청사 : 미국 출신 기업가인 Reichhold가 건축자금을 기부하고 베를린에서 토지를 제공하여 건립. 전시장, 강연회, 행사장 및 예술가들의 아틀리에 등으로 활용 - 문서고 : 동독 시절 예술원 건물로 사용되던 건물로, 현재는 예술원 소장 자료를 관리하는 문서고와 대중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으로 이용	
미국	- 제1청사(사무국) : 1923년 건립. 사무국 사무실, Member's room, 초상화 갤러리, 도서관, 전시 공간(남쪽 갤러리)으로 활용 - 제2청사 : 1930년 건립. 갤러리, 전시공간, 강당(730석)으로 활용 - 제3청사 : 기존 미국 화폐학 협회의 청사를 2005년에 구입. 갤러리, 아카이브, 도서관, 사무실로 활용	- 제1청사의 청동문은 아카데미 최초 여성회원 소설가 Mary E. Wilkins Freeman에게 헌정

## 라. 사업 내용

### 1) 입지의 선정

- 새롭게 필요한 예술원의 청사는 일반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용도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할 것임.
-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국악원 인근, 대학로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예술원의 청사를 마련하고, 부대시설이나 대관시설에서 예술원 주최의 문학행사, 미술전시, 공연행사 등 각종 행사를 치름으로써 일반 대중의 예술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2) 청사의 구성 및 활용

- 각종 전시 및 행사를 위한 공간, 일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 등 예술원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
- 예술원 아카이브, 회원기념관, 작품전시실, 세미나 및 강연회실, 각종 행사를 위한 강당, 예술원회원을 위한 사랑방 등
- 청사 자체의 역사성 및 예술성을 바탕으로 한 인지도 제고의 가능성 모색
- 해외 유사기관의 경우, 청사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일반인에게 보다 널리 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일본 : 회원인 고 요시다 이소야의 설계로 지어진 일본예술원 청사는 ‘일본 모던 무브먼트 100선’에 선정되는 등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음.
- 프랑스 : 모네의 작업실, 마르모탕 미술관 등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각종 부속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회원의 유족이나 개인,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것임.
- 미국 : 제1청사의 청동문의 경우, 아카데미 최초 여성회원인 소설가 Mary E. Wilkins Freeman에게 헌정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킴.

### 3) 청사 공간 확보 방안

- 현재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예술원의 자료관 및 미술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관 개념의 청사 공간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원만의 독립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2 예술원에 대한 대내외 홍보 강화

### 가. 개요

- 인터넷, 미디어, 발간물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내외 홍보를 통해 예술원의 존재 및 예술원의 각종 사업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함.

###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예술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술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일반인 및 현장예술인에게 인지도를 제고.
- 예술원 회원의 작품 및 예술세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예술의 위상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

### 다. 여건 분석

#### 1) 예술원의 내부 여건

- 현재 예술원은 일반인 및 현장예술인에게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별한 홍보활동 또한 수행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예술원이 예술의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고 한국 예술계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예술원 인지도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 해외 유사기관의 사례

- 일본예술원의 경우, 홍보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특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시상제도 등을 통해 현장예술인 및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간접적으로 홍보효과를 얻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홍보부가 따로 있어 비교적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편에 속함. 홍보부 직원은 2008년 현재 총 12명으로, 기본적으로 예술원 자체의 대외 홍보 뿐 아니라, 예술원에서 하는 각종 행사팜플렛, 보도자료, 간행물 편집 등 예술원 발간 자료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또한, 기관 교류 및 연방정부 관련 업무도 홍보부에서 담당함.

## 라. 사업내용

### 1)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 신문, 라디오, TV, 뉴미디어, 인터넷 등에 고정칼럼 집필이나 고정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매체에 예술원 회원들이 자주 노출되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 공중파 방송에서의 회원 관련 기획물 제작 지원
  - 국정방송(KTV) 및 공중파 방송에 제작비를 지원하여, 회원의 작품 및 예술세계에 관한 기획시리즈물을 제작하여 방영

### 2) 인터넷을 통한 홍보

- 홈페이지의 정보수준 제고
  - 현재 진행중인 예술원 사업(미술전, 예술원상 시상, 강연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홈페이지의 빠른 업데이트 필요
  -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영문홈페이지 구축
- 회원 동정에 관한 정보 게시
  - 회원의 출판, 전시, 공연, 강연회 등의 정보 제공
  - 예술원 회원에 관해서는 예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
-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예술원 배너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포탈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의 관련사이트리스트에 예술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메인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달아 예술원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

### 3) 예술원 온라인 회원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회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일반인의 예술원에 대한 친근감을 유발 하도록 함.
- 온라인 회원에게는 정기적인 예술원소식지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
- 예술원회원 강연회 등 예술원사업에 관한 소식을 수시로 제공
- 예술원회원과의 만남, 온라인회원예 대한 전시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

## 3 예산의 확보

### 가. 개요

-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예술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술원의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다. 여건 분석

#### 1) 예술원의 사업비 현황

- 현재 예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됨
- 예술원 2008년도 예산 현황
  - 총예산 : 2,804,706천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 790,992천원
  - 사업비 : 2,013,714천원

● 사업비 주요내역

- 회원 정액수당 지급, 각종 회의수당,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회원세미나, 회원선출, 예술원 미술전, 회원 국제교류, 예술도서 발간 및 도서 구입, 미술작품 구입 및 미술관 운영, 예술 강연회, 예술창작활동 지원, 국제예술심포지엄,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책자문회의 개최, 기타 경비 등
- 회원 정액수당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약 3억 원 정도이며, 이의 대부분은 예술원상 시상금에 소요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내실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요구됨

## 2) 유사기관의 재원운영 사례

●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 대한민국학술원의 경우, <학술원연구재단>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여 연구재단의 연구비로 활용하고 있음. 단, 기관의 성격상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으로만 해당재원을 사용할 수 있음.
- 연방정부 소속의 독일예술원의 경우, 연방지원금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 등을 통해 자체수입(전체 예산의 3.7%) 확보

●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프랑스의 경우, 다수의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유증과 기부를 통한 수입과 마르모탕, 지베르니, 에프루시 박물관 등의 운영수익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재원은 개인 재력가의 기부이며 이러한 기부금에 의한 자산을 중심으로 회원 납부금으로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음(회원은 일정금액의 연회비 지불).

## 라. 사업내용

### 1) 예산의 확보

●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

-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외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

로써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예술원의 주요 사업들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외부의 전문 인력을 거의 활용하지 못한 채 수행되고 있음.
- 특히 예술원 주최의 미술전 개최나 도서출판 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회원이 전시기획, 컨설팅 그리고 집필, 감수, 편집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비 자체예산 외에도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

●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 회원의 업적 정리, 예술원 아카이브 구축, 청사 확보 등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2) 운영재원의 다양화 모색

● 재단 설립을 통한 기부금 및 후원금 모집

● 자료관 및 미술관 등의 입장료 수입

● 회원 기념물의 제작·판매 등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 50년사』, 2004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 2004  
 \_\_\_\_\_, 『2007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학번역원,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 -일본 문학을 중심으로』,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 2006  
 \_\_\_\_\_, 『공연예술 전문 투자조합 설립 방안 연구』, 2006  
 \_\_\_\_\_,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문예연감』  
 \_\_\_\_\_, 『2007 문예연감』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 『A Century of Arts & Letters』, 1998  
 \_\_\_\_\_, 『Proceedings, 2nd Series』, 2004

### □ 통계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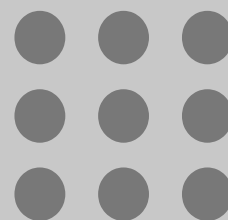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4  
 \_\_\_\_\_, 『교육통계연보』, 2005  
 \_\_\_\_\_, 『교육통계연보』, 2006  
 \_\_\_\_\_, 『교육통계연보』, 2007  
 대한출판문화협회, 최근 10년간 분야별 번역출판종수 추이(신간, 1998~2007), 2008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시도/산업별 총괄』, 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예술통계』

### □ 인터넷 홈페이지

- 대한민국예술원, <http://www.naa.go.kr>  
 일본예술원, <http://www.geijutuin.go.jp>  
 프랑스예술원(Academie-des-beaux-arts), <http://www.academie-des-beaux-arts.fr>  
 미국예술원(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http://www.artsandletters.org>  
 독일예술원(Academie der Künste), <http://www.adk.de>

# 부 록

예술원회원 인식조사 설문지



##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예술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허은영 연구원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전화 : 02)2669-9872 / 팩스 : 02)2669-9880

E-mail : cbsyou@kcti.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 통계 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 A. 소속 분과
- ① 문학 분과

② 미술 분과

③ 음악 분과

④ 연극·영화·무용 분과 중 연극

⑤ 연극·영화·무용 분과 중 영화

⑥ 연극·영화·무용 분과 중 무용
- B.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있었던 기간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 25년 미만

⑥ 25년 이상 ~ 30년 미만

⑦ 30년 이상

I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인식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1. 예술원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2.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국가 예술 진흥 및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II 예술원의 기능 및 발전방향

- 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
- ② 예술 창작활동 지원
- ③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 및 담론 형성
- ④ 정책 자문을 통한 국가예술 발전에 기여
- ⑤ 예술인의 발굴 및 양성
- ⑥ 기타 ( )

『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기능)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 ①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 ②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 ③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 ④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 ⑤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매우 잘 수행됨	대체로 잘 수행됨	별로 잘 수행되지 못함	전혀 잘 수행되지 못함
5-1.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①	②	③	④
5-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①	②	③	④
5-3.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①	②	③	④

5-4.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기능	①	②	③	④
5-5.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6. 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한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① 회원에 대한 예우 확대·강화

②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③ 후진 발굴 및 양성

④ 교육 기능 확대

⑤ 문화예술분야 연구 기능 강화

⑥ 정책자문 기능 강화

⑦ 예술원의 국제화

⑧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권위 제고

⑨ 예술원 회원의 확대

⑩ 기타( )

7. 새로운 예술 장르의 등장, 장르 간 통합 등 예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예술원 회원의 구성 체계를 개선(예 : 회원 분과의 명칭 개선, 해외 예술인을 준회원으로 임명 등)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예술원 회원의 구성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문항 7-1로
② 예술원 회원의 구성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	⇒ 문항 8로

7-1. (※문항 7에서 ①번 응답자만) 예술원 회원 구성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장르를 폭넓게 포괄(예 : 문학, 시각예술(회화, 조각, 건축 등), 공연예술(음악, 무용 등), 다원 예술 등)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② 해외동포 예술인도 예술원 회원 선출의 대상으로 한다.
- ③ 외국 유명 예술인도 예술원 회원 선출의 대상으로 한다.
- ④ 예술원 회원 체계를 세분화(예 : 정회원, 준회원 등. 단, 기존의 예술원 회원은 정회원으로 유지)한다.
- ⑤ 기타 ( )

8.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국가의 예술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